금주의 법구-〈법구경〉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 되돌아 오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5월 1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1호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불교적 문제해결력 확보가 '깨달음 담론' 현대적 의미

박태원 울산대 교수, 〈불교평론〉여름호 특집서 주장





韓불교 '깨달음'에 흥분하는 건
불교적 문제해결력 없기 때문
'깨달음 담론' 위한 선결 과제

北傳·南傳 통섭, 실용불학 제안
현재적 관심으로 해결력 구현
서구 '박물관불교학'서 벗어나야

올해 새해 벽두,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깨달음은 이해'라는 주장을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비판함으로써 다시 촉발됐던 '깨달음 논쟁'이 한국불교의 향상을 이끄는 담론화로 발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불교평론〉 여름호 특집 '깨달음에 관한 8가지 담론'에 기고한 논문 '깨달음 담론이 갖추어할 조건들'에서 깨달음 논쟁이 일회성 소란으로 그치지 않고 발전적 담론으로 자리잡기 위한 요소들을 살폈다.

박 교수는 현응 스님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깨달음의 논쟁은 돌출적 주장이 아니라 간화선에 대해 누적되고 있는 비판적 인식이 승단 내부에서 표출된 '예비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간화선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승단 내부에서 공론화되는 계기가 형성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이 질문에 '어떤 내용으로 응답하느냐'는 것은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어떤 내용으로 응답할지에 앞서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을 진단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역사상 지금처럼 불교에 대한 소상한 지식과 정보가 용이하게 유통된 적은 없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으로 불교 지식에 대한 갈증은 대부분 해소된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법회와 강좌가 지금처럼 많이 열린 적도 없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불교인들이 '깨달음 논쟁'에 유독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 교수의 대답은 "불교의 정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이다. 즉, 삶에 대한 불교적 문제해결력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부처님의 법설은 지금 여기에서, 삶의 불안과 상처에 대한 문제들을, 경험과 선택이 가능한 범주에서, 근원적으로 풀어주는 해법"이라며 "이처럼 불교의 고유 생명력은 '문제해결력'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불교의 깨달음 논쟁은 '불교적 해결력 확인과 확보'에 대한 갈증의 표현이다. '깨달음 담론'의 현재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적 해결력에 대한 혼란과 결핍을 초래한 이유로 박 교수는 △남방불교 전통과 북방불교 전통이 직접 조우하면서 발생한 상호 불화 △불교의 문제해결력을 현재적 시선으로 포착·발굴하는 관심이 처음부터 결여된 근현대 불교학의 속성을 꼽았다.

오로지 '간화선만이 최상승 수행법'이라는 주장과 '대승전통은 불교가 아니다'는 상호 대립은 대중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각 전통에서 수립된 교학과 수행, 신행 등의 해석학적 차이들을 그 어떤 전제에도 갇히지 않고 현재적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불교전통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설과 불교적 문제해결력을 온전히 포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구 '박물관 불교학'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현대불교학은 '실용불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실용불학에 대해 박 교수는 "문제해결의 불교적 방식이 지닌 사용가치를 현재적 관심으로 포착해 발전·구현시키려는 가치지향적 탐구"라면서 "이것은 실존의 문제해결을 위해 불교적 통찰을 학문적 깊이에서 길어 올리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적 문제해결력을 현재적 관심으로 발굴·구현하는 데 집중하는 실용불학의 태도, 이를 토대로 남전과 북전의 전통을 통섭적해 제3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깨달음 담론'의 핵심 구성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교평론〉여름호 특집 '깨달음에 관한 8가지 담론'에는 △깨달음 논쟁, 그 오래된 역사(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의 문제(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선불교의 본래성불의 의미(변희욱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 △인지과학에서 바라본 깨달음(양해림 충남대 교수) △유교의 깨달음에 대한 비판과 의미(최일범 성균관대 교수) △깨달음은 탐진치를 해소해주는가(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등의 논문이 실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바탕 춤사위로 호국영령 기립니다 현충일인 6월 6일 신촌 봉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가 중요무형문화제 제50호인 영산재가 1000여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졌다. 사진은 영산재보존회 소속 스님들이 흥겹게 바라춤을 추는 모습이다. 영산재보존회는 매년 현충일에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영산재를 열고 있으며, 이번 영산재는 28번째다. 영산재보존회는 다음날인 7일 봉원사 경내에서 제1회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도 개최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만공 스님, 만해의 독립자금 지원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새로운 증언 '눈길'

경허만공선양회장 옹산 스님
녹취본 本紙에 전해와

안거 입재서 춘성 스님 일화 전해
"만해 스님의 항일 운동 뒤에는
만공 스님의 지원 등 노력 있어"
"독립운동가 선정돼야" 여론 높아

만공 스님이 일제시대 당시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와 주목을 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5월 21일 하안거 입재법회서 만해 스님의 상좌인 춘성 스님으로부터 들은 만공 스님의 항일 독립운동 활동을 전했다. 이 증언은 경허만공선양회 회장 옹산 스님이 녹취해 본지에 전달하면서 알려졌다.

설정 스님은 입재법회서 "1987년 입적한 만해 스님의 시자 춘성 스님은 평소 만공 선사께서는 일제 때 돈이 좀 생기면 은밀히 선학원에 가셔서 만해 스님을 오시라 해서 돈을 주시곤 했는데 그것은 항일 독립자금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설정 스님은 "춘성 스님은 우리 스님(만해 스님)이 항일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만공대선사 같은 분의 숨은 노력 덕분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다"며 "지금까지도 탄신일과 추모일에는 만공 선사의 일화를 음미하며 긍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스님은 "이 같은 취지의 말씀이 생각나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만공선사 학술세미나서 법문할 때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대중들 앞에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었다"라며 "만공 스님은 일본총독에게 불교진흥책의 부당함을 말하고 호통친 것 외에도 음으로 양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설정 스님은 은사 원담 스님이 생전에 했던 말도 기억을 되살려 전했다. 만공 스님 시자였던 원담 스님은 1985년 당시 독립기념관 건립에 8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는 원담 스님이 1년간 준비해 개최한 서예전 수익금 전액이었다.

설정 스님은 "은사 스님도 만공 스님의 영향을 받으셨다. 평소 만공 선사와 같은 분들을 생각하면 나라에 일조해야겠다고 늘 말씀 하셨다"며 "2008년 입적하신 원담 스님이 지금도 계신다면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경허만공선양회 회장 옹산 스님은 "만공 선사의 항일 독립 활동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투옥되거나 일선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인물 지정을 거부하는 정부의 입장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많은 국내 학자들이 당시 31본산 주지 중 유일한 창씨개명 거부와 관련한 만공 스님의 활동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특히 원불교 백과사전 등에는 만공 선사를 이미 독립인물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시책이 미래세대를 위한 모범적인 인물을 독립운동가로 지정한다는 취지라면 마땅히 만공 스님도 독립인물로 지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만공 스님의 독립운동가 지정에 대한 보훈심사서 "1937년 2월 27일 조선총독부에서의 '선기발로' 사건에 나타난 것은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지만, 1941년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선학원서 개최된 고승법회의 식순에 포함된 위령제와 1941년 4월에 출범한 조계종의 고문이라는 사실로 독립운동가 지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만공 스님이 1941년 4월 조계종 출범시 종무고문이었으나 고문은 종무원 직사에 포함되지 않은 직이었고, 만공 스님은 해방전까지 조계종 회의, 행사에 일절 참여한 기록이 없는 등 일체의 종단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만공 스님의 독립 정신에 대한 흠결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주일 기자

1101호 INDEX

시방세계 5
사찰음식점 '마지'
종교음식과정 수료 현장



그대는 자비보살 14·15
명성 스님
운문사 회주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





전주페이퍼가
친환경 종이로 또 한 발 앞서갑니다

전주페이퍼는 친환경 종이 활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의 대부분 제품들은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전주페이퍼의 친환경 종이는 환경과 재활용을 생각하는 고객과 미래가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인쇄적성이 좋아 색상재현에 있어서도 뛰어납니다. 또한 불투명도 및 하이벌키(High Bulky)한 특성을 그대로 살려 어디에서든지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주페이퍼



"종조 가르침 새겨 佛恩에 보답"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법석이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6일 조계사 대웅전서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집행부 스님, 재가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를 거행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조사께서 원력하신 선풍진작과 화합원융이 사바에 두루 가득하여 인류의 평안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 안팎 반발에도 '염화미소법' 강행될까

중앙종회 제 206회 임시회 안건 살펴보니

6월 21일 개최 예정인 제206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상정될 안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종회에는 종단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염화미소법'을 비롯해 종회의원의 총무원 교역직 겸직 허용 등 안건이 대거 상정될 예정이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가 상정 예정인 '총무원장 선출에 관한 법'이다. 일명 '염화미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추천인단 706명이 총무원장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갈마위원회 후보검증과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종정 스님이 추첨하는 제도다.

'염화미소법'에 대한 논란은 대중들의 '직선제'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고 있다.

가장 먼저 대중공사 참석대중 일부는 이번 염화미소법 상정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실현을 위한 대중공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까페와 아고라 등을 통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준비위원회 허정 스님은 6월 3일 종회에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대중공사의 결론을 외면하면 대중공의를 존중하는 승가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염화미소법'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고있다. 먼저 후보자 3인 추천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 30대 총무원장 선거부터 34대까지 후보자가 3명을 넘어서는 경우는 2번에 불과했다. 이에 입후보자와 추천된 후보가 같을 경우 추천제도가 자체가 무의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후보검증을 위한 갈마위원회가 한두 명의 후보자만 검증을 통과시키는 경우에도 추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

직선제 미반영에 대중 서명운동

추천과정 유명무실 지적도 나와

갈마위 권한 남용 문제점 여전

종회의원의 종무직 겸직 허용 여부

한글 표준의례의식안 동의도 관심

또한 10여명에 불과한 갈마위원회가 권한을 남용 할 시 현행 321명의 선거인단 간선제보다 참종권이 더 훼손된다는 단점이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이상한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안된다'는 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하고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종단발전은 고사하고 대중의 분노만 살 것이다. 종교라 해도 사회가 공감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선출제도특위 위원장 초격 스님은 "이번 안건은 종회에서 종단 안팎의 관심사인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라며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함결 스님도 "직선제를 선호하는 종회의원들도 있다. 오히려 직선제 입법청원과 같이 여론을 종회의원에게 전하는 움직임이 없어 아쉽다"며 "제도 개선까지는 종헌·종법 개정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월된 안건도 논란거리

이와 함께 제206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종헌 개정안과 대각회특별교구법 제정안, 지방종정법 개정안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이들 안건은 205회 임시회에서 격론 끝에 이월됐다.

먼저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의 총무원 부실장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5회 임시회에서는 '인사난을 해소하기 위해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종헌종법특위의 발의 취지 설명에도 종회에서도 입장차이가 확연했다.

교구본사 주지의 3임 제한을 골자로 한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교구별 특성으로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권력독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임시회에는 조계종 의례위가 요청한 우리말 삼귀의와 사홍서원, 행선축원, 신중예경, 조석종송 등 5건에 대한 종단 표준의례의식안 최종본 동의안건이 다뤄진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조계종 의례는 반야심경, 칠정례, 천수경에 이어 삼귀의와 사홍서원까지 모두 한글화될 전망이다.

또 동국대 감사 제정 스님의 임기가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되는 복수후보자에 대한 동의안도 다뤄진다.

한편, 당초 6월 임시종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94년 멸빈자 특별법 상정은 사부대중위원회 활동 종료시점인 9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사부대중위원회 관계자는 "대중공사추진위원회가 94년개혁 멸빈자 사면을 하반기 주제로 잡고 있기에 위원회에서도 여론 수렴 후 차기 종회에 상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승적업무 관리 개편 나서

6월 7일 '승적업무관리에 관한 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총무원이 2013년 도입한 승적관리시스템이 개편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6월 7일 '승적업무관리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승적업무관리에 관한령'은 승적관리 업무의 근거법령으로 법령 개정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행정시스템 개편에 의한 것이다.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 정비와 법령 개정으로 중복승적 데이터가 정리되며 신상변동 사항도 데이터화 된다.

특히 입적에 관한 부분의 처리과정이 다양화된다. 그동안 입적은 사망신고에 의해서만 집계돼 행정업무에 애로점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입적 신고가 없더라도 신문기사, 검안서, 화장증명서 등 객관적 입적사실 확인 가능 시 총무부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적교구본사 주지 및 도제, 사형사제 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양화되는 승적 증명을 위해 새롭게 도제관계확인서와 제적확인서, 결계확인서, 법계확인서, 재적본사확인서 등도 신설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적에 대한 증명서 및 확인서는 영문 등 외국어로도 발급된다.

이밖에 재수계자에 대해 기존에는 승랍만 재기산 했던 데에서 재수계년부터 승랍을 기산해 승적번호가 변경된다.

한편, 승적업무관리에 관한 령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선학원, 100인 대중공사 참여 거부

8일 이사회서 결의…"법인법 폐지 선행" 원론 고수

조계종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추진위원회가 '조계종·선학원 갈등 해결'을 주제로 한 3차 대중공사를 예고한 가운데, 선학원 측이 이에 대한 공식 불참 입장을 밝혔다.

대중공사추진위는 6월 3일 선학원 측에 공문을 통해 "8월 25일 3차 대중공사에 선학원 이사 스님 및 분원장 스님들의 참석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선학원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재단과 종단과의 갈등은 종단이 재단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선학원을 장악하고자 〈법인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라며 "대중공사가 상생의 입장에서 선학원 문제를 다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재단이 시종일관 제안해 온 〈법인관리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참석 요청을 정중히 거절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선학원 이사회는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범행단 결성을 결의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상설화해 선학원 분원장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선학원은 지난 4월 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범행단을 발족한 데 이어 지역별 범행단 결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노덕현 기자

"태허 스님, 국난의 시기 민족 앞날 밝힌 분"

관음종, 개산조 태허 스님 평전 발행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지난해 맞은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개산조 일대기를 모은 평전과 그동안 관음종에 관련해 나온 논문들을 모은 모음집을 발간했다.

관음종은 2015년 10월 7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창종 5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이번 발간 자료에 대한 사료 편찬계획을 밝힌 바 있다.

평전 〈인생탈춤〉은 관음종 개산조 태허홍선 스님(1905~1979)의 일대기를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정리한 것이다.

태허 홍선 스님은 1905년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출생했으며, 1919년에 경성고등전문학교를 나온 후 한동안 나라를 빼앗긴 울분 속에 방황했다.

스님은 1928년부터 불교에 심취하다가, 1930년 선암사에서 조선불교 선교양종의 교정인 경운(擎雲)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때부터 4년간 경론과 참선 수행을 하면서 공부 했으나 그것으로는 미진하다는 생각에 1935년부터 소요산 백운암에 들어가 천일기도를 하였다.

1940년 서울 종로구 숭인동 낙산에 묘각사를 창건, 법화신앙의 근본도량을 마련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경북 상주 백화산으로 자리를 옮겨 백화암을 창건하고 6년간 수선했다. 그 후 서울로 돌아와 하루도 빠짐없이 탑골공원에 나가 일없이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2년여에 걸쳐 거리설법으로 장안에 삿갓도인으로 칭명되기도 했다.

이번 〈인생탈춤〉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소상히 드러난다. 이와함께 스님이 열망한 법화계 통합도 과제로 다룬다.

스님은 1957년에는 법화계통을 규합하여 일승불교현정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취임했으며, 1960년에는 '생일회'를 조직하였다. 1965년 12월 8일에는 대한불교 관음종(구 불입종)을 창종했다.





창종 50주년 기념논총도 발간

홍파 스님 "근현대사 자료 될 것"

법화사상의 포교와 관음종의 포교에 힘쓰던 스님은 1979년 6월 24일 세수 74세 법랍 50세로 묘각사에서 입적했다.

이와 함께 논문모음집 〈일대사인연 반세기와 미래〉는 16명의 불교계 저명학자가 관음종의 태동 배경과 현재와 미래를 학문적으로 고찰한 논문집이다.

참여 학자로는 신규탁, 이평래, 차차석, 고영섭 등이 있으며 '창종의 배경' '종단의 이념' '보살운동의 전개' '미래를 위한 제언' 등 4가지 대주제에 따라 4명씩 나눠 집필했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관음종은 지난 50여년간 한국사회의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인생탈춤'과 '일대사인연 반세기와 미래'는 구한말 대한제국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간화선의 진수, 세계 석학들과 나눈다

동국대, 제4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개최
6월 23~30일, 동국대와 인제 백담사서

세계 석학들과 함께 간화선의 진수를 논하는 대규모 법석이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와 동국대 국제선센터(센터장 수불)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8일에 걸쳐 동국대 서울캠퍼스 및 인제 백담사에서 '제4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2012년 제3회 대회에 이어 4년 만에 열려 간화선을 공부하는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화선, 마음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간화선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이 소개된다. 대회 기간 동안 △프랑스-선과 위빠사나(마틴 버첼러) △일본-대혜종고와 간화선(이시이 슈도) △미국-교리 실현으로써의 화두수행(지미 유) △중국-'간화선의 연원에 대한 고찰(서문명)' '본환장로의 간화선에 대한 평론(이사룡)' '지눌과 보우의 간화선에 대한 고찰(이해도)' △한국-'간화선과 천태지관(혜명스님)' '대혜종고의 전후제단에 관한 一考(형운 스님)' '마조도일과 간화선의 선법사상 비교(현견 스님)' '조선후기 산화선의 재해석(김성욱)' '〈서장〉과 〈선요〉를 통해본 간화선(황금연)' '참여불교의 길로써 화두에 대한 고찰(류제동)' '간화선, 마음을 밝히는 몸의 철학(원혜영)' 등의 글이 발표된다.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는 그동안 학술발표와 집중수행, 스님들과의 대담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는 학문과 실천수행, 점검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방식이다. 교학 혹은 수행이라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간화선 접근방법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견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이와 더불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간화선법과 수불 스님의 간화선법, 일본 임제종의 야스나가 소도 스님의 일본 간화선 수행법 등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동국대는 이 자리가 간화선 수행법의 요체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심도 있는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이론과 수행방법을 함께 탐구하는 실천적 학문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대회에 이어 국외학자 및 외국인 40여 명이 백담사에서 5박6일 일정으로 간화선 실참 수행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간화선 실참 후에는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한국 정통 간화선의 면모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종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학술발표와 간화선 실참, 선사 참문으로 이어지는 이번 대회는 간화선 이론의 교학적 연구는 물론 외국 수행자들에게 실제적인 간화선 수행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회 불평등 속 불교, 무엇을 해야하는가

불교사회硏, 6월 15일 '한국사회 불평등과 종교 역할' 세미나

청년실업, 빈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 종교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가 열린다.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이하 불사연)는 6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조강연은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한국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불평등 한국의 현황과 원인' 주제 발제가 진행되며,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 윤성식 고려대 교수 ·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불사연 측은 "'고용 없는 저성장'이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선진국 진입의 교두교로 삼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법회 감동 위해서는 그림 · 영상 활용해야"

백도수 교수 불광연구원 봉축학술연찬회서 주장

"그림과 스토리, 영상 만큼 대중이나 청자를 쉽게 이해시키는 수단은 없다. 기존 법어 위주의 설법에서 그림과 행위, 영상 등을 넘나드는 새로운 설법이 시도돼야 한다."

불광연구원이 6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감동적 법회를 위한 설법의 구성과 내용' 봉축 학술연찬회에서 새로운 설법방식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효과적 메시지 전달과 청중의 몰입을 위한 설법방법론'에서 "청자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청자의 문제가 아닌 화자의 문제"라며 "불교경전을 깊이 들여다보면 경전 글귀 뿐만 아니라 부처가 앉는 모습, 비구들이 기뻐하는 모습 등을 머릿속 그림으로 연상하게 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 등에서는 이를 활용해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미디어 자료 등으로 설법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 교수는 이어 "청중들의 설법 몰입을 위해 설법시 시선접촉이나, 표정, 외모, 몸짓에도 주의하고 개방형 질문으로 설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욱 한국스피치&리더십센터 원장은 "스님들도 설법을 위한 스피치 훈련을 해야 한다"며 "사회에서는 청중을 파악하고 스팟, 아이스브레이킹 등 다양한 기법으로 주의를 집중시킨다. 설법도 이런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는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가 '부처님의 설법 원리와 방법-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남수영 동국대 외래교수가 '대승경전에 나타난 설법의 내용과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의상대사 창건 관악사, 복원된다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전통사찰 관악사가 복원된다.

과천 연주암(주지 탄무)은 최근 보건불사를 진행해 과천시의회 추경 예산 편성을 비롯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불사계획에 따르면 관악사는 연면적 333.5㎡에 승방과 누각, 공양간 등 건물 4동을 갖출 예정이다.

관악사는 통일신라 초기인 677년 의상 대사가 창건했으며 조선 태조 이성계가 중창했다. 효령대군이 관악사를 지금의 연주암이 있는 자리로 위치를 옮겼다. 1994년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이어 2000년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2003년 경기도 기념물 제190호로 지정됐다. 2015년 5월 14일~9월 25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제2차 유적 발굴조사를 실시, 청동숟가락과 철제 방탄모 등 1446건이 출토됐으며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관악사 복원이 승인됐다.

관악사 복원공사에는 25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주암 측은 허가절차가 마무리되면 7월경 첫 삽을 뜨고 내년 10월 경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국화향 짙은 2호선 구의역…
"나무아미타불" 염불 소리만

6월 3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서 참혹하게 죽어간 19살 청년 김모 씨를 추모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혜등 · 법상 · 우담 · 고금 스님 등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은 슬프고도 단단한 염불소리로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스님들의 염불소리에 지나가는 행인들도 발길을 멈추고 국화 한 송이를 스크린도어 옆에 가만히 두었다. 박아름 기자

출가 동영상 공모전 대상 정은혜 씨 선정

취준생·PD 등 다양한 계층서 작품 58편 응모해 '문전성시'
15일 시사회 및 시상식 개최

출가 진흥을 위한 동영상 공모전 대상으로 정은혜 씨(데일리TV 사원)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출가'가 선정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3일 '출가 동영상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대상(상금 500만원)으로는 정은혜 씨(데일리TV 사원)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출가'가 이름을 올렸다. 정 씨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인간이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방법이 출가라는 것"을 보여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상금 300만원)에는 조동성 씨(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 이스트 PD)의 '출가'로 "출가수행자의 정신은 끝없는 이타행"을 주제로 담았다.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출가 동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정은혜 씨의 작품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출가'의 한 장면.

장려상(상금 100만원)에는 △팀 필르밍(공지혜, 유솔범, 김오륜)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여정, 출가' △진혜리 씨(취업준비생)의 '자유를 향한 날개짓, 출가' △이종민 씨(작곡가)의 '출가의 길'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수준 높은 15개 작품에 대해서는 가작(상금 20만원)으로 선정키로 했다.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진행한 '출가 동영상 공모전'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전문직 종사자, 현재 행자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58편의 작품을 응시해 눈길을 끌었다.

당선된 수상작들은 6월 15일 오전 11시 국제회의장에 시상식 및 시사회를 가지며, 추후 방송, 인터넷,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에 적극적으로 출가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폭 넓게 참가한 이번 출가동영상공모전이 '출가'라는 개념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김상규 감사위원, 신임 공불련 회장에

6월 4일, 대의원총회서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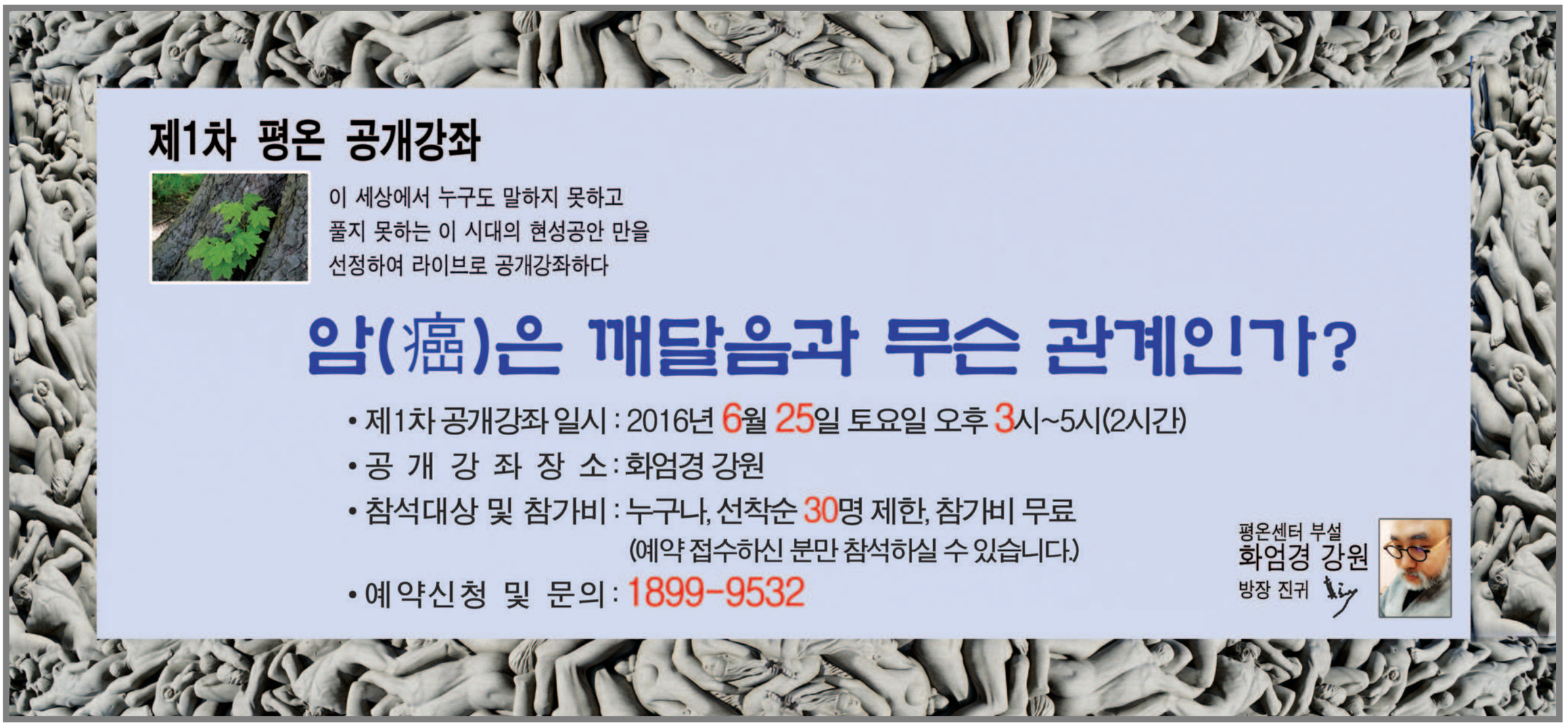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사진〉이 신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이하 공불련)에 선출됐다.

공불련은 6월 4일 보은 법주사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8~9대 김상인 회장 후임에 김상규 감사위원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본래 2년이지만 김상규 신임회장은 내년 10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공불련은 지난해 10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김상인 9대 회장이 그동안 회장직을 맡아왔다.

김상규 신임회장은 1961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마산고등학교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 재정업무관리관을 거쳐 2014년 제32대 조달청 청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지난 2월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회장은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윤호섭 기자



"경전 암송하며 오묘한 이치 발견하라"

Interview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

출가사문 위해 〈제경요제〉 출간
1천여 권 무료 보급 나서
한글번역 · 각주로 이해 도와



"〈제경요제〉란 의미는 제방의 경전 중 핵심 되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란 뜻입니다. 최소한 출가사문이라면 〈제경요제〉에 나오는 경전 정도는 외우고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또 공부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보시할 생각입니다."

〈발심수행장〉부터 〈화엄경 약찬게〉까지 23종의 제경 서문 한문 원문에 읽기 쉽게 해설과 각 주를 실어 한 권의 책으로 묶은 태고종 서울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은 출간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이 책의 제목은 〈제경요제〉다.

책에는 고봉화상의 〈선요서〉를 비롯해 함허 득통 스님이 쓴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서설〉, 청량산 대화엄사 징관 스님이 쓴 〈대방광불화엄경소서〉 등 경론에 붙인 스님들의 서문과 원각경 보안장, 법화경 보문품, 화엄경 보현행원품 등 주요 경전의 핵심 품, 그리고 발심수행장, 선가귀감, 신심명, 증도가 등 스님들의 빼어난 선시 작품들이 들어있다.

운경 스님은 6월 7일 백련사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모든 경전은 핵심이 되는 소위 사구게가 있다. 그와 같이 이 제경서문은 모든 경전과 모든 조사어록의 사구게에 해당한다. 특히 깨달음은 문자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고, 반드시 실참해 경계를 직접 체험해야 하지만, 그래도 문자로 가장 적절히 가르친 것들이 경서라 생각해 선학들의 번역을 참조해 틈틈이 한글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현토와 한글번역은 운경 스님이, 각주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붙여 놓아 한문에 익숙지 않은 후학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운경 스님은 "경전이 너무 좋아 처음에는 한문으로 된 〈제경요제〉를 만들어 나눠줬는데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말 해석도 넣고 토도 달아서 많은 사람이 읽으며 발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경전 핵심 내용을 조망한 짧은 서문만 봐도 핵심 내용 이해는 물론 신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운경 스님의 지론이다.

운경 스님은 마지막으로 "경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아주 오묘한 이치를 발견한다. 계속 읽고 외우다 보면 혼자서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 속에 이런 좋은 내용이 들어 있었구나 새삼 느끼게 된다"며 "한 가지 경전 읽는 팁을 소개하자면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 중얼 거리며 외우고 암송하라. 그러다보면 진리가 그 안에서 새록새록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이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경전 읽는 맛이다. 여러분도 〈제경요제〉를 통해 만끽해 보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경 스님은 1959년 서울 백련사서 박설호 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 했으며, 한국불교태고종 제2~6대 중앙종회의원을 거쳐, 1990년 태고종 종승연구원장, 1996년 백련사 35세 주지를 역임했고 현재는 회주로 있다. 1997년에는 정부로부터 신한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련사 (02)303-1770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지도교사 고충 해결에 앞장 설 터"

신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심산 스님



"현장에서 어린이 · 청소년포교에 땀 흘리고 있는 지도교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월 8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제37차 이사회의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 사진)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교사들과의 소통을 첫 과제로 꼽았다. 특히 (사)동련 이사장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다가갈 것을 다짐했다.

심산 스님은 "어린이들이 중 · 고등부를 거쳐 성인이 된다. 동련 이사장을 지내며 어린이들과 가까워진 경험을 살려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많은 지방도시에 파라미타가 구성돼 있는 만큼 지도교사를 위한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이 지도교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홍법사에서 어린이 재가안거를 실시하면서부터다. 심산 스님은 "절에서 아이들 재가안거와 가족 108배 도전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쳐왔는데 해당 지도교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다"며 "지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사기를 높이면 곧 청소년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심산 스님은 또 "역대 회장님들에 비하면 회장을 맡기에는 이르다고 느낀다. 그만큼 책임감이 크기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파워블로거 역량, 불교에 회향"

시집 〈페이지의 시 여행〉 펴낸 파워블로거 배선희 씨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많은 것을 보았지만 제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은 낙산사의 해수관음입니다. 한국의 미, 특히 불교의 미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를 썼습니다."

첫 시집 〈페이지의 시 여행〉을 펴낸 파워블로거 배선희 씨〈사진〉의 사연이 화제다. 배 씨는 동방불교대학 1기 출신으로 건봉사 불사에도 기여하는 등 독실한 불자다. 집안 식구들이 스님으로 출가한 인연도 남다르며, 1980~90년대 베스트셀러로 이름 높았던 정다운 스님과도 문학적 교우를 나누고 있다.

배 씨는 37년간 198개국을 여행하며 이를 블로그 '페이지의 여행'에 담았다. 네이버가 2013년 선정한 한국여행 분야 파워블로거로 배 씨의 블로그는 조회수 650만에 일 접속량이 8만 명을 상회한다. 블로거에서 시인이 된 것은 드문 일이다. 그는 어떻게 시집을 내게 됐을까.

배 씨는 "지난 5년여 동안 여행 블로거로 활동해오며 여행지에서의 인연과 느낀 심상을 바로바로 글로 옮겼다"며 "대부분의 글이 불교와 관련돼 있다. 시집을 접한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했다.

배 씨는 "해질 무렵 해수관음상에 걸린 구름의 모습이 마치 비천하는 날개옷과 같아 보였다"며 "수많은 여행 중에도 어떠한 사고도 없었다는 것에서 감사의 마음도 솟아났다"고 표현했다.

작은 출판사 대표도 맡고 있는 배 씨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불교계에 회향하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노덕현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00호(6월 8일자) 4면 일주문 중 '법화종 창종 60주년 기념법회'를 '70주년'으로 바로잡습니다.

"근본 찾아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정법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

④ 한양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이번 제4차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이웃종교인이다. 바로 민족종교계의 대표이자 갱정유도(更定儒道)의 도정(道正)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이번 순례는 한 회장의 법문을 들은 후 매주 정진하는 보광정사에서 철야 기도와 법회를 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5월 28일 도반들을 만나 민족종교협의회 본산인 겨레얼연수회관에 도착했다. 김재완 사무총장의 인솔로 3층 집무실에서 들어서니 갓과 망건을 쓰고 도포를 입고 수염을 기른 고향마을의 친근한 어르신 같은 한 회장이 잔잔한 미소로 맞이해 준다. 다음은 한 회장과 구도회 회원들의 법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수월 도반: 한국종교계와 세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한 회장: '여복거동궤자(與覆車同軌者)는 경(傾)하고 여망국동사자(與亡國同事者)는 멸(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덕에 기울어져가는 차에 함께 타고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고, 세상이 말세로 치닫는데 중생심으로 함께 따르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남이야 어찌되든 나와 가족,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의 목적달성만을 좇게 되면 결국 망하는 것이지요.

주역에 물극필반(物極必反,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함)이라 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수양을 위해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다. 반드시 원시반본(原始返本, 근원을 찾아 근본자리로 돌아감)해서 처음의 자기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형체를 깨닫는 수행이 불도수행인데 그동안 제가 만난 효봉, 경봉, 청담 스님은 등허리가 붙을 정도로 청빈하게 살며 수행해왔습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스님들을 비롯해 모든 종교인들은 그러한 수행과 청빈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리=석준 이남재 운영책임도반

이수덕 법사: 겨레얼을 살리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지요.

한 회장: 얼과 혼이 곧 정신인데 이를 현대화하면 역사와 문화, 이념입니다. 외세의 것을 우리 것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다시 상기시켜 우리 얼과 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동안 백일장, 전국 윷놀이 한마당을 열었고, 외국에 17개 지부서 각국 학생들을 불러들여 역사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복희씨 신화에 한문이 본래 우리글이라고 했습니다. 한문은 뜻글이고 한글은 말글입니다. 갱정유도는 매년 남원에서 강경대회(사서삼경 등 옛 서당에서 배우던 교재를 음절에 맞춰 외우는 대회), 서당문화진흥회 한시대회, 서화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정은용 대표도반: 민족종교에도 많은 종파가 있고 민족얼 살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장: 일제가 민족종교를 말살했지요. 대종교, 천도교 등 자생종교는 애국심이 강해서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1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일제는 이러한 교육활동을 막으려고 민족종교들을 사이비로 몰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이런 인식이 있어 정부가 민족종교를 사이비종교로 몰아 미신화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1985년 민족종교들의 협의체인 민족종교협의회를 창립하여 1991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동안 민족종교끼리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족의 얼을 되살리고 전통문화 보존, 국민의 윤리와 도덕성 함양 등 민족의 정신을 지켜냄은 물론 우리사회가 상생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법빠리사 5차 108 선지식 구도순례

일시 : 2016년 7월 9~10일
장소 : 지리산 상무주암
법문 : 현기 스님
문의 : 운영책임도반 이남재 거사 (010-5217-2878)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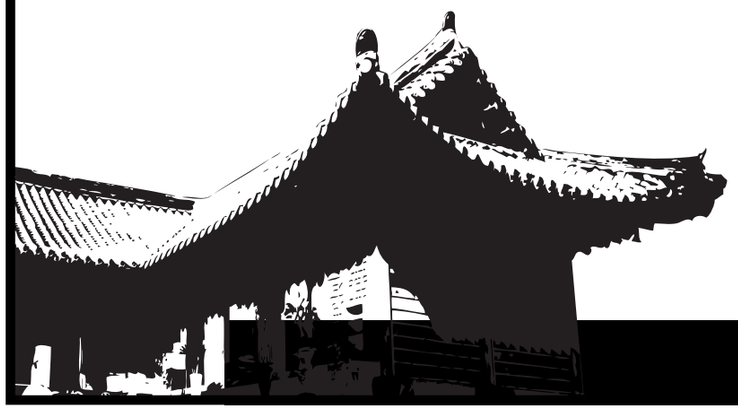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食’, 종교화합의 또다른 이름…
“이웃종교 이해하는 지름길”

종교음식전문가과정 수료한 불자 4인방



종교음식전문가과정 수료생들이 주먹을 불끈 쥐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임동아 · 홍정애 · 이미향 · 강혜진 불자.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모여 교리를 얘기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쉽지만 음식을 주제로 대화하면 유연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에 맞춰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불교계. 이런 교계상황에서 여러 종교음식을 바탕으로 이웃종교를 이해하고, 한국불자를 포함해 한국인에게 맞는 채식을 알리는 전문가들이 탄생했다.

바로 교육기업 백미인의 도제양성학교에서 ‘종교음식전문가과정’을 최초로 수료한 홍정애(58) · 이미향(46) · 강혜진(27) · 임동아(24) 불자다. 지난 3월부터 10주간 토 · 일요일마다 총 20회에 걸쳐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은 6월 4일 서울 방배동 오신채 없는 사찰음식전문점 ‘마지’에서 대중에게 최종발표를 한 뒤 수료증을 받았다. 그동안 강의는 김현진 마지 대표와 이춘필 백련사찰음식연구소장이 맡았다.

수료생들은 이날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음식의 변천과정과 더불어 채식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첫 주자로 나선 강혜진 씨는 ‘제국의 요리’를 주제로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를 유일신으로 믿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아케메네스왕조와 로마공화정 · 로마제국의 음식 변천과정을 톺았다.

강 씨는 “불로 정화한 정결한 음식이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다리우스왕 때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만 400여 명에 달했다”며 “이때부터 곡물은 가루로, 씨앗은 기름으로, 과일은 주스로 가공되기 시작해 병사들에게 쉽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제국 팽창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식 · 폭식 등을 금지하는 로마공화정의 절제가 교부철학자들에게 퍼졌지만 로마제국에 이르러 음식문화에 대한 사치가 급격하게 확대됐다”며 “제국이 멸망하고 다시 금욕과 절제를 중시하면서 종교음식이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이미향 씨는 ‘불교음식’을 주제로 불살생 사상과 지역별 불교음식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씨는 “제사를 위한 살생과 잔치를 금지하는 아쇼카칙령에 따라 육식을 멀리하는 불교음식문화가 널리 전파됐다”며 “특히 중국에서 불교는 먹으면 신선이 되지 못한다는 도교의 ‘오신채’에



6월 4일, 서울 방배동 사찰음식전문점 마지에서 열린 종교음식전문가과정 수료식.

불교 · 기독교 · 이슬람 음식 강의
10주간 20회 걸쳐 교육 이수
종교별 음식문화 이해 큰 도움
“올바른 먹거리 홍보에 주력”

서 연결고리를 찾아 토착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왕족 · 귀족 · 반가 음식이 혼합된 한국불교 △외세 침략이 적어 원형보존이 잘 된 일본불교 △습한 기후에 따른 부패를 막기 위해 향신료를 허용한 동남아불교 △척박한 환경으로 채식이 어려워 육식을 허용한 티베트불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씨는 “부처님께서는 걸식을 통해 민중의 현실을 이해했다. 하루 1명의 스님이 7명의 재가자 집을 돌며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며 “당시 풀에도 불성이 있다는 사상은 대승불교에 이르러 음식을 직접 해 먹기 시작하면서 풀에는 불성이 없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덧붙였다.

홍정애 씨는 ‘이슬람교음식’을 주제로 ‘할랄푸드(허용된 음식)’와 ‘하람푸드(금지된 음식)’를 소개하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동아 씨는 ‘기독교음식’을 주제로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인한 유대교와 기독교 요리의 차이 등을 발표했다.

수료생들의 발표가 끝난 뒤 김현진 마지 대표는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웃종교라고 외치면서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음식만으로도 이웃종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모든 종교의 이상향은 채식”이라고 강조했다.

수료생들은 최종발표와 함께 부지깽이밥 · 표고버섯탕수 · 단호박강정 · 사찰식 장김치 등 손수 만든 채식요리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수료식에 참석한 수료생 지인들은 그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꽃다발을 선물했다.



수료생들이 직접 만든 채식요리. 단호박강정과 애호박전 등 다양한 채식요리를 선보였다.

그렇다면 수료생들은 어떻게 종교음식전문가과정에 참여하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까? 평소 음식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밝힌 수료생들은 “이웃종교를 알아야 내 종교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종교인문학이 바탕 된 수업이기에 각자의 식견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이기도 한 홍 씨는 생명존중과 더불어 대중에게 바른 먹거리를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홍 씨는 “종교음식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분야를 공부한 만큼 전문가로서 사부대중을 위해 강의하고 싶다. 특히 불교와 부처님을 알릴 수 있는 일이면 더욱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씨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채식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 건강상 차이가 크다”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그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강 씨는 젊은이들이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강 씨는 “불교음식은 우리나라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에 다른 종교보다 한국인에게 더 잘 맞는 느낌이 든다”면서 “최근 역사와 거리가 멀어진 청년들에게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내 건강을 지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와 보육을 전공한 임 씨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임 씨는 “식료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먹거리 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잘 연계한다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음식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길에 대한 고민도 들지만 그만큼 기대된다”고 말했다.

짧은 인터뷰를 마친 이들은 힘차게 주먹을 불끈 쥐며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종교음식전문가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현재 2기 수강생 구성을 마친 상태다. 김현진 대표는 불교음식을 기반으로 한 종교음식전문가를 꾸준히 길러내는 게 목표다. 김 대표는 “불교음식은 모든 종교음식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종교의 사상과 학문 내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솜씨 좋은 채식을 만드는 게 아닌 제대로 된 종교음식의 정체성을 찾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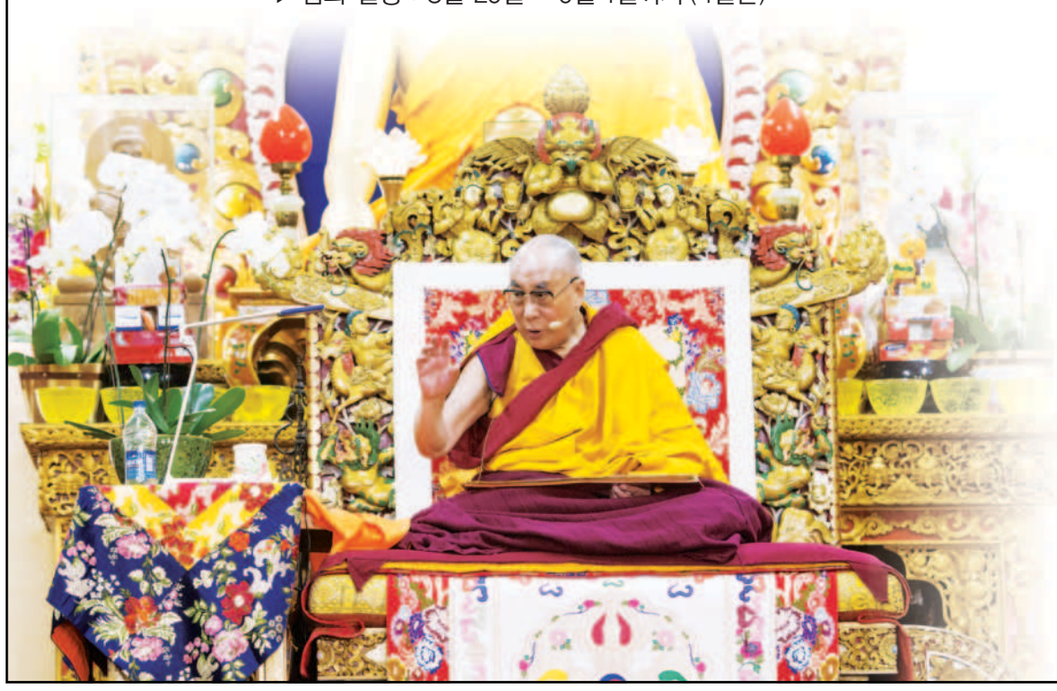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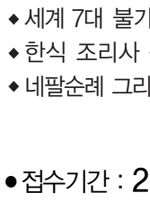
달라이라마 특별법회 & 네팔 성지순례

현지 국내 항공 4회 이용으로 품격있는 순례

성지순례일정 : 2016년 8월 26일(금) ~ 9월 7일(수) 〈13일〉

▶ 법회 일정 : 8월 29일 – 9월 1일까지 (4일간)





◆ 순례지도법사 – 성효스님
◆ 활동 사항
제 14, 15대 중앙종회의원
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역임
현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순례 포인트
◆ 달라이라마 존자님 특별법회 4일
◆ 현지 국내선 4회를 이용한 편안한 순례
◆ 세계 7대 불가사의 타지마할 관광
◆ 한식 조리사 동행하여 한식 제공
◆ 네팔순례 그리고 아름다운 설산 히말라야 산맥

● 접수기간 : 2016년 7월 29일 (금) 까지
● 구비서류 : 여권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사본, 사진 4매 (흰색배경 5×5cm)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 주 최 :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
● 주 관 :
● 안 내 : 불타 여행사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연수점수 인정

특별기획

출발확정 : 8월 18일 (목) ~ 8월 27일 (토) (10일)

러시아와 북유럽 3개국 탐방





문화와 예술이 있는 나라 러시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북유럽 3국

러시아(모스크바, 상뜨페테르 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불교 성지순례전문
불타 여행사 BUDDHA BOHEMIAN 02)733-9317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804호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일정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절에서 한문도 배우고 수행도 하고

미황사, 어린이 · 어른 맞춤 여름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우수운영사찰 중 하나인 해남 미황사가 여름을 맞아 어린이 · 어른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미황사(주지 금강)는 7월 24~31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7박8일 '미황사 한문학당'을 실시한다. 한문학당은 2000년부터 17년째 이어져오는 미황사 특화 템플스테이로 한문교육과 문화체험 · 산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한문과 생활지도를 스님들이 직접 맡아 불교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다.

한문학당 참가희망자는 미황사 홈페이지(www.mihwangsa.com)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아 '20년 후의 나의 모습' '부모의 자녀소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7월 16일까지, 선착순 45명을 선발한다. 동참금은 30만원.

성인을 대상으로 참나를 찾아가는 참선수행 '참사랑의 향기'는 7월 9~16일 동안 진행된다. 수행형 템플스테이에 걸맞은 참선과 다도, 묵언, 오후불식, 법문, 수행체계 및 지도 등이 이어진다. 참선과 수행지도는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과 수련원장 적멸 스님이 직접 실시한다.

참사랑의 향기 참가희망자 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중공양비는 50만원. (061)533-3521

윤호섭 기자

케냐에 '생명의 우물'을

공생회, 태양광 모터펌프 건립


케냐 카지아도주 올레로라 마을 아이들이 신설된 태양광 모터펌프 앞에서 웃어 보이고 있다.

케냐에 '생명의 우물' 태양광 모터펌프가 건립됐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NGO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5월 31일 케냐 카지아도주 올레로라 마을 태공초등학교에 태양광 모터펌프를 건립했다. 이에 1,400명 마을 주민들은 태양 판넬로 생산된 전기를 통해 시간당 1,500리터의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구촌공생회 측은 "펌프가 건립되기 전 마을주민과 아이들은 가축들이 사용하는 웅덩이 물을 마셔야 했고, 오염된 물로 인해 빈번한 수인성 질병에 노출돼 왔다"면서 "특히 이번 모터펌프 건립에는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850달러를 모아, 플라스틱 물탱크를 구입하는데 기여해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키파스(태공초 · 4년) 학생은 "이제 마음껏 물을 마시고 손과 얼굴을 씻을 수 있다"며 "동물과 함께 사용하는 저수지에 물을 뜨러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꿈만 같다"고 웃어보였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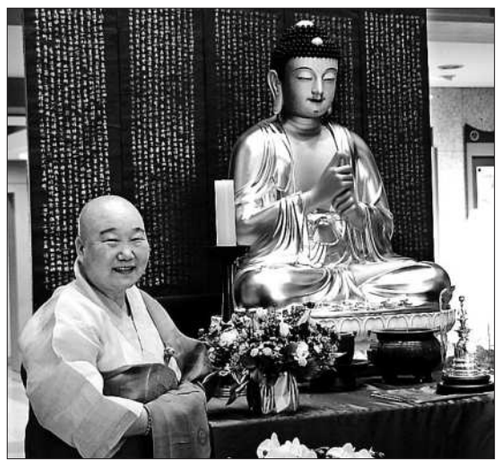
"새 옷이 참 예쁘구나!" 서울 길상사(주지 덕일)는 6월 5일 경내 설법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개금불사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에는 주지 덕일 스님과 사중스님들, 신도회 및 재가불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 가피로 '메마른 대지' 적시다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高 막바지 작업 '한창'


지난 5월 말을 기점으로 완공돼 9월 5일 공식 개교를 앞둔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전경.


광제사 경원 스님(사진)은 보리가람 학교에 모실 부처님 진신사리 3과 및 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불, 200여 점의 복장물을 기증했다.

5월 6개 교실 · 2동 기숙사 등 완공
기자재 마련 위해 후원 · 관심 당부
경원 스님, 불상 등 기증해 힘 보태
오는 9월 공식 개교… 전교생 120명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부처님 자비를 전하고자 2년 째 추진해 온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5월 말을 기점으로 교실 6개 및 기숙사 2동(남 · 녀 각 1동씩) 등 총 4만평 부지 학교를 완공, 학교 조경공사와 기자재 확보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하드웨어 격인 시설물 건축은 마무리됐다. 책걸상 · 컴퓨터 등 기자재를 확보하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남은 과제"라며 "학교 조경 비용부터 트랙터 및 기숙사 내부 시설물 구비까지 약 5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국 대형사찰에 모금함을 설치, 불자들에게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후원을 독려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12일엔 서울 봉은사에 '1호 모금함'을 설치한 바 있다.

아울러 광제사 경원 스님은 보리가람 학교에 모실 부처님 진신사리 3과(골사리 1과 · 육사리 1과 · 발사리 1과) 및 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불, 200여 점의 복장물을 기증해 순풍에 돛을 달았다. 경원 스님의 기증품은 6월 8~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전시되며, 14일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한 후 아프리카로 전해질 예정이다.

경원 스님의 이번 기증은 지난해 10월 신도들과 함께 〈화엄경〉 사경기도를 회향하는 고승유묵특별전 '유심전(唯心展)'서 먹색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뵌 것이 계기가 됐다. "일반 불상과 달리 옻칠을 해 먹색인 불상을 보니 '검은 대륙'의 아프리카 아이들이 자꾸 생각났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이후 스님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포교하겠단 원력을 세우고, 마침 탄자니아에 학교를 건립 중이던 아름다운동행에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다.

전시회 개막일인 8일 경원 스님은 "불교가 거의 전해지지 않은 아프리카에 인류의 스승인 부처님을 모실 수 있어 기쁘다"며 "탄자니아 아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는 9월 5일 공식 개교를 앞두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교생 120명(학년별 각 60명)만 모집, 장학금 및 기숙사를 전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한국불교 및 문화 등을 전파하기 위해 지난 5월 탄자니아 지부장에 임명된 진공 스님이 직접 나선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인도서 한국으로 불교가 전해져 한국문화가 융성했듯이 이제 우리가 한국불교를 아프리카에 전하고자 한다"며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과정을 통해 가난을 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 4월 지진피해를 입은 네팔 어난따링 게솔 지역에도 기술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건립 부지를 정부로부터 허가 받아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추후 착공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숭고한 희생 군포교로 보답"

군종교구, 6월 3일 현충원서 순직 군승묘역 참배

현직 군승들이 국토방위와 군포교 원력을 바탕으로 국가 · 불교발전에 헌신한 선배들의 영령을 추모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3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군복무 중 순직한 군승 故 김수남 중령과 故 이동신 대위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에는 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재경지역 군승 10여 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정우 스님은 "선배 군승들의 숭고한 희생이 대한민국 발전과 군포교 원력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며 순직 군승을 추모했다.

故 김수남 해군 중령은 1985년 12월 4일 근무 중 과로와 지병으로 수도병원에서, 故 이동신 육군 대위는 1984년 12월 6일 강원도 양구 전방 철책근무자 위문 후 복귀 중 차량 전복사고로 순직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현직군승들이 6월 3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순직군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대전지역 군승 10여 명은 대전 현충원에서 故 김일영 · 조시형 · 양석준 · 이승철 · 이치영 · 최웅호 · 권오성 군승의 묘역을 찾아 추모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천진불도 부처님 사랑해요"

청주 명장사, 제1회 와우백일장 · 사생대회

청원군 통합 이후 도농통합시로 거듭난 청주시의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명장사가 천진불들의 재능을 뽐내는 축제를 마련했다.

청주 명장사(주지 유정)는 6월 5일 경내에서 제1회 명장사 와우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주시를 비롯한 인근지역 어린이와 부모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백일장과 사생대회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서 천진불들은 경내 곳곳에서 자유롭게 작품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에게 사찰에 대한 친숙함을 전하기 위한 명장사의 배려다. 백일장은 '불교와 명장사', 사생대회는 '명장사 경내 모든 사물과 풍경'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사생대회에 참가한 유호정(나래초 5) 양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5명의 참가자들이 상을 받았다.


명장사 제1회 와우백일장에 참가한 어린이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명장사 주지 유정 스님은 "문화체험을 통해 아이들 정서와 인성을 발달시키고, 창의성과 독립성을 기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권위와 전통이 있는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고 상금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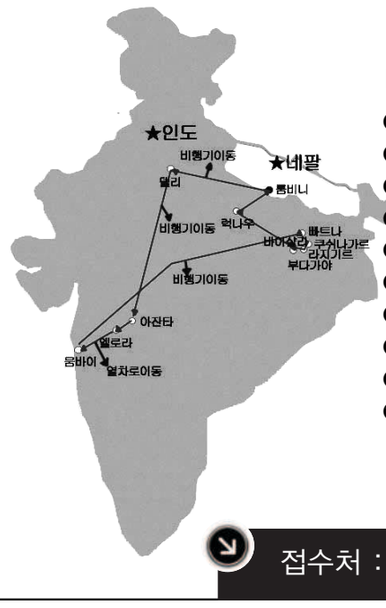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제108차 천룡사 신행기도회 동참 안내

2016년 12월 9일부터 ~ 21일까지 (13일 일정)

천룡사 신행기도회에서는 108번째로 맞이하는 신행기도를 부처님께서 탄생과 출가, 성도와 전법轉法, 열반涅槃에 드신 성지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108차 신행기도信行祈禱는 천룡사 주지 무등無等 스님과 함께 떠나며 인도印度 아잔타 석굴사원과 엘로라 동굴을 순례하는 거룩한 인연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천룡사 108차 신행기도회 부처님 나라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들은 종무실로 접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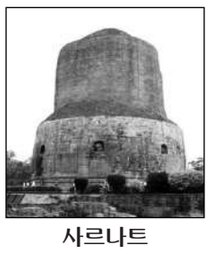
• 신행기도회 예상경로 •



▶성지순례지◀
❶ 룸비니(부처님의 탄생지)
❷ 부다가야(깨달음을 얻으신 곳)
❸ 사르나트(처음 설법하신 곳)
❹ 쿠쉬나가르(열반에 드신 곳)
❺ 라즈기르(왕사성)
❻ 스라바스티(기원정사)
❼ 바이샬리(마지막으로 설법하신 곳)
❽ 상카시아(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곳)
❾ 나란다(불교 최초의 학교)
❿ 피르라화 : 카필라 바스투(사키아)족의 도읍지로 예상

〈인도 국내선 비행기 3회 이용〉


룸비니동산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부다가야

접수처 : 천룡사 종무실 062)234-1338, 010-8932-1825

선무도 화랑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49회)에 함께 하세요.

불교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의 영어강의 등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입니다.

언 제 2016년 7월 24일~2016년 8월 20일
모집인원 60명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준비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수련회비 1주-35만원 / 2주-70만원 / 3주-90만원 / 4주-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예약·문의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토요일 11시에 합니다.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영어캠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 걷기 / 토함산 풍차마루 트래킹 / 벽화마을,주상절리길/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자아성찰 : 자비관 명상, 자자회, 자기바라보기

1500년 전통사찰 · 연간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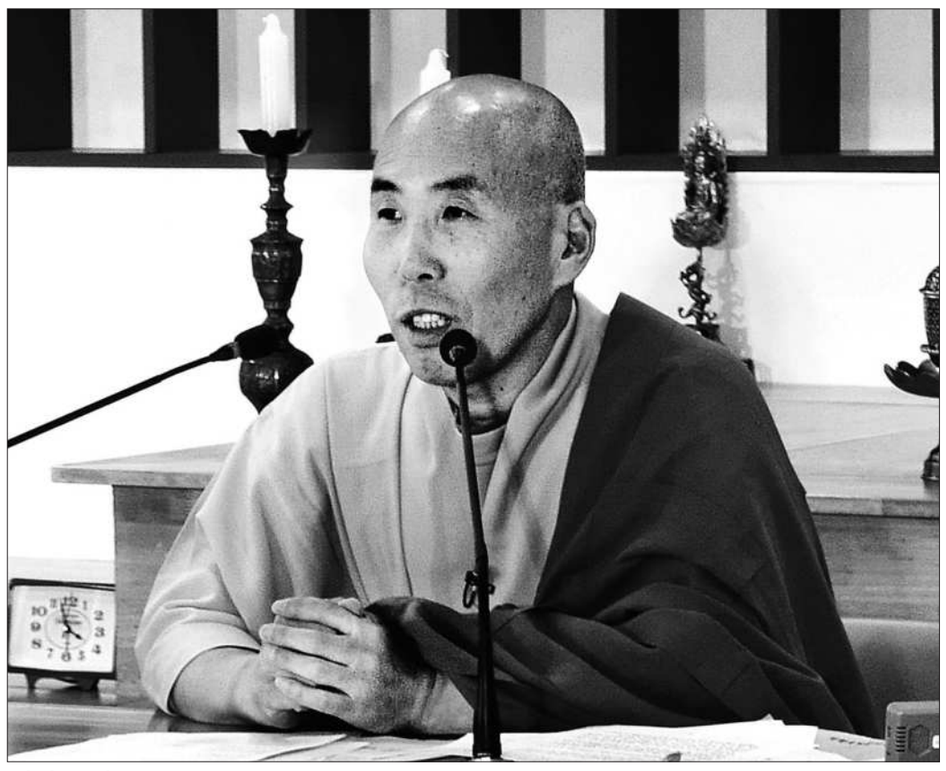
콧구멍 없는 소는 코뚜레가 없다

참불선원 불교인문학 강좌… '선의 세계(선시감상)'

수좌 정과 스님

선(禪)은 오묘한 진리를 단순히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불립문자'를 강조한다. 그럼에도 선사들은 격식을 벗어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적 사유를 시에 담곤 했다. 그런데 선시는 어려운 단어도 없건만 마치 선문답처럼 난해하게만 느껴진다. 수좌 정과 스님은 5월 9일 열린 참불선원 인문학 대강좌에서 '선시감상'을 주제로 강의했다. 스님은 "선시에 담긴 속박을 벗어나라는 의도를 헤아리면 이해가 쉽다"며 "진리를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위안이 필요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정과 스님은… 1985년 송광사로 입산 출가했다. 일각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봉암사 · 해인사 · 칠불사 ·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화두수행을 하고 있다.

특별한 뜻 쉬운 단어로 전해야

'선시'란 선사 스님들이 시의 형식을 빌려 쓴 짧은 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내용 대부분은 선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난해합니다. 더구나 선(禪) 세계는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도구를 거의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이 가장 많이 빌려 쓰는 도구가 언어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일반 민중이 쓰는 구어체나 속어가 아닌 성스러운 언어로 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도구로 빚어야 더 성스러워 보인다는 생각 그 자체가 유혹임을 알기에 부처님은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그릇에 담겼다고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특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스러움이나 특별함에 빠지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본론인 선시를 감상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뛰쳐나온 소/ 석씨네 약초밭을 망치는데/ 콧구멍이 없구나/ 삼세제불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네'

시에서 사용한 단어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장난기가 배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연필 가는대로 꾸밈없이 쓴 것 같습니다. 선시라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용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삼세제불'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 시를 스님이 썼는지도 모를 판입니다. 그래서 선시가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시 두 개를 예로 들어 먼저 알아볼까요.

'옳으니 그르니 상관 말고/ 산이건 물이건 그대로 두라/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세계라/ 흰 구름 걷히면 청산인 것을'

그 유명한 임제 스님의 시입니다. 이 시도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뛰어난 선사일수록 쉽게 얘기하는데, 왜 뒷사람들은 어렵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서쪽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죠? 표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서방정토'에 가고자 하는 것이 불자들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임제 스님이 여기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하필 거기만 극락세계라고 하느냐면서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흰 구름만 걷히면 여기가 바로 극락인데, 왜 먼 곳에다 극락을 설정해 놓고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 물은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산'이 우리의 참성품, 즉 '불성'을 뜻하는 것일 테고, '흰 구름'은 우리의 참성품을 가리는 숱한 '망념'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니 임제 스님이 시를 지은 의도가 바로 드러납니다. 망념만 없애면 불성이 스스로 드러나 그 자리에서 부처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망념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도 임제 스님이 바로 앞 구절에 드러내놨습니다. 옳으니 그르니 상관 말고 산이건 물이건 그대로 두라고요. 보고 들은 온갖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을 대어 맞지 않으면 숱한 망념들이 올라오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알아도 실천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알고 끊임없이 노력하다보면 서서히 변화는 일어나니까요.

마음이 멈춘 경지

선시는 비유, 상징, 반어, 파격법들이 종횡합니다. 시라는 형식 자체가 위와 같은 기법들을 즐겨 사용하지만 선시는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래 시를 보시죠.

'옛 부처 나기 전/ 뚜렷이 둥근 한 물건/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이 어찌 전하랴'

진주 스님이 지은 시입니다. '옛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투시기 전 과거칠불을 의미합니다. '뚜렷한 둥근 물건'은 명백하고, 모자라다든가 이지러짐이 없는 '참성품'을 뜻한다는 것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구절부터입니다.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이 어찌 전하랴'. 누가 봐도 이 구절은 무언가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진주 스님은 무엇을 부정하려는 걸까요? 쉽게 이 시를 풀어보면 '옛 부처님도 나기 이전의 아주 오래 전부터 의심할 수 없이, 분명히 존재해 온 참성품은 부처님이라도 알 수 없으며, 남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할 수 있었겠으며 가섭은 또 전해 받지도 못한 그것을 어찌 아난에게 전할 수 있었겠느냐'는 뜻입니다.

천하가 공인하는 전법의 계보를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하는 진주 스님 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정에 들었다'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정에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의 4단계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초선정이란 자기가 사라져 버리는 황홀경의 순간을 잠시 맛보는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선 '초선정이란 세간을 초월한 지복의 한 형태일 뿐 이보다 더 뛰어난 단계가 많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선정에 진입하면 초선정에서의 미세한 요동이 사라지고 마음이 흔들림 없는 바위와 같아집니다. 완벽한 고요함과 멈춤 속에서 삼매에 잠겨 마음의 모든 움직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버렸다면 저승사자도, 귀신도 최소 이선정 이상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성인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파격적 표현법 통해 전하는 선시
'속박' 벗어나란 의도 헤아리면
난해해도 어느 순간 깨닫게 돼
"진리 깨달으면 위안이 필요없다"

다시 진주 스님의 글을 읽으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말해, 전법 계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정의 경지에 들어섰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주 스님의 진정한 의도는 본래 우리 자체가 '참성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 중생들이 수많은 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닐까요.

끌려 다니지 않는 삶

워밍업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선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를 뛰쳐나온 소'에서 '우리'란 가축을 보호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울타리를 쳐 만들어놓은 공간을 일컫습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구속된 상태를 뜻합니다. 기분, 감정, 신념, 철학 등이 이끄는 대로 갇혀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갇혀 있는 상태로 보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일체의 분별, 망념, 호불호의 감정을 다 벗어버린 상태를 '우리를 뛰쳐나온 소'로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는 당연히 실제 소가 아닌, 구속에서 모두 벗어난 사람을 뜻하겠죠. 그런데 뛰쳐나온 소가 석씨네 약초밭을 망친답니다. 여기서 석씨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참 재미있죠? 위대한 성인을 '석씨' 쯤으로 말하다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약초를 재배한 적이 있나요? 부처님을 칭하는 명칭 중에 대의왕, 대약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방문으로, 8만4천 가지나 되는 약방문을 모아 놓은 것을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방문을 이 시에서는 약초밭이라고 합니다. 선가에서는 흔히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자주 합니다. 한 예로, 황벽 희운 스님은 말하길 '부처님 가르침은 우는 아이를 달래는 가짜 놀음과 같아서 울음이 그친 아이에게는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인들 어디 있겠느냐. 육조혜능께서 말씀하시길 내게 일체 마음이 없으니 일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호불호와 시시비비를 모두 없앤 사람이 '나에게 부처님은 필요치 않다'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모습을 '석씨네 약초밭을 망친다'고 표현한 겁니다.

'콧구멍이 없는 소'는 경허 스님의 일화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경허 스님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마을에 당도해 노상에 있으면서, 자신도 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경험을 하셨답니다. 결국 스님은 본인이 알고 있는 수많은 불교적 지식이 당면해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제어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충격에 수행승들과 일체 마주하지 않으신 채 용맹정진에 들어선지 70여일이 지난 뒤, 우연히 동자승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시주물 먹고도 방일하면 소가 된다는데 어쩌냐'는 말에 '소가 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된다'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 선시를 쉽게 풀어보면 '호불호, 시시비비, 분별, 욕망, 집착으로 인한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 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며 불법을 훼손하고 다니는데, 마음이 태산 같아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자유로워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림이 없네.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한 이 사람에게 제대로 깨달았구나하는 인가의 표시로 삼세의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교의나 신조가 주는 위안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부처와 중생을 아무 차이 없이 똑같이 봐야만 비로소 안락한 경지를 완벽히 이룬 것이다'는 원오 스님의 말씀처럼 깨달은 사람은 어느 것을 귀하다고 가지려 하지도, 천하다고 버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미 자기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두려워하거나 의존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는 이렇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삶이 왜 이리도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 고통이 해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없어지지 않는 7가지 재산을 쌓아 고통의 고리를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재산, 계행의 재산, 양심의 재산, 잘못함에 대한 두려움의 재산, 배우고 들은 재산, 관용심의 재산은 사라지지도 않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불교에서는 편의상 사람을 나누는 9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상중하 세 단계를 다시 각각 상중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숭고한 자식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님은 9번째 가장 아래 단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정성들여 새끼를 키우는 것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에 해당하는 '최상등근기'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고, 그렇게 살겠다는 원력을 세운 사람들이 속합니다. 현재 삶이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계라면 갖가지 고통스런 짐을 애써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릇된 사고방식들을 버리면 우리는 '콧구멍이 없는 소'처럼 그 어떤 것에도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바로 최상등근기가 되는 겁니다.

백발백중 백초귀장술 특강
창시자 백초스님 직강

1 역학을 배우고 상담 업을 시작하시려는 분! (꼭 필요함)
2 역학공부 안하고 신도가 물을 때 옳은 답변 쉽게 하고 싶으신 스님 분!
(조상 뽑기 쉬워서 천도재 집전 불사가 쉽습니다.)
3 영험하고 신통한, 남다른 상담을 하고 싶은 분!
4 신 받았는데 아무 것도 점사가 안 떠오르는 신제자 분들!

확실하고 & 신통한 비법 전수해드립니다. 적중률 95%

□ 백초귀장술 책 이외의 특수비법과 실전노하우 전수 위주로 3개월간 주 1회씩 진행됩니다. 강의 듣고 나면 바로 활용 가능함.
□ 한문 몰라도 되고, 역학 몰라도 쉽게 왜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1일 일십만원. 10만원 농협 302-4233-7099-41(김경석)

【서울 개강】 6월 19일 일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강의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50 유빌딩 301호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7번출구 3분거리 /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10분거리입니다.

【부산 개강】 6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강의 장소 : 부산 동구 중앙대로(부산역 광장 맞은편 엔제리너스 4층)

백초율력학당 연락처 010-3813-4443. 010-4233-7099
Cafe.naver.com / 백초율력학당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6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7월 1일 (금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전에 의지 말고 논서에 의지하라"

제프리 홉킨스 교수, 3일 동국대 경주캠 강연회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세미나도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6월 3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불교고전어 번역에 대하여'의 주제로 2016년도 전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프리 홉킨스(Jeffrey Hopkins) 미국 버지니아대 명예교수를 초청, '티벳경전의 번역(Translating Tibetan Scriptures)'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시작으로, △김준호(울산대) '명상관련 팔리어 용어 번역에 대한 몇 가지 시선' △심재관(상지대) '산스크리트 인도 의학서 유통과 번역의 문제들' △하유진(서강대) '불교 경전의 한역과 유통의 문제' △정성준(동국대) '티벳불전의 밀교 문헌 구조'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제프리 홉킨스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티벳대장경 번역에 있어 규정된 사전적 어휘만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적절한 유연성을 살려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번역하는 사람은 문장을 최대한 간단하게 쓰고, 사전에 의지하지 말고 논서에 의지하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은 지난 2009년에 설립됐으며 티벳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티벳어 한글 표기안, 티벳어 교재 발간 및 석학들의 특강, 국제학술대회 개최, 번역서 출간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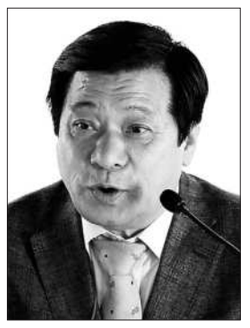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은 6월 3일 백주년기념관에서 '불교고전어 번역에 대해'를 주제로 전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대전, 근대적 신행위한 소의경전"

(재)선학원 · 보훈처, 8일 '만해 스님과 불교대전' 학술회의


양은용 교수


김상영 교수


전보삼 관장

〈불교대전〉은 만해 스님이 편찬한 현대적 불교 성전이다. 만해 스님은 불교 유신사상에 입각해서 불교의 전통을 현대의 상황에 맞추어 〈불교대전〉을 1914년에 편찬했다. 만해 스님의 〈불교대전〉의 사상과 의미를 짚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과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만해 한용운과 〈불교대전〉'을 주제로 6월 8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소재 정법사에서 '2016년 만해 한용운 추모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는 이날 주제발표 '만해 용운 선사 〈불교대전〉의 교의적 성격'에서 "〈불교대전〉은 한국에서 처음 편찬된 불교성전으로 근대 불교 개혁사조를 이끌어간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조선불교유신론〉이 불교 개혁사조의 실천이념을 밝힌 것이라면, 〈불교대전〉은 신행을 이끌어나갈 지침서"라며 "만해 스님은 변화된 시대에서 사부대중이 의지할 소의경전으로 〈불교대전〉을 편찬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불교대전〉이 일본 난조 분유(南條文雄), 마에다 에운(前田慧雲)이 편찬한 〈불교성전〉(1905)의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 두 성전을 비교하면 경전 인용 형식이나 국가, 사회, 박애, 계급, 위생 등 근대어를 목차로 삼고 있는 점 등에서 〈불교성전〉이 〈불교대전〉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교수는 "전 권을 불 · 법 · 승 삼보의 신행 체계 등으로 구성한 점 등 〈불교대전〉은 독자성이 확연하다"고 주장했다.

〈불교대전〉의 구성에 대해서는 "불 · 법 · 승 삼보신앙을 사회구제, 즉 포교로 연결시켰다"고 분석했다. 〈불교대전〉은 서품, 교리강령품, 불타품, 신앙품, 인연품, 자치품, 대치품, 포교품, 열반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경전 삼분과의(三分科儀)로 분류해 불교의 본질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체계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만해 스님이 포교품에 포교의 부족, 포교의 득과, 포교의 주의(主義)와 같이 소제목을 단 것을 통해서도 편찬 의도를 살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신론〉은 불교개혁 실천이념
〈불교대전〉, 신행 이끌 지침서
불교 혁신 관점서 경전 재구성
당시 日〈불교성전〉 뛰어 넘어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제발표 '〈불교대전〉의 자료적 성격과 간행 의의'에서 〈불교대전〉의 자료적 가치를 검토했다.

김 교수는 박포리, 마츠모토 신스케 등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불교대전〉은 1905년 일본 정토진종에서 발간한 〈불교성전〉과 매우 흡사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만해 스님은 〈불교성전〉의 체제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성전 편찬 작업에 전념해, 〈불교성전〉보다 1000여 개나 많은 경구를 갖춘 발전된 체계를 갖췄다"며, "중생의 지덕을 계발하기 위해 경 · 율 · 론 삼장을 초록하고 다시 그것을 유형별로 묶었다고 범례에서 밝힌 것이 〈불교대전〉이 〈불교성전〉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불교대전〉 제6 자치품과 제7 대치품에 인용된 경전 수가 전체의 59%인 1027개인 점에도 주목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 수행과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에 관한 내용들이 주류인 것으로 미루어 만해 스님은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현대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품과 대치품에 보다 많은 비중을 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문제가 있지만 〈불교대전〉은 한국불교사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보삼 만해기념관 관장은 기조강연 '〈불교대전〉에 나타난 만해사상'에서 "〈불교대전〉 구성과 내용을 통해 만해 스님의 철저한 불타정신 체험과 생활불교 실천을 통한 대중 구제의 대비원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관장은 "지금까지 다양한 불서가 전하고 있지만 불교교리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까지 이처럼 소상히 다루고 있는 책은 없다"며 "만해 스님은 〈불교대전〉을 통해 생활 속 불교 실상을 파악케 하고, 불교는 중생 속에 호흡되는 생활 철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상담에 효과적인 유식 · 명상은?

명상심리상담학회 18차 정기학술발표회

마음의 본체인 식(識)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음을 강조하는 유식은 '내가 있다'고 믿는 일반인들을 위한 상담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명상이 심리적 장애를 겪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인경)는 6월 25일 오후 1시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명상상담평생교육원에서 '유식심리학과 명상상담'이라는 주제로 제18차 정기학술발표회를 연다.

이번 발표회는 유식심리학과 명상을 상담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유식을 수행하는 스승들의 경지를 논하는 〈유가사지론〉을 바탕으로 하는 자애명상과 공황장애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명상상담사례 등을 다룬다.

특히 초기 · 남방불교에서 좋아하거나 원한 맺힌 사람 혹은 무관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애명상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가사지론〉 '성문지'에서 자애명상을 권정한 점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이날 △무아론에 기반하여 자아의식은 설명이 가능한가(명법 스님) △공황장애의 명상상담사례(박명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 △〈유가사지론〉 성문지의 자애명상(인경 스님) △〈유가사지론〉에 나타난 유가사와 작의수행의 관계(강명희 동국대 교수) 등의 글이 발표되며,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 총지명상센터장 동진 스님 · 문을식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 김재권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 등이 논평한다.

한편 자연치유연구소장이기도 한 인경 스님은 오는 16일 오후 1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대 호운미술관에서 '생리활성 성분분석과 에니어그램 성격분류'라는 주제로 '자연치유연구소 제1차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윤호섭 기자

"불상은 法을 표현… 무량한 보주 자체"

강우방 한국미술사연구원장 6월 3일 국박서 초청 강연

불상 · 불화엔 조형 언어 담겨
'영기문' 全세계에 공통 확인
보주는 삼천대천세계 압축해



"종교의 조형예술 가운데에는 현실에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에서 본 것에서 비슷한 사물로 비유해 설명하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납니다. 조형예술에는 '영화(靈化)'된 언어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야 불교 미술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사진〉은 6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보주 보관 사유상과 중궁사 사유상의 새로운 해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한 · 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전시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강 원장은 자신이 주창한 '영기화생론'으로 한국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 국보 주구사(中宮寺) 목조반가사유상을 해설했다.

한국의 반가사유상에 대해서는 보관에 주목했다. 보관을 채색분석한 강 원장은 "보관에서 영기싹이 나오고 보주가 발산된다. 금동반가사유상의 보관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보주(寶珠)들의 발산을 보여준다"면서 "우주생명을 품은 보살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구사 반가사유상에 대해서는 "머리의 상투 모양은 보주가 나온 것"이라면서 "발을 받치고 있는 것도 연꽃이 보주화해 화생한 것이며, 머리의 꼬인 모양도 영기문을 형상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이 강연 중 가장 강조한 것은 불상과 불화뿐만 아니라 조형 예술은 조형 언어로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영기와 보주의 발현은 불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강 원장은 "지금까지 사람들은 불상을 우상으로 보았다"면서 "불상은 법(法)이고 장인은 법을 보주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보주는 삼천대천세계를 압축한 것으로 그 안에 무량한 부처님이 계시고, 무량한 보주가 들어있고, 무한한 영기문이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규봉 종밀의 눈에 비친 唐代 선종은 어땠을까

한국선학회, 6월 24일 학술 세미나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은 오는 6월 24일 동국대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규봉종밀의 눈에 비친 당나라 선종의 판도'를 주제로 전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선(禪) '평가자'로서의 규봉종밀(신규탁 한국선학회장) △우두종에 보이는 제선가 공유상통의 선지-종밀의 입장에 대한 비판과 보안(박건주 전남대 강사) △정중종의 법계과 그 선사상(김진무 원광대 강사) △북종선의 심성론과 수증론 연구(중앙승가대 교수 지은 스님) △중당시기 홍주종의 교세 화산 과정과 그 역사적 배경(김한신 경남대 교수) △하택종의 전승과 선사상 검토-종밀 및 금석문 자료를 중심으로(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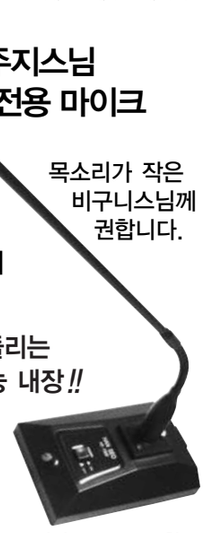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호국불교, 순국선열을 품에 안다

현충일 맞아 부산·경남 지역 추모재 줄이어

현충일을 맞아 부산 · 경남 지역서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경남 함안 달전사(주지 원명)는 6월 6일 경내서 6.25전쟁 격전지 전몰 군인과 경찰,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10회 순국선열 · 호국영령 위한 무차수륙대재'를 봉행했다. 국태민안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며 열린 이날 행사는 제례, 법요식, 화관무, 바라춤, 살풀이 등으로 진행됐다.

함안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가운데 하나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곳이다. 가장 치열한 전투지 중 하나로 꼽힌다.

주지 원명 스님은 "동족상잔의 뼈아픈 현장을 품고 있는 함안서 아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적군의 원혼도 위로한다"며 "구천을 떠도는 원혼의 몸을 벗고 구국의 수호신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수륙대재에는 주지 원명 스님, 차정섭 함안 군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리산 견불사(주지 보덕)는 '제19회 6 · 25군경 추모음악회'를 6월 6일 경내 특설무대서 개최했다.

견불사는 6 · 25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알려진 지리산 한 자락에 위치한다. 이에 견불사는 나라를 위해 지리산에서 전사한 7,300여 명 호국영령을 추모하고자 1997년부터 추모 법회 및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견불사는 "한국전쟁 당시 순국한 군인과 경찰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기릴 뿐 아니라, 전후 세대들에게 바람직한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음악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1부 추모제는 개회선언과 내빈소개, 추도사, 추념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으며, 2부 추모음악제에선 '그리운 금강산', '아름다운 강산', '아리랑' 등 10여 곡이 연주됐다. 무대에는 함양시골

낙동강 방어선 함안서 무차수륙대재

최대 격전지 지리산 견불사 19회째

추모재 외 추모음악회 등 '다채'

"호국영령 희생정신 잊지 말아야"

관현악단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더하고 있는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와 바리톤 강경원과 소프라노 성정하의 협연, 고운색소폰 앙상블, 초대가수 하명지 · 서정아 · 전부성 등이 함께 했다.

주지 보덕 스님은 "20여 년 전 지리산으로 들어올 당시, 전쟁으로 고통 받았던 영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 추모음악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한국전쟁이 치열히 전개되고 안타까운 희생이 많았던 지리산 지역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국의 달을 맞아 부산 경남 지역서는 연이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법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6월 6일 홍법사 경내 마당서 진행된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모습.

한편 행사에는 견불사 주지 보덕 스님, 벽송사 주지 원돈 스님, 임창호 군수, 박정극 동국대학교 전 학술부총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홍법사에서 '제26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한국전쟁 당시 미 해군 대령으로 참전한 리차드 헬퍼티와 그의 가족을 초대, 참전 의미와 순국 선열의 당시 모습을 전해 듣는 시간도 가졌다.

주지 심산 스님은 "홍법사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유지에 따라 26년 동안 호국영령을 위령하고, 불교 포교를 위해 힘쓰는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며 "호국의 숭고한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자신을 위해 살다 간 것이 아니다"며 "모든 생명과 조국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라며 순국 선열의 숭고한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이날 '2016 호국의 숨결 대회'도 열렸다. 대회에는 초 · 중 · 고생 2,000여명이 그림, 글짓기, 서예를 통해 나라사랑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해 26회를 맞은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에는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주지 심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경봉 스님 열반 33주기 추모 다례재

7월 1일 오전 10시 통도사 극락암



경봉문도회는 경봉 스님 열반 33주기 추모 다례재를 7월 1일 오전 10시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봉행한다. 사진은 작년 추모다례재 봉행 모습

경봉문도회(회장 법산)는 경봉 스님 열반 33주기 추모 다례재를 7월 1일 오전 10시 극락암 무량수각서 봉행한다. 매년 다례재에는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주지 영배 스님, 경봉문도회 회장 법산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해 경봉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고 있다.

1892년 출생해 16세에 통도사로 출가한 경봉(鏡峰)스님은 평생 화두를 참구하며 후학을 제접하고 대중을 지도했다. 스님은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원장(1932년), 통도사 주지(1935년, 1949년)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이사장(1941년) 등을 역임, 1953년 극락호국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경봉 스님은 1982년 7월 17일 문도들에게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 보거라"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세수 91세, 법납 75세.

저서로는 법어집 〈법해(法海)〉, 〈속법해(續法海)〉, 시조집 〈원광한화(圓光閒話)〉, 유묵집 〈선문묵일점(禪門墨一點)〉, 서간집 〈화중연화소식(火中蓮花消息)〉 등이 있다.

한편 다례재 후엔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대구 성불암, 라오스 스님들 초청법회

6월 5일 아마린 스님 등 법문



성불암 신도들이 라오스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며 기도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성불암(주지 옥당)은 6월 5일 동남아 스님 초청 '유니버설 부다랜드 창설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옥당 스님은 이날 아마린(Amarin) 스님 외 4명의 라오스 스님들을 초청, 성불암 지도법사 반야씨리(Panya siri) 스님과 다문화 가족 등 300여 명과 함께 법회를 진행했다.

반야씨리 스님은 "한국불교는 앞으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 모두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유니버설 부다랜드'를 창설했다"며 "앞으로 동남아권 스님들을 매달 초청해 법회를 열고, 불자들의 동남아 성지순례 기회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초청된 아마린 스님은 라오스 · 태국의 탁발, 공양 등 사찰풍습과 승려들의 생활을 소개했다. 아마린 스님은 "부처님 말씀은 편안하고 맑은 마음으로 들어야 스스로 맑아질 수 있다"며 "삼업을 짓지 않고, 오계를 잘 실천하며 많은 불자들이 소원성취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BBS, 제1회 부산문예창작마당

6월 18일 삼정더파크 동물원

BBS 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과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6월 18일 오전 10시~오후 2시 부산 삼정더파크 동물원서 '제1회 부산문예창작마당'을 개최한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부문은 글짓기(산문 · 시)와 그림 그리기, 사진촬영이다. 각 부문별로 부산광역시장상, 부산광역시의회의장상,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부산지방경찰청장상, 부산대학교총장상 등 모두 200명 입상자가 선정된다. BBS 부산불교방송 홈페이지와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카페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1,000명. 우천 시에는 6월 19일로 연기. 하성미 기자

"어르신들이 바로 저의 부모님이에요"

가야사, 6월 8일 '제10회 가야사 효도 큰 잔치'

부산 가야사(주지 정현)는 6월 8일 가야사 경내 마당 특설무대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잔치를 열었다.

가야사는 매년 지역 어르신을 초대해 점심공양 및 기념품을 베푸는 한편,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가야사 신도회 '관음회'와 '지장회', '다도회' 회원들은 함께 봉사하며 나눔행을 실천, 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올해 10회를 맞는 이날 효잔치에는 주지 정현 스님을 비롯해 (사)불국토 대표이사 범산 스님(영주암 주지)과 이사 법우 스님, 김진수 부산진구의회 의원과 지역 어르신 5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 가야사는 6월 8일 경내 마당 특설무대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 잔치를 열었다.

사물놀이패의 신명나는 공연으로 문을 연 효잔치는 중요무형문화재 이나경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와 그 제자들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밖에도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비 내리는 고모령', '울고 넘는 박달재' 등 노래 무대를 장식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주지 정현 스님은 "출가 후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한편에 있었는데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양 올림으로 효를 실천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오늘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공연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불국토 대표이사 범산 스님은 "이번 달은 보훈의 달이라고 한다. 나라에 충성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잔치에서 좋은 인연도 만나고 기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한편 가야사는 효 잔치뿐만 아니라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하기, 쌀 나눔 등을 진행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생명나눔 백일장… 대상 김도연 외

6월 7일 '제9회 백일장' 시상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제9회 시 · 산문 백일장' 시상식을 6월 7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개최했다.

지난 5월 22일에 개최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제9회 시 · 산문 백일장' 시상식이 6월 7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문화사랑방서 개최됐다. 대상은 △고등부 김도연(국제외고) · 손영민(장안제일고) △중등부 정지은(동주여중) · 김효민(해동중) 총 4명이 수상했다.

부본부장 지연 스님은 "백일장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행복을 찾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며 "수상한 모든 분들을 축하한다"며 격려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매년 시 · 산문 백일장을 열고,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며 장기기증과 난치병 환우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알리고 있다. 하성미 기자



“열린 공간서 문화 교류해요”

감성소통홀 만든 수안 스님
월 1회 무료 콘서트 열어



황도 12궁 중 하나인 천칭자리는 공명정대한 정의를 가늠하는 저울을 의미한다. 인간사에 빗대어 보면 무슨 일이든 극단적으로 달리는 일 없이, 삶의 균형을 맞춰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한데 광주에도 ‘천칭자리’가 있다. 이는 광주 불교계의 독특한 문화공간이다. ‘감성소통홀’을 표방하는 천칭자리는 시민들과 불교적 감성을 통해 문화를 전달하고 함께 소통하는 장소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운영자가 바로 노래하는 수안 스님〈사진〉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출가 전 전통목공예를 했던 경험을 살려 직접 실내인테리어를 맡아 60여석의 객석을 갖춘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천칭자리는 불교의 문화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음악과 예술 등을 포함하는 불교문화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안 스님은 백양사 포교국장을 역임한 포교전문가다. 법문 · 수행과 더불어 음악 · 문화를 통한 포교가 젊은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편임을 깨닫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첫 음반 ‘길을 떠나며’를 발매한 뒤 무대를 광주 도심으로 옮겨 노래하는 스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천칭자리에서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무료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맛있는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커피, 연차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좋은 노래,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스님의 콘서트에는 늘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일상을 노래하는 스님답게 노래와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공연은 대중의 호평을 받는다. 이외에도 천칭자리는 개관 이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야단법석이 됐다. 인문학강좌를 비롯해 북콘서트, 시낭송 모임, 통기타 동호회 활동, 공예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이곳을 거쳐 갔다.

수안 스님은 앞으로 지역 사찰 스님들과 함께 ‘우리 절, 우리 스님’을 주제로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각 사찰 스님들과 공개방송을 천칭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절, 우리 스님 이야기는 신도들에게 정말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죠. 향후에 스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소소하게 콘서트를 열고 싶습니다. 그 속에 곧 부처님 이야기가 담기는 것이니까요.”

도심문화포교당 역할을 하는 천칭자리. 수안 스님은 오늘도 새로운 공연을 위해 아이디어를 짜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님들 봉사원력 닿은 베트남 초등학교

전북 마하연승가회 봉사단체 ‘우리나눔’
창립 후 베트남 어린이 지원사업 나서

태고종 스님으로 구성된 모임
베트남 초교에 각종 물품 후원
자매결연 후 지속적 활동 약속
연탄나눔 등 국내 봉사 계획도



전북 마하연승가회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생활용품 및 학용품을 전달했다.

전북지역 태고종 스님들로 구성된 마하연승가회(회장 승천, 정읍 일광사 주지)가 나눔봉사단체 ‘우리나눔’을 결성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해외구호에 나섰다.

마하연승가회 우리나눔은 5월 18~22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구찌구 인근 탄텅호이 초등학교(교장 웬방썬)를 방문해 전교생 566명에게 한국서 가져간 청바지, 어린이 옷 등 생활용품 1000점과 소고 50개, 간식 등을 전달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140명을 선정해 책가방 140개, 노트 1400권, 연필 1400개, 지우개 280개, 삼각자 140세트 등 총 340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선물했다.

회장 승천 스님, 익산 대인사 지오 스님, 진안 마이산탑사 진성 스님,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 정읍 두승사 혜담 스님, 김제 성덕사 도홍 스님, 김제 용봉사 법전 스님, 김제 쌍용사 정수 스님, 임실 덕봉암 도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봉사단원들로 구성된 마하연승가회는 탄 텅호이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1대1 지속지원과 식수원 개발, 교실 건립 등 지속적인 구호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5월 18일 탄 텅호이 초등학교에서 열린 학용품 전달식에서 회장 승천 스님은 “한국에서 오신 스님들과 신도들을 성대히 환영해주신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웬방썬 교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해주신 마하연승가회 위원들과 원주 보살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스님은 이어 “이곳 초등학교를 들어서는 순간 해맑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기뻤다” 며 “어린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베트남에서 제일가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웬방썬 탄 텅호이 초등학교장은 “한국에서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서 학생들에게 직접 선물도 주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다니 뭐라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다”며 “지난 나쁜 과거는 청산하고 미래를 잘 설계하고 후원해주는 한국 태고종 스님들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기위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인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하연승가회는 봉사단체 ‘우리나눔’은 베트남 초등학교 후원사업 외에도 베트남전 전쟁 후유증 치유사업, 한국인 남자와 베트남 현지 여인사이에 태어난 어린이들인 라이 따이한 후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릴레이 연탄나눔, 자비의 쌀 나눔사업, 자비의 연료 나눔사업 등 국내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베트남, 서로 힘이 돼 주길”

참좋은우리절, 6월 9일
‘베트남 교민의날’ 열어



참좋은우리절 베트남 교민의날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인과 불자들이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양국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6월 9일 경내 큰법당에서 ‘재 전북 베트남 교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베트남 닥락성 팜응녹니 인민위원장(도지사급)과 이비어니어 성의회의장(도의장급)을 비롯한 한국 방문단과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교민, 불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베트남 교민의날 행사는 그동안 베트남 등 해외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 및 외국인노동자 등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회일 스님의 해외이주민 지원사업 일환으로 열리게 됐다.

양국 국가제창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홍현주 전북 베트남 원오도량회장의 환영사, 베트남 닥락성 인민위원장의 인사말, 한국 전통공연에 이어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음식으로 준비한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측 주요인사와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양국 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

응웬하이닝 부위원장은 “베트남 교민들을 위해 경제, 문화교류를에 앞장서고 있는 회일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께 감사드린다”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베트남 교민여러분들은 베트남의 전통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한국사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베트남 대표단의 전북 방문을 주선한 회일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며 “나아가 전라북도와 베트남 닥락성 간의 교류 · 협력 강화에 전북지역 거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등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베트남 대표단은 전라북도의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교육감, 전주시장을 예방하고 양 지방정부간의 경제, 문화 등의 협력방안을 모색한 뒤 전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소년생명평화단, 생명 · 평화 모내기

전북불교네트워크 부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은 6월 4일 ‘생명의 모를 심어 평화의 쌀을 키우자’는 주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농촌마을에서 생명평화 모내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불교네트워크에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명평화와 사랑의 실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이날 모내기 체험은 노동과 생명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손으로 직접 모를 심으며 힘든 노동을 몸소 체험하고 농부와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오종근 단장은 “손 모내기는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래와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준비했다”면서 “모내기 체험으로 농사를 해봤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농부님들의 수고로움을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모악산 걸으며 몸 · 마음 힐링

지월 스님과 함께하는 걷기명상



걷기명상이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걷기명상 행사가 열렸다.

6월 4일 금산사 포교국장 지월 스님은 ‘지월 스님과 함께하는 걷기명상’을 개최했다. 김제 귀신사에서 금산사에 이르는 약 4km 구간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60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귀신사를 출발해 뽕나무 아래에서 잠시 좌선에 들어보기도 하고 숲속 나무 그늘에서 뻐꾸기 울음소리를 마음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묵언패를 목에 걸고 3시간 남짓 걷는 동안 편백나무의 깊은 향내를 맡아보기도 하고 지월 스님으로부터 좌선과 명상에 대한 지도를 받고 명상을 체험했다.

지월 스님은 “모악산을 걸으면서 명상을 함께하면 마음을 열 수 있다. 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걷기명상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복숙 불자는 “스님께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라 하셔서 나름대로 발등을 보면서 걸어봤다”며 “다음에는 조금 더 성장한 마음을 바탕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 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수행은 자신을 활활 태운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㊷ 홍해아를 만나는 현장법사 일행



그림 · 최주현

오계국 국왕의 성대한 작별에 힘을 얻어 앞으로 앞으로!
일행 앞에 또 기막힌 경치에 험준한 산골이 나오네.
경치야 좋지만, 현장법사 지레 겁이 난다.
무슨 요괴가 또 나올까…
그런데 벌써 수상쩍은 기미….
산마루턱에 붉은 구름이 솟구친다.
손오공 개코, 아니 원숭이 코에 요괴 냄새가 전해온다.
비상, 비상! 손오공의 신호에 저팔계, 사오정, 재빨리 요괴 대응 수비 태세로 전환.
그 숙달된 자세에 현장법사 잡아먹으려 엿보던 요괴, "이거 쉽지 않겠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여기가 어드메더냐. 산 이름은 호산(號山). 요괴는 어릴 적 이름이 홍해아(紅孩兒), 커서는 성영대왕(成聖大王)이라고 부르는 요괴로다.
오래 수행하고 인삼과까지 먹은 현장법사 잡아먹어 불노장생 좀 해보렸더니 이렇게 방비가 튼튼하면 어쩌는가?
꾀를 낸다. 뻔한 꾀를 낸다. 산적한테 습격을 당하여 집안 어른 모두 죽은 가엾은 어린애로 분장을 하곤 나무에 매달려 살려달라 외쳐댄다.
자비심 넘치는 현장법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손오공을 시켜 업고 따라오게 한다. 손오공 요괴 냄새 맡는 데는 도가 텄다. 이놈의 요괴, 눈치 봐서 패대기쳐 죽이리라.
요괴 또한 눈치가 백단, 얼른 술법을 써서 빠져나가 눈을 뜰 수 없는 강풍을 불러일으키곤,
현장법사를 채서 달아나버린다.
놀란 일행들 우왕좌왕…손오공이 토지신과 산신령을 불러서 을러대어 요괴의 신상명세를 밝힌다.
기본 사항은 위에 말한 대로, 거기에 우마왕과 나찰녀의 아들이라는 추가사항까지….
그런데 우마왕과 손오공은 예전 요괴놀음할 때 손오공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
손오공 가슴을 탕탕 친다. 으흠, 형님의 아들이라니 내가 가기만 하면 해결되겠군!
과연 그럴까? 삼년동안 찾지 않으면 친척도 친척이 아니라는데….
"조카야! 내가 네 의숙부(義叔父)란다" 했다가 "이 못된 원숭이놈! 사기치지 말아라!"
호된 조롱만 당하고 결국 여의봉 뽑아들고 한바탕 드잡이질. 그런데 요괴 신통한 재주가 있네. 엄청난 불을 일으키는 불수레가 다섯 대. 거기다 코를 툭툭 두드리고는 입에서 엄청난 화염을 뿜어낸다.
이름하여 삼매진화(三昧眞火)라. 삼매의 힘에서 나온 진짜 정말 참된 불이라네. 저팔계 사오정은 말할 것도 없고 손오공도 숨이 콱 막혀 거의 질식사에 이른다.
네 바다의 용왕을 응원군으로 청하여 비를 퍼부어 보지만 신묘한 삼매의 불이로다.
용왕의 힘으로도 끌 수가 없다. 결국 어쩔 수가 없어 관세음보살님을 청하기로 하는데 중간에 일도 많다. 관세음보살로 분장한 홍해아에게 저팔계 잡히고 손오공이 홍해아 아빠 우마왕으로 분장하여 홍해아 놀려 먹고….
손오공이 관세음보살님 찾아 뵌다. 홍해아가 자신의 모습으로 변장하였었다는 데 발끈하신 관세음보살님. 정병(淨甁)에 세상 큰 물이란 물의 정수를 모조리 담고 탁탑천왕에게 천강도 36자루를 빌어서 신통력으로 연화좌로 꾸민다.
정병을 물을 쏟아 부어 삼매진화의 효력을 차단하고 손오공을 시켜 홍해아를 유인한다. 보살님 앞에까지 유인된 홍해아, 보살님에게까지 덤벼드는데 보살님은 얼른 하늘로 날아오르네. 멋진 연화좌만 덩그러니 남았구나.
보살 쫓아낸 기분이 한번 척 앉아서 폼을 내는데 보살님 주문 한마디에 연화대가 원래의 천강도로!
천강도에 꼬치 꿰인 요괴, 항복!
관세음보살님, "너 회개 했구나"하고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
손오공 머리에 씌웠던 부처님이 하사한 테두리 아직 남은 것 있네. 그놈 씌워서 완전히 굴복시키고 마정수계를 내리시곤, 새로운 이름을 내리신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선재동자라 하리라"
53선지식을 찾아뵌 선재동자가 여기서 탄생하였다네!
물론 서유기에서만…. 하핫.
요괴잡던 손오공 보살 쳐다보기가 한번 더 반복되지만 그래도 손오공 기분 좋다.
동지가 생겼거든, 머리에 금테 두른…주문 외우면

홍해아의 '삼매진화'는 수행의 과보
삼매는 선악 없이 이뤄내는 경지
수행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조여들어 대굴대굴 구르는…
기분 좋게 떠날 수 있어라! 앞으로 한동안 힘든줄도 모를것 같아라!

이제 이야기는 서유기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홍해아(紅孩兒) 등장의 대목입니다. 우선 이름부터 풀어 볼까요? 홍해아는 '붉은 아이'라는 뜻이네요. 물론 어릴 적 이름이지만요. 장성해서는 성영대왕(成聖大王)이라 하고요. 그 장기는 삼매진화(三昧眞火)네요. 이들 이름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우선 '붉은 아이'라는 어릴 적 이름은 바로 삼매진화라는 불의 색깔과 관계가 있지요. 그리고 성영대왕은 '원영(元嬰)을 이룬 대왕'이란 뜻이지요. 원영이 무엇이냐고요? 도교 수행의 한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도교 수행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해 드렸지요? 단로(丹爐)에 약재를 넣고 고아서 금단(金丹)을 만들어 먹던 금단술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었지요? 그래서 몸을 단로로 삼고, 몸에 있는 정혈(精血)을 약재로 삼아, 호흡으로 불때기를 하여 몸속에 금단을 만드는 수행이 기본이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러한 수련이 일정한 경지에 오르면 원신(元神)을 단련하여 원영(元嬰)을 이룰 수 있다고 하네요. 근원적인 기운을 정련하여 그것을 사람 모습을 한 어떤 정신적인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순수한 기의 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원영은 엄청난 공효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홍해아는 그런 금단대도를 닦아 일정한 경지를 성취한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지의 수행을 통해 얻은 신통력이 바로 삼매진화인 것이지요. 삼매란 무엇인가요? 불교의 수행을 요약하면 계, 정, 혜의 삼학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지요? 삼학 가운데 정(定)이 바로 삼매입니다. 범어로는 'Samadhi'인데 음역을 하여 삼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삼매진화라는 것은 '삼매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 참다운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어헛? 나칠계님, 힘차게 손을 드시네요. 무슨 의문이 있으신가요? 아, 네…. . 삼매라는 것이 불교 수행법인 삼학 가운데 하나이면 당연히 훌륭하고 착한 공부일 텐데, 어찌 홍해아같은 요괴가 그런 삼매의 힘을 쓰느냐구요? 흐흠…. 모처럼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에 몇 번 했던 것 같군요. 여러 번 이야기해도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받아들여주시는 나칠계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살짝 이야기할 수밖에요.

삼매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했었지요? 삼매는 쉽게 말하면 차분함과 집중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들뜨지 않고, 한군데 몰입하여 집중하는 것을 삼매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악을 가리지 않고 삼매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의 경지에 가면 절대적인 선을 지향할 때에만 온전한 삼매를 이룰 수가 있겠지요. 악한 지향을 지니고 있으면 온전하게 차분한 마음과 집중된 마음을 얻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절대적인 경지가 아닌 경우라면 여러 가지의 삼매가 다 있을 수 있고, 삼매를 통한 신통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쓰임을 보세요. 독서삼매, 연애삼매…기타등등 삼매…. 다 삼매라는 말을 붙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강한 몰입과 집중이 있으면 다 삼매라 할 수 있고, 그런 몰입과 집중은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힘을 신통력이라 한다는 말이지요. 나칠계님도 혹시 욕심나는 일에 한번 몰입을 해 보시지요. 신통을 얻으실지 모르잖아요? 이크, 정말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게 무언가 하실 것 같은 기세! 스톱! 위험! 경고! 자칫하면 엉뚱한 길로 빠져 신통은커녕 망신살만 뻗친다는 것을, 정중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각설하고. 그러니까 홍해아는 수행 단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샛길로 빠진, 그러면서도 큰 힘을 얻은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행 과정에는 그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일정한 수행을 통해 얻은 힘을 바탕으로 하는 요괴이기에 퇴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구요.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로 흥미진진한 요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에서도 보시겠지만, 정말 재미있는 내용도 많고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이렇게 슬쩍 광고를 때리고는…. 다음 시간에 뵙지요.



금강저 108염주

천수경·반야심경·관음정근·지장정근을 할 때 이제부터는
108백팔금강저염주를 돌리십시요!

일심으로 한알한알 돌릴 때마다 시방법계 부처님 법구의 무량한 힘으로
수행과 참회를 빛내 청정심이 되고, 전생부터 이생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소멸이 속히되어
망상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불법인연에 따라 해탈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 사찰에서 고통이 심한 신도님에게 천도재가 어려울 때, 발원기도용으로 사용하시면 소원성취가 속히 이루어짐으로 스님들께서 방토방편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며, 사찰불사용으로 적절합니다. 스님들께는 20% 할인해 드립니다.
- 백팔금강저염주를 소지하실 때 부처님 법단에 7일에서 21일간 올려놓으신 후 사용하시면 효험이 더욱 큽니다.

부처님의 제 1 법구인 금강저를 정심모아 108염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금강저 1개만 소지하여도 모든 만사의 화근을 물리치고, 악귀잡귀를 퇴치하여 삼재화, 삼재액을 퇴방한다 하였는데, 금번 금강저는 세계 최초로 금니 금강저108개를 모아 일개의 염주로 제작하여 상서로운 불법력을 강화시킨 장엄법구로서 큰 원력을 지닌 법구입니다. 사찰의 불법력과 스님의 신심원력을 한층 돋우게 하여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소지하면 알게 모르게 지은 전생업장 소멸이 되어 참된수행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성황리 사찰불사를 기원할때
- 자손득남 발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하기를 바랄때
-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때
- 사찰신도가 신심이 흩어져 줄어들었을때
- 새 사업을 개업할때
- 금전 재산이 모이질 않고 점점 줄어들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여 장사가 안되고 재수가 없을때
-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랄때
- 망상과 마구니로 인해 수행정진이 잘 안될때

전체길이 245cm / 제조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가격 32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 전화 : 010-4233-7099

차 맛은 인간의 마음과 같다

화가의 차문화 엿보기 ③



김 호 석
수묵화가

> 차의 맑고 맑음은
>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 이상이며,
> 삶의 지향점이다.





찻잎을 딴 직후의 모습(사진 위)과 덖은 후 출하 직전의 모습. 억센 찻잎을 은은한 향이 있는 차로 만드는 과정은 마치 마음을 닦는 수행과정과도 같다.

'나는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조선의 말과 글, 그리고 마음을 배웠다. 그것은 조선의 자연관과 우주관 그리고 윤리관 등을 익히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가장 조선적인 정신과, 사물에 내포된 생명의 느낌, 그리고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형상 너머의 공간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담(淡)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맑음은 동아시아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지금도 내가 연구해야 할 정신과 예술의 지향점이다.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맑음의 세계와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담(淡)이 얼마나 많은 정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고, 예술과 학문적 성취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느낀다.'

맑고 맑음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이다.

현실 사회가 혼탁하고 삶의 질이 낮을수록 맑음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특히 깨어있는 자유인에게 맑음은 삶의 지향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선비와 선승에게 맑음은 더욱 중요한 수양의 덕목이 되어왔다.

우리사회에서 맑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법정스님은 그 맑음을 무소유라 표현했다. 나는 맑은 것의 대표적인 것을 차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차가 그 성품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황차, 흑차, 보이차, 홍차 등이 있지만 한국의 차는 덖어 만든 작설차를 일반적으로 차라고 했다. 이 덖음 차는 다갈색의 맑은 빛을 가진 차이다.

이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면 우선 혀끝에서 맛을 느끼지만 결국 그 향이 머리로 올라가 정신을 맑게 해 준다. 이것이 차의 덕성 중 가장 귀한 것이라 생각한다. 차를 제다하는 방식에서 덖음이 아닌 발효로 하게 되면 몸에 이로움을 줄지 모르나 가장 정신을 맑게 해 주는 것이 한국의 덖음 차이다.

정신을 맑게 하면 무엇이 좋을까.

우선 정신이 맑으면 흐리고 탁한 것을 구분 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 혼탁하고 흐린 것이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맑음을 통해 혼란을 방지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가 있다. 맑음이 필요한 이유이다.

선비는 수신을 완성해 보국하고 공민을 위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군자의 도이다.

선승은 자기를 완성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해탈이 목표이다.

두 집단 모두 이상은 동일하다. 그것은 맑음을 토대로 이룩할 수 있다. 그만큼 맑음은 공부하는 사람의 이상적 가치이다.

그러나 현 시대는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식인이 드물다. 지식인은 역사 발전에 퇴행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소신과 시대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양인의 양심이다.

나는 녹차를 마시면서 차가 가지는 덕성과 그림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차나 그림이나 모두 지향하는 세계는 맑음이다. 그 점에서 차와 수묵화는 지향점이 유사하다. 맑음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지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검박을 실천한다. 검박은 최소한의 삶의 형태이다.

녹차가 맑다는 것은 티 없이 깨끗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맑음은 제 빛깔을 담담하게 드러내면서 본연의 가치를 선명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녹차를 우려내는데 뜨거운 물을 사용한다. 굳이 온도로 말하자면 약93 °c 정도이고 시간은 25초 전후다. 이렇게 뜨거운 물로 우려야만 녹차 특유의 생기가 되살아난다. 물론 생취가 압권이지만 고요 적조함도 함께 한다. 차는 섬세하다. 뜨거운 물을 통해 현현하여 자기를 표현한다. 녹차는 녹차다운 맛과 향을 가질 때 그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최고의 차 맛을 이야기 할 때 현묘하다고 말한다. 차에서 생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죽은 차이다. 그 맛은 느껴본 자만 안다.

녹차는 살아있다. 나는 하루를 녹차로부터 시작한다. 아침의 경우 딱 한번만 우려 마신다. 이렇게 한번만 우리는 이유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예술적 이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수묵화에서 한 번 붓질로 모든 것이 시작이자 끝인 경계를 추구하고자 노력해 왔다. 차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는 것에 만족하는 이유는 차가 지니는 정신의 가치를 존중해서이다. 담박이라는 최고의 맛을 구했으면 그 다음의 것은 구차하다. 수묵화도 마찬가지다.

녹차는 조화의 극단이다. 덖을 때 중화를 어떻게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한번 덖는 것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축약의 정신은 극단의 경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에 완전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감과 단호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는 어쩌면 녹차가 가지는 궁극의 정신일지 모른다. 그것은 칼날의 정신과 같이 더하지도 뺄 수도 없는 경지다. 더하면 칼날이 넘어가고 모자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그런 최상의 상태를 말이다.

녹차는 정신이다. 뜨거운 녹차 물이 입에 머물면서 먼저 입천장을 뜨겁게 자극하는데 이때 형언 할 수 없는 기운을 느낀다. 차에서 생명은 허브향이다. 차의 기운은 차를 입에 머금고 있을 때 환하고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은 희열이다. 그러면서 이 환하는 느낌이 바로 머리로 전달되어져 이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실감한다. 그것은 뜨거운 물을 마셨을 때와 전혀 다른 경험이다. 차는 결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녹차는 생성 변화한다. 뜨거운 찻물이 입천장과 혀의 돌기를 자극한 목을 타고 내려간다. 이때의 몸은 고아한 향기가 맴도는 생성과 변화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서 머리가 명징해 진다. 더불어 등줄기가 훈훈해 지면서 이내 땀이 맺힌다. 나는 이것을 인체의 순환 원리 중 독맥이 살아 숨쉬는 기(氣)의 흐름으로 이해했다.

녹차는 골기가 생명이다. 나는 한번 덖은 차와 여러 번 덖은 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명차라 거론되는 녹차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각각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번 덖어 완성한 차 맛이 궁금했다. 더욱이 이 차는 일탕법을 주장하고 있다. 혹 한번 덖었을 때 발생 할 약점을 숨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갔다.

그래서 먼저 여러 번 우려 맛을 보았다. 우리는 숫자가 증가 할수록 색과 향은 옅어 졌지만 야생의 살아있는 기운은 여전했고 동시에 부드러웠다. 뜨거운 물을 부어도 떫은맛이 지나치지 않은 것은 대단했다. 차 잎의 산지에 대한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덖고 건조하는 방식을 적용시켰을 때 가능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5번 이상 덖어 만든 차가 궁금했다. 여러 번 우려 마셔도 본래의 맛과 색을 잃지 않았다. 맛은 부드럽고 온화했다. 따라서 순화된 성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날 선 야생의 기운은 느끼기 어려웠고 뼈대 같은 골기가 없는 게 아쉬웠다. 특히 여러 번 덖은 차는 녹차 특유의 기세보다 가미된 것 같은 인공의 맛이 강했다. 녹차가 받아들이는 맛은 고소함이 아니라 떫고 쌉싸래한 맛이다.

녹차의 향은 고고하다. 차는 스스로 고매하다. 차는 모든 사물들과 잘 어울린다. 우유나 심지어 고기 요리에도 미각을 높이는데 일조한다. 그러면서 차향은 다른 향과 어울리지 못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다른 향이 침투해 섞이면 그 향과 바로 묻혀 버린다. 적당히 중간이 없이 섞이는 순간 본래의 맛을 잃어버린다. 이런 현상은 차향이 섞이기를 싫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하니까 바로 사라지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차향만은 혼자 있을 때 더욱 고고하고 은근하다.

나는 녹차의 특성과 덕목을 살펴보면서 먹과 물만으로 그리는 수묵화의 세계를 생각해 보았다.

수묵화는 검은 먹만으로 대상의 정신과 깊이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흑과 백, 이 두 가지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극단의 색이다. 이 절대성을 가진 두 극단을 넘나들며 한 붓에 그리는 그림이 수묵화이다. 수묵화 재료가 가지는 특성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요체만을 그릴 때 힘이 있다. 단순함은 상상력을 유발 시킨다. 해석의 폭이 넓으면서 현대성도 획득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묵화는 형상을 그리기도 하지만 비운 채로 놓아두는 여백을 중요한 조형어법으로 사용해 왔다. 여백은 물상 너머에 있는 무한세계를 생성시킨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성찰이다. 기다림이자 울림이다. 여백은 의도하지 않으면서 의도된 영원함이다. 그것이 바로 동양 회화 정신의 핵심이다. 말하지 않고 말하는 어법이다. 홍운탁월법이다.

좋은 차 맛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좋은 맛은 인간의 마음과 같다. 기계가 뛰어 넘을 수 없는 정신적 영역이 있다. 차는 만든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차라도 마실 때 마다 다르다. 이것은 마시는 사람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면서 덧붙이자면 예술 세계에서 지선은 장식성이 배제된 진실함에 있다. 순수함은 감동을 준다. 차에서 장식성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잡맛이 앞으로 돌출되거나 특정한 층위의 맛이 자신을 뽐내기 위해 드러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를 마실 때 마지막은 뜨거운 백차로 마무리한다. 차에 대해 또 다른 맛을 음미하는 순간이다. 백차를 마시는 이유는 단맛이나 쓴맛의 의미가 아니다. 다만 헤어짐이 아쉬워 백차 한잔을 끝으로 맑고 단맛의 여운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행위는 인생을 정리할 때 적으나마 자기가 일구어 놓은 재화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름다운 회향일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백차는 맑음을 오래도록 생각하게 하는 마지막 여운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바로보인 선가귀감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이 책은 매 소절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시송이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초발심자경문
예로부터 한문 문장의 흐름을 알아 제대로 그 뜻을 새기는 힘인 문리(文理)를 터득하기 위해 화엄경을 본 사람도 초발심자경문을 새로이 독송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발심자경문은 그 문장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구성이 치밀한 명문으로 꼽힙니다. 문리 터득에 도움을 주고자 이 초발심자경문은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한 것입니다. 또한 불도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사람의 체험을 통한 수행지침을 실어 놓았으니 신심과 발심을 더하는 살아 있는 수행지침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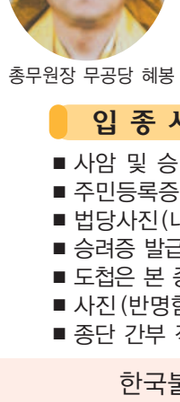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 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천 운 사 무령 합장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103-35
전화 043)881-1358,881-1359 / H·P 010-4496-6060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三唐詩人’ 중 문학적 역량 가장 뛰어나

〈최경창 · 백광훈 · 이달〉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㉓ 손곡 이달

손곡 이달(蓀谷 李達, 1539~1612)은 조선 중기 인물이다. 서출로 태어나 신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었던 시대 상황에서 나라의 동량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타고 났지만 자신의 역량을 펴지 못한 채 불운한 세월을 보냈다.

잠시 한이학관(漢吏學官)을 지냈던 인연도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모든 책을 섭렵해 글에 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다. 한때 뜻이 맞는 고죽 최경창(孤竹 崔慶昌, 1539~1583)과 옥봉 백광훈(玉峰 白光勳, 1537~1582) 등과 시사(詩社)를 결성, 서로의 의지를 공유하며 흡족한 시절을 보냈으며, 사찰을 유람하며 승려와 깊이 교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삶에 여유와 깊이를 확장한 것은 그가 읊조린 시를 통해서였다.

그렇다면 세상을 울렸던 그의 글재주는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그 여정을 따라가 보면 고려의 문사 이첨(李詹, 1345~1405)의 후손이었다는 점이 그가 문재를 갖게 된 태생적 바탕일 것이다. 아울러 정사룡(鄭士龍, 1491~1570)에게 나아가 두보(杜甫, 712~770)를 배우고 박순(朴淳, 1523~1589)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했던 학연(學緣)이나 당대(唐代)의 두보뿐 아니라 〈문선(文選)〉을 중시하여 당풍(唐風)과 유사한 시작(詩作)을 탁마하고 중당시기의 대표적인 시인 유장경(劉長卿, 725~786)이나 위응물(韋應物, 737~792)의 시풍에도 관심을 두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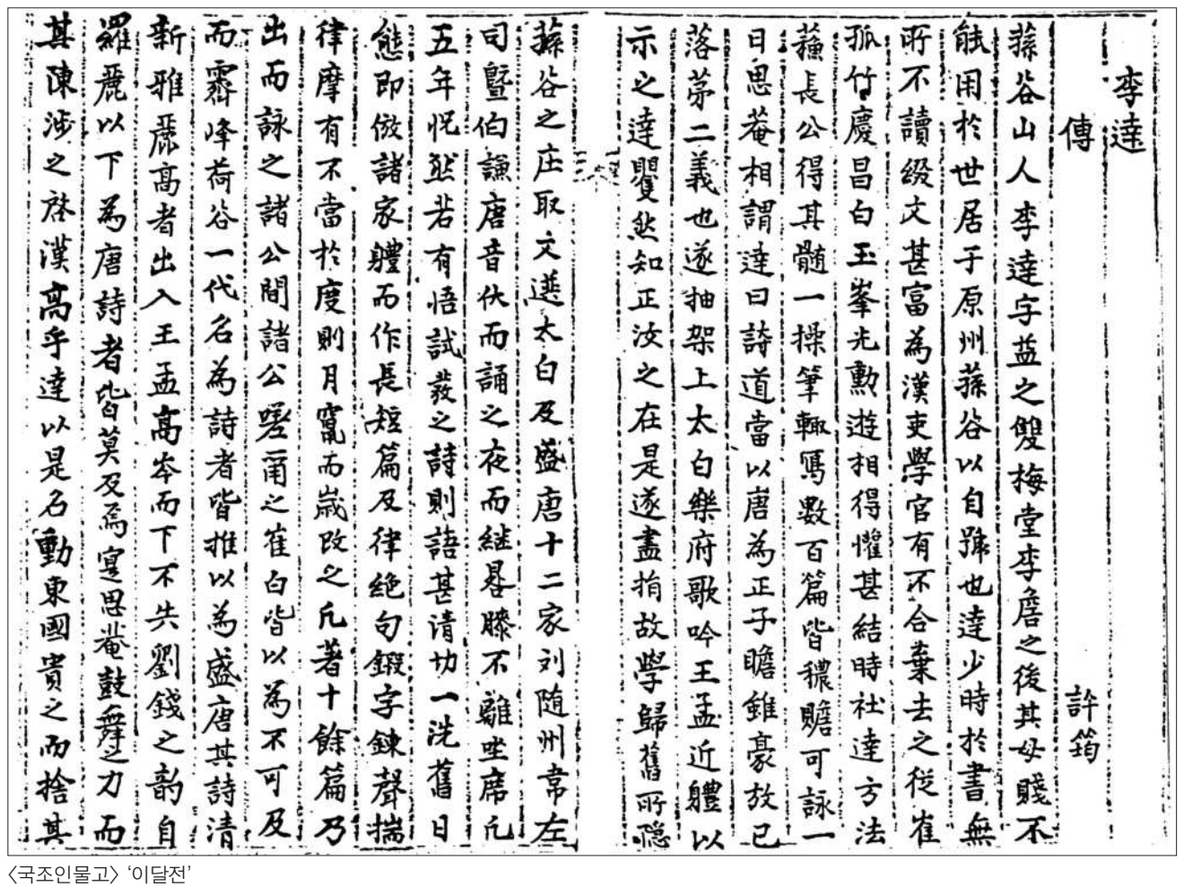
한편 그가 시에 출중했던 내력을 그의 제자 허균(許筠, 1569~1618)이 〈국조인물고〉 ‘이달전(李達傳)’에서 “바야흐로 소식을 본받아 그 정수(精髓)를 터득해 한번 붓을 잡으면 문득 수백 편을 썼는데, 모두 내용이 풍부하여 읊을 만하였다. 하루는 상공(相公) 사암(思菴) 박순(朴淳)이 이달에게 말하기를, ‘시도(詩道)는 마땅히 당(唐)나라 시대를 정통으로 본받아야 한다. 소자첨(蘇子瞻)이 비록 호방(豪放)하다고 하나 이미 낙제(落第)한 둘째이다’ 고 하면서 마침내 서가(書架)에서 이태백(李太白)의 〈악부가음(樂府歌吟)〉과 왕유(王維), 맹호연(孟浩然)의 근체시(近體詩)를 뽑아내어 보이자, 이달은 깜짝 놀라 정법(正法)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는 마침내 이전에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전에 은거했던 손곡의 별장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시에 대한 탁마의 열의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다. 또 허균은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과 하곡(荷谷) 허봉(許篈)은 일대(一代)에 시를 잘 짓는다는 명성이 있는 자인데, 모두 추장(推奬)하기를, “성당(盛唐)의 시처럼 청신(淸新) 아려(雅麗)하여 아주 잘된 것은 왕유(王維), 맹호연(孟浩然), 고적(高適), 잠삼(岑參)을 넘나들며 잘못된 것도 유우석(劉禹錫)이나 전기(錢起)의 시보다 못하지 않으며, 신라(新羅)와 고려(高麗)로부터 그 이후 당시(唐詩)를 한 자들도 모두 따르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일 그가 ‘삼당시인(三唐詩人)’ 중에 문학적 역량이 가장 뛰어났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한편 선(禪)과 도(道)를 추구하여 현실의 괴로움을 탈피하고자 했던 그는 유자(儒者)로서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실현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초탈하기 위해 시를 지었던 것은 아닐까. 이리저리 떠돌며 걸식했던 그의 삶은 비루한 듯하지만 그의 높은 이상을 꺾을 수는 없었다. 더구나 그의 시는 만인이 흠모하는 시격(詩格)을 이뤘으니 이는 하늘의 은택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비교적 많은 승려들과 교유하며 승려들의 시축에 시를 썼고 승려들과 화운한 시도 여러 수를 남겼는데 이는 그의 삶에 일단을 드러낸 단서이다. 그의 문집 〈손곡집(蓀谷集)〉에 의하면 죽두암(竹頭菴), 성불암(成佛庵), 불일암(佛日菴) 등을 유람했고 도천사(道泉寺)의 명월료(明月寮)에서 머물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그와 교유했던 승려로는 불일암의 인운(因雲) 스님을 비롯해 근(勤) 스님, 도의(道義) 스님, 연(衍) 스님, 성행(性行) 스님, 윤(允) 스님, 감(鑑) 스님 등이 있었다. 우선 승려들과 관련된 여러 편의 시 중에 〈감 스님에게 주다(贈鑑上人)〉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밤 중대에서(憶昔中臺夜)
상원의 종소리, 함께 듣던 때가
생각나네(同聞上院鐘)
이십년 동안이나 헤어지지 못했으니
(雛二十載)
서로 얼마나 깊은 우정 나눈
사이였던가(雲樹幾千重)
가을 산골 물에 발우를 씻고
(洗鉢臨秋澗)
등나무에 의지하여 해 저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네(攀藤度夕峯)



李達傳

蓀谷山人李達字益之嬪梅堂李庶之後其母賤不齒於世居于原州蓀谷以自號也達少時於書無所不讀級文甚富為漢吏學官有不合棄去之後崔孤竹慶昌白玉峯光勳遊相得懽甚結時社達方法藴長公得其髓一操筆輒寫數百篇皆穠贍可詠一日思菴相謂達曰詩道當以唐為正子瞻雖豪放已落第二義也遂抽架上太白樂府歌吟王孟近體以示之達覽未知正汝之在是遂盡捐故學歸舊所聞

蓀谷之庄取文選太白及盛唐十二家刘隨州韋左司暨伯諭唐音伏而誦之夜而五年悅若有悟試裁之詩則語甚清切一洗舊日態即倣諸家體而作長短篇及律絶句鍛字鍊聲揣律摩有不當於度則月竄而歲改之凡著十餘篇乃出而詠之諸公聞諸公嗟嘆而以壤璨餘為貴者如霽峰荷谷一代名為詩者皆推以為盛唐其詩清新雅麗高者出入王孟高岑而下不共劉錢之韵自羅麗以下為唐詩者皆莫及焉宜思菴鼓舞之力而捨其甚陳涉之胥漢高乎達以是名動東國實之而捨其

〈국조인물고〉 ‘이달전’

어렸을 때부터 책 섭렵
시에 대한 탁마 열의 커
성불암 · 불일암 유람하며
오랫동안 승려들과 교유

서로 만나 나이를 물었더니
(相逢問年歲)
각기 옛적 모습을 기이하게 여겼네
(各怪舊時容)

그가 말하는 감 승려가 어느 절에서 수행했던 수행자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달과의 교유는 이미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었던 듯하다. 그러기에 “이십년 동안이나 헤어지지 못했으니(雛二十載)/ 서로 얼마나 깊은 우정 나눈 사이였던가(雲樹幾千重)”라고 했으리라. 이 뿐 아니라 그가 한때 사찰에 머물며 감 승려와 깊이 정을 나눈 흔적은 “가을 산골 물에 발우를 씻고(洗鉢臨秋澗)/ 등나무에 의지하여 해 저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네(攀藤度夕峯)”라고 한 대목이다. 이뿐 아니라 윤 스님의 시축에 차운해 준 그의 시 〈윤 스님의 시축에 차운하다(次允上人軸)〉에서도 유불(儒佛)의 교유는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 내용은 이렇다.

나그네 머물며 상봉하던 곳
(逆旅相逢處)



손곡집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서리에 계수나무 가지가 시들었네
(淸霜凋桂枝)
일엽편주로 광릉에서 이별할 제
(扁舟廣陵別)
여러 해, 낙양을 기약했지
(數歲洛陽期)
동병에 맑은 산골 물을 길어다가
(秋澗銅甁汲)
새벽 재계하며 석발을 유지했네
(晨齋石鉢持)
함께 해상사를 찾아드니(同尋海上寺)
종소리 듣던 때가 생각나누나
(却憶聽鍾時)

이들 또한 오랜 교유가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일엽편주로 광릉에서 이별할 제(扁舟廣陵別)/ 여러 해, 낙양을 기약했지(數歲洛陽期)”라고 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함께 해상사라는 절을 찾아 유람할 때에 절에서 듣던 종소리가 가장 인상 깊었던가보다. 그들이 해상의 절에서 들었던 종소리는 해조음 같았던 듯하다. 혹자는 상원사의 종소리를 잊지 못한다고 한다. 겹겹이 퍼져 흐르는 상원사의 종소리, 해조음을 내며 퍼져 울릴 때 그 종소리는 천상의 소리로 범종(梵鐘)의 극치라 칭송한다. 따라서 이들이 들었던 해상사의 종소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진 최상의 범음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달의 시 중에 유독 “종소리를 듣던 때”를 회상하는 구절이 많은 연유를 짐작할 만하다. 또 다른 그의 시 〈산승이 송엽을 보내왔기에 사례하여(謝山僧惠松葉)〉라는 시에는 그가 도가에도 밝았던 인물임을 나타낸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다.

(솔잎을)따서 먹으며 신선의 비방을
증명했고(采服徵仙秘)
신령한 정신, 도방을 증험했네
(靈神驗道方)
홀로 겹겹이 높고 험한 곳 찾아가서
(獨尋層 碧)
늙은 가지 휘어잡아 푸른 송엽을 따네
(攀折老枝蒼)
돌방아 찧는 소리, 고요해지자
(雲 時靜)
맛있는 술 주머니, 곳곳에 향기를
보내네(霞囊贈處香)

오늘 한번 마셔보니(今朝試一吸)
온몸이 금빛이로다(五內發金光)

옛적에 솔잎을 장복하는 비방(秘方)은 선가의 비기(秘技)였지만 도 높은 수행자도 이 비방을 따르는 이가 많았다. 그러므로 “(솔잎을)따서 먹고 신선의 비방을 증명했고(采服徵仙秘)/ 신령한 정신, 도방을 증험했던(靈神驗道方)” 인물은 그와 교유했던 산승이었다. 그에게 솔잎을 보내온 승려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와 깊이 교유했던 승려는 “홀로 겹겹이 높고 험한 곳 찾아가서(獨尋層碧)/ 늙은 가지 휘어잡아 푸른 송엽을 땄을 것(攀折老枝蒼)”이다. 따라서 험준한 곳에서 딴 솔잎으로 만든 영약은 한번만 마셔도 “온몸에서 금빛(五內發金光)”을 발하는 묘약이었던 셈이다.

한편 그가 불일암(佛日庵)의 인운 스님에게 써준 시는 ‘시여화(詩如畵, 시가 곧 그림)’라는 격조를 드러낸 것으로 마치 위응물(韋應物)의 시를 안전(眼前)에서 보는 듯하다. 〈불일암 인운 스님에게 주다(佛日庵 贈因雲僧)〉는 다음과 같다.

산은 백운 속에 있는데(山在白雲中)
승려는 흰 구름, 쓸지 않네
(白雲僧不掃)
객이 와서 비로소 문을 여니
(客來門始開)
온 골짜기가 송화 가루라(萬壑松花老)

불일암은 구름 속에 있는 암자였다. 이곳의 수행자는 구름을 쓸지 않기에 고요한 선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런 시를 읊조린 이달은 세속의 속유(俗儒)와는 비교될 수 없었던 인물이었다. 그의 품색이 고상하지 못하고 세속의 예에도 밝지 않다는 당시의 평가도 있었던 듯한데 이는 그의 진면목을 헤아리지 못한 범인들의 잣대이다. 실제 그의 시어 속에 담긴 담담한 속내는 무변(無邊)의 웅지(雄志)를 품었던 사람임을 분명히 하였다.

“객이 와서 비로소 문을 여니(客來門始開)/ 온 골짜기가 송화 가루라(萬壑松花老)”던 불일암. 이런 수행의 환경을 닮은 인운 승려과 교유했던 이달의 안목은 세인과는 차별되는 눈을 가졌던 것이라 하겠다. 조선 중기 아름다운 유불의 종유(從遊)를 실천했던 이달의 자는 익지(益之)이다. 손곡(蓀谷) · 동리(東里) · 서담(西潭)이라는 호를 썼고 저술로는 〈손곡집(蓀谷集)〉을 남겼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
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 ~ 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제 5기
범음 범패 학당 모집
불교의식, 작법, 밸런스테크닉, 실전사주명리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범패의식 : 천도재 및 바라, 오공양작법, 실전강의, 각 사물 등
◆개강일시 : 2016년 6월 27일 오후 3시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 수강료 10만원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까지
◆문의처 : 010-5065-5690 / 범패원장 제봉 스님

밸런스테크닉
◆놀라운 10초 통증제어 (수기치유)
◆월1회 집중 특강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경력 : 30년 기공수련 / 월회비 : 10만원
◆연락처 : 010-6462-1859 (지도강사 : 선혜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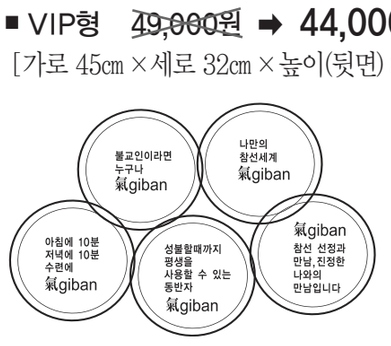
실전사주명리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3시까지
◆지도강사 : 진제스님 (경력 30년 상담 및 지도)
◆6월 27일 개강 / 연락처 010-8948-7948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수협 2층)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수기치유, 실전사주명리를 집중 지도합니다.
(사)영남범음범패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니까야서 길을 묻다 팔정도(八正道) ⑤

도덕적 완성 위한 사고체계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八正道)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내용은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한 말(語), 행위(業), 생계유지(命)이다. 이 셋은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하다'(正)는 말을 제외하면, 세상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우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대념처경〉의 설명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생략하고 핵심 내용을 들어보자.

"비구들이여, 거짓말, 이간질, 욕설을 하지 않고,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를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한 말'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성욕을 멀리하는 것을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한 행위'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부적절한 생계[수단]를 버리고 적절한 생계[수단]에 따라 생활을 꾸려가는 것을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한 생계유지'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불교사상가들은 이 세 가지를 '도덕적 완성을 지향하는 사고체계'(戒學)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공부라고 할 때 이 셋은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심축의 하나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문제다. 일상에서 구사하는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함'의 지향을 위해 멀리해야 하는 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나와 다른 이들에게 유익함을 가져오지 않는 성격이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곧,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욕설이나 비방(惡口), 꾸며낸 말(綺語)'을 하게 되는 의도가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불교적 가치에서 첫 번째 목표인 '유익함'을 해치게 되므로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하지 않다'는 부처의 진단인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행위의 문제다. 불교 용어로는 '업(業)'이다. '업(業)'은 '죄'와 동의어가 아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업은 '한 것'이니, '행위'를 지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인들은 그들의 전통적 사상체계에 바탕해 '행위'가 일회성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행위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자세하게 풀면, 하나의 행위가 발생하면 그것은 다음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써의 잠재된 힘을 내장하기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위에 개입되는 '의도'가 문제되며, 그 의도가 적절한가의 여부에 따라 '유익하지 않은 결과'(惡業)를 가져오거나, '유익한 결과'(善業)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있다. 어떤 행위가 유익한지 아닌지에 대해 그 결과를 가늠하지 못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음'(無記業)이라고 한다. 이때 한자어 '기(記)'는 기별(記別)의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업(業)은 '행위'로써 그 행위가 일어난 '의도와 경향성'을 문제 삼은 것이며, 그 행위로 결과가 다음의 행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살생, 도둑질, 음행(淫行)의 셋은 언어활동과 마찬가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함'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것이 부처의 생각인 것이다.



그림 · 나은영

세 번째는 생명체에게 필연이 되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생각이다. '목숨'(命)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나 아닌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다른 이의 유익을 해치지 않는 길의 모색에 해당한다. 앞에서 논의한 '계(戒)'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지점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반백년 인재 포교 매진한 대강백…

그대는 자비보살

명성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1952년 해인사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다섯 차례(3 · 4 · 5 · 8 · 9대) 역임했다. 1970년 운문사 강주로 운문사에 첫발을 내디딘 스님은 1977년부터 1998년까지 운문사 주지소임을 다섯 차례(8~12대) 겸임하면서 청도 운문사를 세계 최대 수준의 비구니 교육도량 대가람으로 일신시켰다. 2003년 전국비구니회 회장(8 · 9대)을 맡을 당시엔 비구니회를 탄탄한 조직으로도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존하는 비구니계의 최고 대강백으로 일컬어지며 〈불교학논문집〉〈구사론대강〉 등 다수의 논문과 번역서가 있다. 또한 서예로 대한민국 국전에 입선할 만큼 붓글씨 솜씨도 빼어나다.

청도 운문사는 신라 진흥왕대인 557년 한 신승(神僧)이 3년간 수도끝에 큰 깨달음을 얻은 뒤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집필을 시작한 곳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경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나이 500년 된 커다랗고 우아한 소나무(천연기념물 제180호)로, 가지가 축 처져 있어 땅에 닿을락말락한다. 400년이 넘은 은행나무도 있어 1400여 년 된 '천년 고찰'의 깊이를 더한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담벼락 돌 하나까지 손수 정성껏 가꾼 이가 바로 '비구니계 역사이자 대모'인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다. 운문사가 곧 명성 스님이요, 스님이 곧 운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명성 스님이 1977년부터 20여년 간 5차례에 걸쳐 주지를 맡으며 운문사를 현재와 같은 대가람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6월 1일 경내 스님의 주석처에 들어서자 다실에 걸려 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 온다. 명성 스님의 평소 가르침이자 좌우명이라 할 수 있는 '즉사이진(卽事而眞)'이다.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쓴 이 말은 성심으로 하지 않은 일은 진실될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일을 할 때 스스로 그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일이 바르고 잘 되지 않음은 물론이요, 또한 진실되지 않음은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즉 성심을 다해 진실되게 하는 일이야말로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다른 이에게도 감동을 주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이렇듯 명성 스님은 후학들에게 모든 일을 성실히 하고 진실되게 하라고 강조한다. 겉모양만 번드레해서는 그 실속 없음이 이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된 일은 하등의 이익을 자기나 남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이다.

명성 스님과 동석하자마자 여쭈었다. 법계 문학상 제정 취지에 대해서. 명성 스님은 "조계종이 가장 역점을 두는 3대 사업이 역경, 포교, 도제 양성입니다. 그런데 역경과 도제 양성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온 것 같은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포교 였습니다. 포교중에서 문서 포교는 다른 방법에 비해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라 생각해 제 호를 따서 법계 문학상을 제정한 것입니다. 특히 제 주변 지인들한테 불교문학이 침체됐다는 말을 듣고 문학상 제정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선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나중에 제가 없어도 후학들이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또한 앞으로 법계 문학상 상금 규모도 점차 늘릴 생각입니다."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거목인 명성 스님이 지난달 5월 불교계 신진 장편 작가 양성을 위해 기금을 출연해 문학상을 제정했다.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운문사를 전국 최대규모의 비구니 전문 교육도량으로 키운 명성 스님의 법호인 '법계'를 따서 만든 법계문학상은 한국문학의 발전과 불교 포교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명성 스님은 문학만큼 불교정신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고 판단해 문학상을 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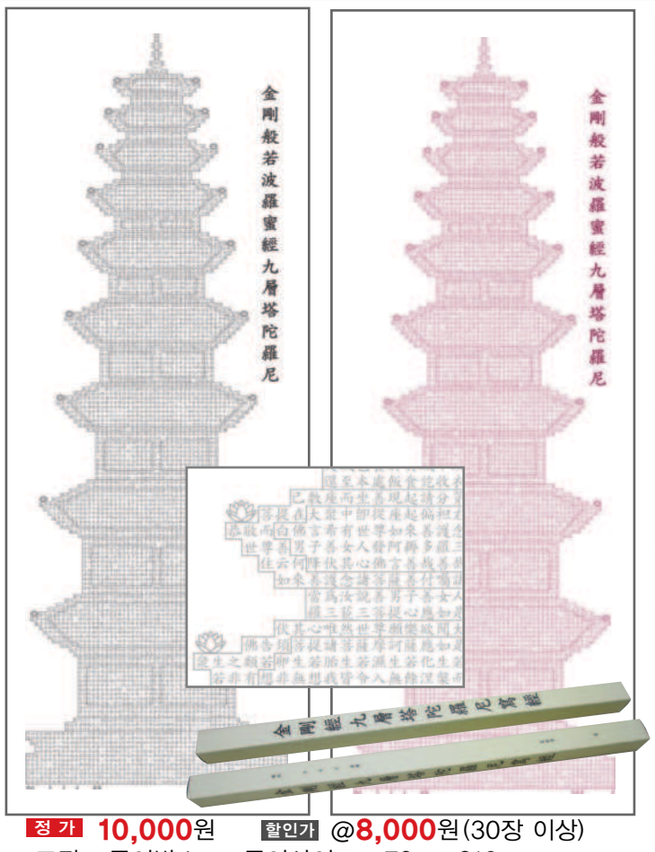
법계문학상은 기존 불교계 문학상들이 쉽게 다루지 못한 장편소설과 동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학상으로는 현대불교문학상과 유심작품상이 있지만 시 · 시조 · 학술 · 단편소설 · 평론 등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명성 스님은 말을 이었다. "불교계에 장편 작가들이 활동할만한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계문학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상이 역량 있는 작가를 길러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학상들이 더욱 힘을 받고 늘어나 인재를 양성하고 문서 포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명성 스님은 역시 호인 법계를 따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운문사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법계장학금은 명성 스님이 고희 논문 출판과 수행 생활 틈틈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지난 2003년 장학생 5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4회에 걸쳐 모두 93명의 스님과 불자학생에게 총 2억3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 3월 12일에도 운문사서 14회 법계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명성 스님은 이날 중앙승가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정각 스님을 비롯한 6명의 스님과 뉴욕주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하원씨 외 1명 등 8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전했다.

이외에도 명성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회장 당시 '법륜비구니 장학회'도 설립했다. 2006년 법련사서예전을 열어 얻은 수익금 5억원과 이사스님들이 기부한 2억원을 합해 총 7억원 규모의 '법륜비구니 장학회'를 2010년도에 설립했다. 해마다 5~6명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에게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런 선행을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명성 스님은 운문사를 넘어서 한국불교 비구니계에서 브랜드이자 정신적 지주이다. 이에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는

(특)대형금강경 9층 탑사경지 〈먹/적, 종이박스포함〉



정가 10,000원 할인가 @8,000원(30장 이상)
• 포장 : 종이박스 • 종이사이즈 : 76㎝×210㎝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70원 / @27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 · 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30,000원(100벌)
할인가 @270원 (1000벌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정 가 1,500원
할인가 1,300원 100개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051)515-8888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卽事而眞’으로 최선 다하라”

〈즉사이진〉



2010년 운문사 승가대학장시절 법문 출판기념회서 축하 케이크 절단을 하는 명성 스님.(왼쪽서 네 번째)



명성 스님은 국전에 입선할 만큼 붓글씨 솜씨도 빼어나다.



명성 스님이 법륜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앞줄 왼쪽서 세 번째가 명성 스님)

전국비구니회서 초대 원로의장에 추대
문서포교위해 올 5월 법계문학상 제정
2003년 법계 장학회 설립…총 93명 수여
2006년에는 법륜 비구니장학회도 창립

5월 3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회의를 열고 초대 원로의장에 단독으로 추천된 명성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현재 비구니계서 명성 스님만큼 큰 업적을 남긴 스님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추대한 것이다. 명성 스님은 “원로회의는 전국비구니회라는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전국비구니회가 불교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전통 계맥을 이어오는 한국 비구니계는 세계 여러 불교국가들로부터 신망과 부러움을 사고 있는 만큼 세계 제일의 비구니회가 되도록 후배들과 손잡고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올해로 세수 87세, 운문사 주석 47년을 맞은 명성 스님은 전통 학문과 현대 학문을 섭렵한 대강백이면서 한국 비구니계의 얼굴이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명성스님의 운문사 주석 40년을 기념해 제자들이 명성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책 3권을 출간해 봉정식(출판기념회)을 가지기도 했다. 출간된 책은 명성스님의 상좌 서광스님이 쓴 명성스님 평전 〈후박꽃향기〉, 명성스님의 법문을 모은 〈즉사이진(卽事而眞)-매사에 진실하라〉,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명성스님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꽃의 웃음처럼 새의 눈물처럼〉 등 3권이다. 명성스님이 동국대 교수직을 마다하고 운문사로 내려와 비구니교육에 투신한 이후 길러낸 제자는 2천여명이 넘는다. 사실상 우리나라 현재의 비구니 스님 상당수가 명성스님의 손길을 거친 셈이다. 23세에 ‘늦깎이’로 출가한 명성 스님은 여성이 초등학교를 나오기도 힘들 당시 명문인 강릉여고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이 엘리트 여성에게 발심 출가를 권유한 것은 대강백인 부친 영향이 컸다. “내가 이렇게 승려 노릇 하는 게 나쁘면 너한테 권하겠느냐”는 부친의 권유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가했다.

명성 스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출가 후에도 계속됐다. 서울 청룡사 강원 강사로 10여년간 후학을 지도한 후 동국대 교수직을 마다하고, 1970년 운문사로 내려와 강사를 시작했다. 1977년부터는 운문사 주지 겸 운문승가대 학장으로 재임하면서 후학 교육과 운문사 불사에 매진했다. 또한 스님은 2004년부터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 8대와 9대 회장을 맡았으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5차례 지내는 등 종단 일에도 참여하면서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을 끌어올리는데 힘썼다. 특히 비구니스님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민주적인 교수법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스님이 강조한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부처님의 행을 따라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행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불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명성 스님은 그 꼿꼿함으로 인해 마침내 일가를 이루었고, 전세계 비구니 수행승들의 사표가 됐을 것이다.

이같은 명성 스님의 노력과 열정으로 운문사 승가교육은 다른 강원(講院)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한국 불교 교육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스님은 경전뿐만 아니라 교양철학, 역사, 피아노와 서예까지 가르쳤다. “경(經)은 부처님 말씀이고, 선(禪)은 부처님 마음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화가도 있고 성악가도 있습니다.”

스님 말씀은 짧고 간결해 깊은 여운을 남긴다. “숫자에도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가 있듯이 우리 선 자리서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스승은 스승답게, 제자면 제자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요.”

명성 스님이 내전과 외전을 두루 겸비한 것도 이렇게 매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 비구니계의 큰 사표로서 2007년에는 조계종 사상 처음으로 열린 ‘비구니 법계 품서식’서 비구니 최고의 법계에 해당되는 ‘명사’에 품서돼 존경받는 큰 어른이 됐을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알려져 한국 비구니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명성 스님은 부산서 제정된 ‘일맥재단 사회봉사상’을 지난 2004년 수상했고, 2008년에는 운문사 승가대학과 중국 명문대인 칭화(淸華)대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이로써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칭화대 대학원에 우선적으로 입학이 허락되게 했다. 스님은 또한 19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종교지도자대회에 참석했으며 2001년엔 스리랑카 ‘Sasana Kirthi Sri’ 공로상을, 2008년 3월에는 태국 방콕서 UN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협회가 수여하는 ‘탁월한 불교여성상’을 받기도 했다.

명성 스님은 말한다. “절에 와서 수행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수행 도량입니다. 가정, 직장이 다 수행하는 장소지요. 유마경에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곳이 도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일곱 가지 보석을 갖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즉사이진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정진합시다.”

청도 운문사=김주일 기자

전법일기

넌 감동이었어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전 · 의경 중에는 전역 이후에도 꼬박꼬박 문안 전화를 하고, 부처님오신날마다 특별한 영가등을 올리는 인연이 있다. 바로 ‘성우’라는 이름의 젊은이다. 이름처럼 굵직한 목소리가 제법 잘 어울리는 이 친구는 청도에 살며 현재 구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몇 년 전, 성우가 경찰병원 5층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의 이야기다. 전경으로 근무하다 시위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그였다.

“스님! 안녕하십니꺼! 여기도 법당이 있습니꺼?”

경상도에서 나고 자란 나의 귀에 퍽 익은 사투리가 들렸다. 성우와의 첫 대면이었다. 씩씩한 목소리로 처음 보는 스님에게 법당 위치를 묻는 모습이 기특해 첫 만남부터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친구였다.

“우리 어머님이 절에 다니십니더.”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데 자신도 부처님이 좋아 불자가 됐다고 스스럼없이 밝힌 성우. 성우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늘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세로 지냈기에 병원 식구들은 항상 그를 칭찬했다. 그래서 성우가 다녀간 자리에는 늘 훈훈함이 남아있었다.

특히 한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던 간병인 보살님은 싹싹한 성우를 마치 친자식처럼 챙겨줬다. 보살님은 성우가 수술을 마치고 병실을 옮겨 누워있을 때도 찾아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정성을 베풀었다. 심지어 수술을 받고 몸이 불편한 성우를 위해 목욕할 때 등을 밀어줄 정도로 극진하게 보살폈다. 어쩌면 보살님 슬하에 자식이 없었기에 성우에게 더욱 정이 갔으리라. 성우도 그런 보살님의 정성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덕분에 성우는 무사히 재활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퇴원 후에도 나와 간병인 보살님에게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다. 보살님은 성우와 전화 통화를 한 날이면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이 무리하게 간병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급성뇌출혈이 원인이었고, 이로 인해 보살님은 세상을 떠났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성우 역시 몹시 마음 아파했다. 얼마 뒤 법당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성우였다.

“스님! 부처님오신날 영가등 하나 달고 싶습니더. 순금 아줌마 좋은 곳에 태어나실 수 있게 등 하나 밝혀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성우의 등불공양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난한 여인 난타가 부처님을 위해 머리카락을 팔아 등을 밝혔듯이 성우의 변함없는 정성에 간병인 보살님은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셨으리라.

또 어느 날은 내가 머무는 선원에 성우가 찾아왔다. 마침 밭에서 밭갈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스님, 이런 일은 남자가 해야 됩니더!”

두 팔을 걷어붙인 성우는 나를 도와 함께 밭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루하지 않도록 시종일관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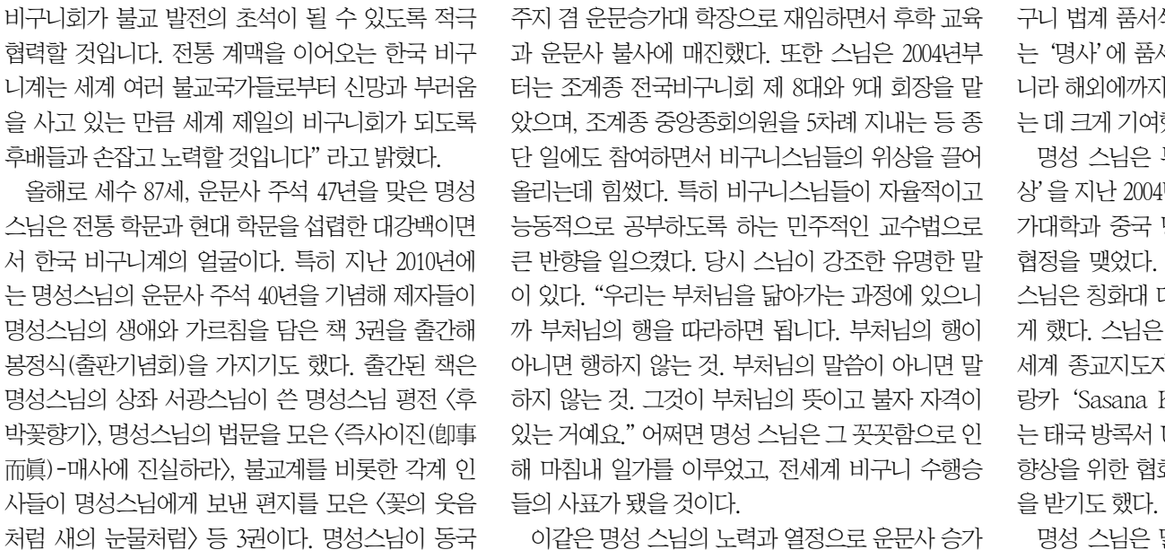
몇 달 전, 성우의 부친이 경운기를 몰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성우는 사고 얼마 전 불길한 꿈을 꿨다며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며칠간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행히 성우의 부친은 지극한 아들의 정성 덕분에 빠르게 회복해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고 한다.

성우는 마음 쓰는 것이 부처님을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성우의 마음씨에 지인들은 항상 감동을 느끼곤 했다. 요즘 들어 성우의 마음 씀씀이가 생각나는 건 팍팍한 삶에 지친 젊은이들의 모습이 가엾기 때문이다. 주위를 맑히는 성우 같은 친구들이 조금 더 늘어나길 바라며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무관 스님(서울 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그림 ·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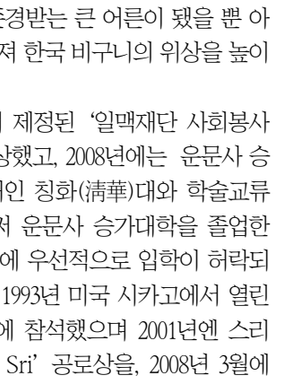
면 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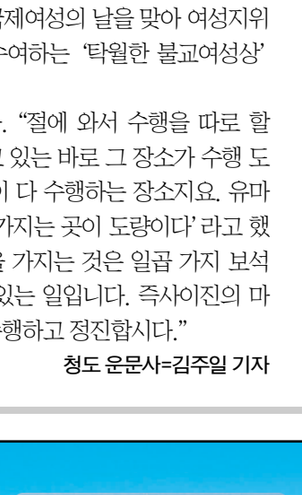
2015 불교국제박람회 ‘입선’ 수미단,닫집,법상,경탁 외 법당장엄 일체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1-276-5251 / 010-6857-0108



홍법사 청동대불(26m)



수종사 범종

청동주조 50년 외길 인생

大韓民國 청동明匠

天鐘社

청동불상, 범종,
청동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천종사 대표 송창일 명장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수상
신지식인 협회장상 수상
한민족 대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03-79
대표전화 031)763-7435



믿음·실천 함께 해야 '信心' 완성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수행신심분〉에 들어가서 먼저 네 가지 신심(信心)을 말한다. 정정취(正定聚)에 들어가지 못한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신심을 설한다 하였는데 곧, 부정취(不定聚) 중생을 두고 말한 것이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확실 하지 않은 이들에게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일러준 것이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성숙된 인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완덕(完德)을 계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것을 위한 필수 요소가 진여를 즐겨 생각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근본을 믿는 것(信根本)이라 하고 첫 번째에 두었다.

근본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불생불멸하는 진여의 성품이 중생 자신에게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불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무척 당연한 것이지만 중생들은 곧잘 자기 부처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의 근본이 진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즐겨 생각하는 자세를 갖추고 이 근본에 대한 믿음이 확립된 다음에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를 믿게 된다. 진여는 참되고 한결같은 중생의 마음이다. 동시에 이는 만물의 근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의식되어지고 대상화(對象化)되어진 것이

"믿음만 있고 실천 없다면
신심은 성숙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생의 미혹에 의해 만물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생길 뿐 그 근본에 돌아가면 이러한 차별의식은 저절로 소멸되어진다.

원효 스님은 진여가 중생의 모든 행위의 근원이므로 근본이라 한다 하였다.

또 〈열반경〉에는 "무릇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구나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凡有心者 皆當得阿褥多羅三 三菩提)"고 하였다. 중생의 마음 자체(心體)가 미혹이 덮이기 전에 본래의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불보(佛寶)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진여의 마음을 회복한 부처님에게는 무한한 공덕이 있다는 확신에서 항상 친절히 가까이하면서 공경하고 공양하며 받들고, 착한 마음씨(善根)를 일으켜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기를 바라야 한다.

세 번째는 법보에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항상 온갖 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넷째 승보의 믿음에 대하여는 올바른 수행을 하여 스스로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여러 보살들을 친하여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라 하였다.

승가(僧伽, samgha)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그 구성원들의 바른 수행을 믿는 것인데 여기에는 보살들도 포함된다. 보살들은 자신을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상의 네 가지 믿음에 대한 설명에서 믿음을 실천적인 행이 수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효 스님은 이 대목에 대한 주해에서 믿음만 있고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면 신심이 성숙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신심은 어떤 외적인 계기에 의해 사라지는 수가 있으므로 바라밀다의 완덕을 실천해야 신심이 완전해진다 하였다.

원래 신(信)은 범어 스라따(sraddha)를 번역한 것인데 지적(知的)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말로 이해를 통해 마음에 의심이 없어져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구사론〉이나 〈보살본업경〉 등 에서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믿음이다(信者令心澄淨)"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보통 믿음을 신해(信解)라 하여, 믿고 이해하는 것이라 말해 왔는데 〈기신론〉에서는 신(信)과 해(解)와 행(行)을 합쳐서 한 말이라 볼 수 있다. 용수보살의 〈지도론〉에서는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지혜로 건너다(佛法大海 信爲能入 智爲能度)"라 하였으며, "믿음은 보배가 있는 산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보배를 주워오는 손과 같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보배를 취할 수 있는 손이 있는 것과 같고 믿음이 없으면 보배를 가져주울 수 있는 손이 없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하면서 심수(信手)라는 말이 나온다. 또 "믿음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며,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信爲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는 〈화엄경〉의 구절도 자주 인용 소개되는 말이다.

구하는 자가 얻지 못할 때 보살은 괴롭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㉔ 보살이 가지는 근심

乞者聞施者財物 Ꞩ盡生大苦惱。菩薩求乞者不得之時心生憂惱復過於彼百千萬倍。於求乞者菩薩思惟。佛言求不得苦Ꞩ復如是。菩薩於乞求者生難遭想。所以者何。若無乞者檀波羅蜜則不滿足。無上菩提則不可得。是故於乞求者深生悲惱。(걸자문시자재물궤진생대고뇌。보살구걸자부득지시심생우뇌부과어피백천만배。어구걸자보살사유。불언구부득고진부여시。보살어걸구자생난조상。소이자하。약무걸자단바라밀즉불만족。무상보리즉불가득。시고어걸구자심생비뇌。)

번역

구걸하는 이는 보시하는 이의 재물이 다 없어졌다고 들으면 큰 고통과 번뇌가 생기고, 보살은 구걸하는 이가 얻지 못할 때에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나니, 구걸하는 이보다 백천만 배나 더합니다. 구걸하는 이에 대해 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진실로 다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에 대해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나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만약 구걸하는 이가 없다면 보시바라밀이 불만족스러워지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는 이에 대해 마음 깊이 자비심과 걱정을 일으킵니다.

해설

보살도 괴로워할 때가 있다. 아니, 오히려 구걸하는 이보다 백천만 배나 괴로워한다. 그 이유는 구하는 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에 빠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보살의 마음은 자신의 재물이 보시하느라 바닥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이가 얻지 못해 근심하는 게 마음 아프고 더 괴로운 것이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를 만날 때,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의 마음을 낸다.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는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인연을 말한다. 보통 중생이 부처님 불법의 정수를 만나 수행자의 길을 가기가 이처럼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며, 수행자가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말씀을 만났으니 그 귀한 인연에 감격하여 수행정진하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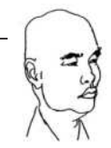
보살이 구걸하는 이를 볼 때, 귀한 인연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보시바라밀을 만족하게 이루기 위함이다.

한편, 보시의 과보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화엄경〉 '보살문명품'에 문수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묻는다. '불자여, 여래의 복밭은 평등하여 다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중생들의 보시한 과보가 같지 않음을 보이나이까.'

목수 보살이 게송으로 답한다. '마치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빛을 따라 그림자를 나타내나니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마음 따라 모든 과보를 얻게 하도다.'

부처님께 보시란 많든 적든 평등하다는 것이고, 다만 보시하는 이의 마음 따라 그 과보가 돌아간다는 것을 이 경구를 읽으며, 제바라보살이 말하는 보살심을 생각한다.

"마음 따라…/ 물질 따라서 아니고,/ 어찌하면 중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따라…"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지극히 동물적인 뿌리근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보면 서두르고, 이성(異性)을 보면 설레며 접근을 시도한다. 밝음보다는 어두운 쪽에서 정신적 방황을 더하기 마련이요 뺄셈보다는 덧셈을 즐긴다.

시기와 질투는 기본이요, 꾸미고 덧칠하는 능청은 본능적이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능멸하며, 강한 자에겐 아첨하고 굽신거리며 배알을 숨긴다. 나누는 데는 인색하고 모으는 본능은 때와 곳을 가리지 않는다. 도적질을 하면서도 명분을 앞세우고 형제끼리도 실리(實利)를 챙기며 다툼을 마다하지 않는다.

입을 열면 6할이 거짓말이요, 몸을 움직이면 절반이 어두운 쪽에 기울고 있다. 주면 좋아하고 달라하면 찡그린다. 나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요, 나에게 못하면 나쁜 사람이다. 친구 간의 사귐에는 이익을 계산하고 이성간의 교제에는 짝짓기를 생각한다. 타고난 성격도 상대에 따라 위장술을 즐긴다. 인격도 품성도 돈으로 계산되고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도 지폐의 무게로 결정된다.

옳은 것도 그른 것도 힘의 논리에 따라 저울질이 다르고 편 가르고, 선(線)긋기를 즐겨 오늘의 동지가 내일에는 적이 된다. 개천에서 용(龍)난다는 이야기는 전설 속에서 박제된지 오래고, 오고가는 현찰 속에서 우정도, 사랑도, 인간관계도 형성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지만 끼리끼리 문화가 출세도 보장하고 회전의자도 안겨준다. 하여, 배를 타지 않고 안방에 앉아서도 심한 배멀미를 느끼며 졸아든다.

타는 목마름에 갈증이 더해 두 눈 멀건히 뜨고도 가위눌리는 현실이 팍팍하고 고단하다. 있을 때는 친구들이 모이지만 없을 때는 친구마저 사라진다.

사람이 가장 정직할 때는 혼자 있을 때 순수하고 정직하며 진솔하다. 둘이 있으면 경쟁하고 셋이 있으면 다툼이 비롯된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이룸과 가득함이요, 가장 자유로울 때는 벗어남과 누림이다. 여자는 민낯에 위장술을 즐기듯 덧칠할 때 자기만족을 누리지만 남자는 먹이사슬에서 수확을 거둘 때 배부름을 느낀다. 그렇지만 여자나 남자나 동물근성을 즐기나 숨기려한다. 솔직을 병으로 알아 말과 행동이 보호본능을 발휘한다. 키가 자랄수록 내 탓은 줄고 네 탓으로 확대되며 부모 탓, 친구 탓, 조상 탓까지 끌어들인다.

거기다가 긍정적인 착각보다는 부정적인 착각으로 몸과 마음이 졸아들며 팔자타령을 늘어놓거나 운명론으로 기울려 게으름의 터널에서 깊은 잠을 즐긴다. 사람이 앓는 모든 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는데도 모으고 거둬들이려는 소유욕에서 건강을 잃고 있다.

내가 누구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는데도 그 누구는 영원히 내 것이길 바라며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순수해야할 종교계의 신앙도 신도를 먹이삼아 현찰 거둬들이는 덧셈놀이에 치졸할 만큼 분주하다. 헌금과 시줏돈의 무게에 따라 천국의 문이 쉽게 열리는 것처럼 능청떠는 성직자는 성직자일리 만무하다.

사람의 옷 색깔에 따라 인격의 높낮이가 결정될 리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례라며 관습이라며 부끄러움을 서로 용서한다. 대화의 단절은 오해를 불러들이지만 이해의 결핍은 작별의 마침표에까지 치닫는다.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게 '사람다움'
사람은 배려·이해를 추구하는 '동물'

사람은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내 행복과 자유가 남의 가슴에 못질을 해대거나 타인의 행복과 자유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여기에서 '답다'는 것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드러내고 감출 것도 없이 게으름을 병으로 알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모습일 것이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생활의 언어로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는 세상의 중심에 선 오늘의 주인공이 참사람일 것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배려와 이해, 용서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더러는 가슴 싸한 아픔도 길들이면서, 더러는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동물 중의 동물이다. 마음 열어 진리와 하나될 수 있는.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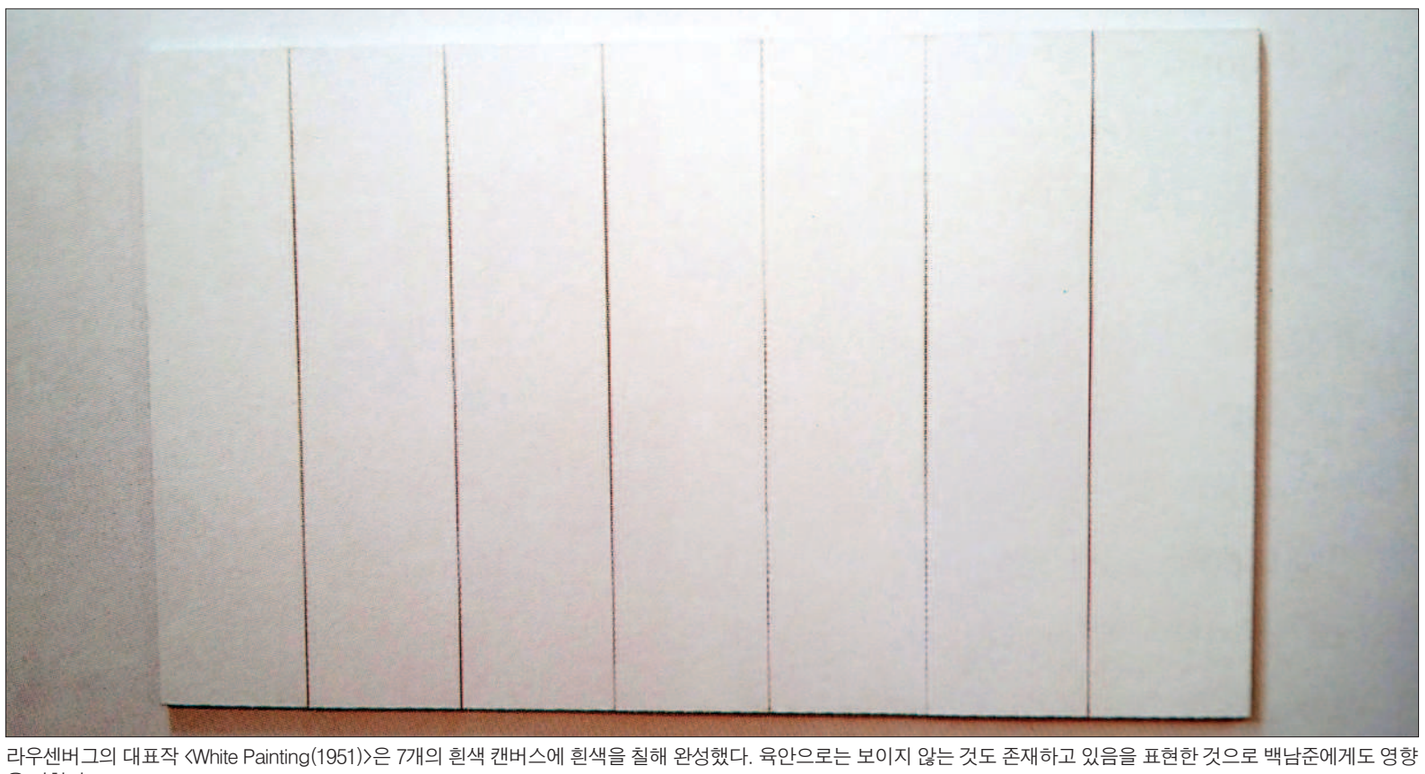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보이지 않음’을 표현… ‘諸行無常’을 담다

禪과 현대미술
⑪ 로버트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


라우센버그의 대표작 〈White Painting(1951)〉은 7개의 흰색 캔버스에 흰색을 칠해 완성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백남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길을 가다가 무심히 바라본 높은 하늘은 텅빈 것처럼 맑고 깨끗하다. 눈으로 보이는 파란색의 하늘은 모든 형상의 모습에서 벗어나 청명함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그 청명함이 무엇인지 궁금해진 예술가는 명상을 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찾아 그는 예술가의 길을 만들어 가기로 한다.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미국)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젊은 라우센버그는 중국, 티베트, 베트남 등 아시아를 여행하게 되며 전통적인 문화를 체험하여 많은 감명을 받게 된다. 당시 아시아 역시 전쟁이 끝나고 혼란한 사회의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평온함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불평이 없다. 또한 보이는 화려함보다 내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다고 그는 나중에 자신의 여행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여행을 통하여 경험한 정신적인 논점들은 자신의 삶과 예술의 뿌리가 되었다.

〈White Painting(1951, Oil on canvas, 182.9x320cm)〉은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흰색 그림이다. 흰색 캔버스(동일한 크기의 7개)에 흰색의 물감을 칠하여 모두가 흰색의 캔버스로 되었을 때 작품은 완성이 된다. 얼핏 보면 그냥 흰색의 캔버스 7개가 옆으로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다. 7개의 캔버스를 약간의 간격을 둠으로 해서 벽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색에서는 벽의 색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벽의 또 다른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라우센버그는 무슨 생각으로 이 작품을 하였을까? 백남준은 이 작품을 보고 크게 영향을 받아 〈영화를 위한 선(1962~64)〉을 제작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이 작품은 당시에 커다란 논란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다.

라우센버그는 자신의 흰색 캔버스에는 무수히 많은 먼지와 미생물 등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존재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백남준은 흰색 스크린에 영사기를 비춤으로 해서 보여 지는 공간의 먼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사라진다. 시간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먼지처럼 흩어지며 인연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선(禪)적 사유는 당시에는 많은 논쟁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일정부분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서양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인식과 이

중국 · 티베트 등 아시아 여행
내면적 가치 대한 성찰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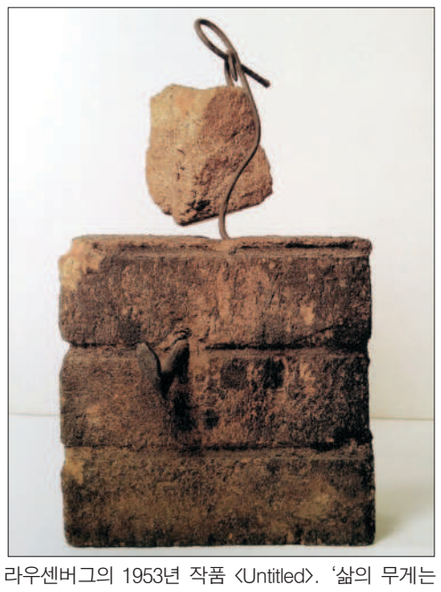
흰색 캔버스에 흰색을 페인팅
먼지 등 보이지 않은 것 표현
백남준에게도 깊은 영감 영향
예술은 정신의 자유서 나온다

를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은 작가의 커다란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림은 무엇인가를 화면에 그려야 한다는 고정된 관념을 한 순간 무너뜨린 것이다.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대상의 형상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득의망상(得意忘象-뜻을 얻으면 상을 버림)처럼 뜻을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예술행위가 행하여지며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라우센버그에게 흰색캔버스는 화두처럼 인식되었던 것 같다. 수행자들이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향하여 길을 가는 것처럼 그는 관객들에게 화두처럼 작품을 제시함으로써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그의 화법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예술의 시대적 관점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가 단색이 아닌 흰색을 선택한 것은 나름대로 명상에 대한 인식과 아시아에 대한 문화적 인해가 선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양에서는 흰색은 무색이 아닌 유색이며 흰색에는 모든 색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행을 통하여 인식한 것으로 보여 진다. 흰색은 원초적인 색이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수용하는 색이다. 즉, ‘직심(直心)으로 가능한 색이 흰색’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라우센버그의 1953년 작품 〈Untitled〉. ‘삶의 무게는 누가 만든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대상은 나의 마음이다. 또한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 또한 나의 마음작용이다. 즉,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존재성을 인식하게 되며 살아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흰색의 캔버스는 지금 이 순간도 변화한다. 무수히 많은 먼지들이 머물다 흩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자신의 본래 자성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Untitled(Elemental Sculpture), 1953〉는 라우센버그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 중의 하나이다. 제목을 ‘무제’로 한 것은 이전 회차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작가는 다양한 관객의 의견과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콘크리트와 돌덩어리, 철사, 못 등을 사용한 이 작품에서 사람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념적 사고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삶의 무게는 누가 만든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라우센버그는 과거의 전쟁을 통하여 인간의 존재성이 너무 무거운 상태로 변화한 것에 깊은 고뇌를 느끼며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구도 나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점에 따라서 스스로가 자신의 굴레를 형성하고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하나 내려놓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문제는 왜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 해법을 찾는 것 또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거운 짐의 원인은 삼독심(三毒心-탐욕, 화내는 것,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라우센버그가 이러한 삼독심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작품에 나타나는 밑부분의 3단의 콘크리트는 삼독심을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보여진다. 삼독심에서 벗어나고자하는 몸부림이 강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온 발(거대한 못)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삼독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작가의 예술적 감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머리 부분에 매달려있는 커다란 돌덩어리는 관념적 관점에서 습득된 지식이나 경험들을 지키고 활용 하려고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경험하고 책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들이 모두 옳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지식은 과거의 흘러간 경험들을 축적한 것이다. 하지만, 축적된 경험이 오히려 현재의 현재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관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은 현재 지금의 관점이다.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을 현재의 현상에 대입시키는 순간 오류는 커지는 것이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지금 이 순간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한 순간도 멈추어 서지 않고 흘러가는데 과거의 관점을 지금에 대입시키면 과연 그것이 어떠한 관계성을 형성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창의성의 반대는 관념적 사고다. 창의적인 사고는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을 모두 버리는 순간에 그리고 지금의 현재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순간에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창의성은 때문에 종종 매도되기도 한다.

즉,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예술적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 작품이 그러하다. 이 작품이 처음 공개 되었을 때 작품의 작품성과 예술가의 창의성은 인정되지 못하였다. 시간이 흐른 이후에 작품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났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관념적 사고가 얼마나 고착화돼 있는 지를 인식할 수 있었다. 예술가들은 늘상 창의적인 작품을 하기 위하여 많은 고뇌와 명상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가고 나아가서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동일한 작가의 작품일지라도 동일한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오랜 시간 명상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는 자유로운 사고는 늘 깨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작가는 관객들에게 자유로운 인식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작가가 어떠한 의도나 관점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미술은 관객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관념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다.

높아 보이는 하늘을 보며 진정한 자유를 꿈꾸던 라우센버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고자 하였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사고의 자유를 가져다주었으며 명상을 통하여 관조되는 대상은 뜻을 얻는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다.

시대적 관점을 뛰어넘는 그의 예술에 대한 생각들은 마치 한 수행자의 모습처럼 보인다. 진정한 자유를 찾아 자신의 예술에 대한 모든 열정을 바친 그의 노력은 현대미술의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특히 흰색의 캔버스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예술성과 정신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많은 관객들과 후배 예술가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예술은 표현이 아닌 정신의 자유에서 온다고 필자는 생각해 본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예술, 수행? 그냥 일상일 뿐이야”

13번째 개인전 연 조계종 원로의원 성파 스님

14일까지 서울 한국미술관서
평소 쓴 필묵 100여점 전시
32m에 달하는 금강경 ‘눈길’
“비판해주길, 그래야 분발해”

서예 · 옻칠 · 도자 · 염색까지
전통문화 지키는 데 평생 매진
“내년엔 뭐 할지는 나도 몰라”



특별한 서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격외의 작품 앞에 서면 압도되고, 또 감화된다. 조계종 원로의원 성파 스님(통도사 서운암, 사진)의 휘호와 선묵을 대하면 ‘도(道, 깨달음)는 하나로 통한다’는 말을 수긍할 수 있다.

6월 8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는 성파 스님의 서예전 개막식이 열렸다. 14일까지 진행된 서예전에는 스님이 평소에 틈틈이 써온 선묵과 휘호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길이가 가로 32m에 달하는 〈금강경〉은 ‘대작’이라고 말하기 충분하다. 하지만 성파 스님은 별 다를 게 없는 작품이라고 말한다.

“평소 생활하면서 틈틈이 써온 것들입니다. 〈금강경〉도 언제까지 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나면 쓰고, 다른 일을 했다가 다시 시간나면 쓴 작품입니다. 저에게는 일상 생활일 뿐입니다.

전시회의 목표도 특이했다. 흔히 말하는 문화포교나 작품을 통해 불교 사상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다. 스님의 대답은 ‘비판과 경책’이었다. 이유도 명료했다. 더 발전하기 위함이다.

“글씨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렸다고 칭찬받기 위해 전시회를 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판과 경책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연 것입니다. 비판과 경책이 있으면, 분발심이 생기고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어요. 더 배울 수 있고요.”

흔히 ‘서화일원(書畵一源)’이라고 했듯이 ‘수행과 예술이 하나’로 보여지는 스님의 작품 세계를 물었다. 곧바로 답변은 법문이 돼 돌아왔다.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수행자에게 일상은 수행이죠. 수행을 따로 하고 예술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평범한 생활입니다. 내 일상 생활의 소산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세인들이 붙인 것이지, 난 이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수행도 예술이라고 이름붙인 것도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기실, 스님이 이뤄낸 성과들을 보면 한 사람이 만들어 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다. 산수화, 선묵, 서예, 천연염색, 감지금니사경, 옻칠불화, 16만 도자대장경 조성, 시조문학상 30년 운영 등 그 분야가 방대하다. 이런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모든 것이 일상’이라는 스님의 철학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또한 이런 일상은 ‘전통문화의 복원’이라는 원력으로 귀결된다.

“내가 사는 곳이 전통 사찰입니다. 머리 깎고, 먹물옷 입는 것은 천년 전부터 내려오던 전통방식입니다. 내 모든 일상이 전통입니다. 모두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마음도 있지요.”

스님은 염색과 옻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연이어 설명했다. 염색은 자연의 색을 찰나에 잡아내는 작업이라고 했고, 옻칠은 불교계가 지켜나가야 할 문화라고도 했다.

“천연염색은 초목의 염료를 추출해서 옷감 등에 색을 입히는 것입니다. 사진은 빠르게 지난 것을 포착하는 것이죠. 염색도 찰나의 색을 끄집어내서 환생시키는 것입니다. 옻은 접착성이 강하고 활용했을 경우 방부, 방염, 방수의 효과를 가져오죠.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옻을 많이 썼어요. 옻칠 문화는 곧 불교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어떤 전시를 할 것인지를 물었다. 답변은 명료했다. “모르겠다”였다.

“내년에는 나도 무슨 전시를 할지는 몰라요. 여러 개가 서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발전과 배움을 원하는 성파 스님에게서 푸르디 푸른 소나무와 같은 정신을 본다.

신성민 기자

흑백으로 담아낸 백령도의 진면목

최용백 작가, 6월 15~21일 사진전



최용백의 ‘몽운사 해수관세음보살상(60×80cm, 2012)’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북한과 인접해 있어서 항상 군사적 긴장감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서해 5도 어민들에게는 중요한 어장이다. 또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기도 한다.

불교 무형문화재를 주로 렌즈에 담아온 최용백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에게는 백령도는 불안한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이다. 그의 렌즈는 섬의 현상이 아닌 생래적인 존재에 주목한다.

6월 15일부터 21일 가나인사아트센터 3층에서 열리는 최 작가의 사진전 ‘백령도, 평화를 품다’는 이를 잘 표한다. 흑백으로 대비되는 실루엣으로 백령도를 포착한 최 작가는 쇠와 불이 아닌 안식과 치유의 백령도를 사진을 통해 말하고 있다.

최 작가는 사진전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백령도 구석구석을 다녔다. 그렇게 발품을 들여 찾아낸 찰나의 풍광들은 수묵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작가는 “백령도 자연의 숨결을 통해 전쟁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736-1020 신성민 기자

중광 · 석정 · 수안스님 선서화를 만나다

진경갤러리, ‘禪書畵 3人展’

불교전문 갤러리 ‘진경’(관장 심진택)이 ‘선서화 3인전’을 연다.

전시기간은 6월 1일~20일이며 중광 · 석정 · 수안 스님의 작품 30여 점을 특별 전시한다.

중광 스님은 ‘걸레 스님’, ‘광인’을 자처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선화(禪畵)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한국의 피카소’라고도 불렸다. 석정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이며 불화장(佛畵匠) 대불모(大佛母)라고 불렸으며 수안 스님은 현시대 선화의 대가라 불린다.

심진택 관장은 “이번 특별전시회를 통해 세 분 스님들의 경지에 도달한 원숙함과 조화로움이 담겨 있는 감동의 선 세계(禪世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갤러리는 지난 2014년 7월 5일 개관기념으로 만공, 경봉, 성철 스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들의 선서화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051) 747-2260 하성미 기자

“신진작가 발굴… 불교미술 발전 초석 다질 것”

법련사 불일미술관 공모 결과… 12명 작가 선정

전통회화 · 설치미술 등 ‘다채’
6월~12월 내내 릴레이 전시



불일미술관 신진작가로 선정된 윤지웅의 작품 ‘무제’.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는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이 신진작가 발굴을 통해 불교미술 진흥에 나선다.

불일미술관은 6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진작가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미술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열린 공모전에는 국내외 작가 50여 명이 지원했고 이중 작품성과 창작성이 돋보이는 12명(단체 포함)의 작가가 선정됐다.

선정 작가는 조영아(회화), 강현정(회화), 이지민(회화), 이상의(옷칠 회화), 권금영(종합), 윤지웅(종합), 정은지(도자), 동국대 대학원 한국화 그룹전(회화), 핑크붓다(종합), 용인대 불교회화 그룹전(회화) 등이다.

학예실장 구담 스님은 “처음에는 6명의 작가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발전 가능성이 많은 작가들이 상당수였다”면서 “더 많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 인원을 두 배로 늘렸다. 12명의 작가 · 팀에게 6개월 간 릴레이 형식으로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공간을 무료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릴레이 전시의 시작은 6월 14일 개막하는 동국대 대학원 한국화 그룹전 ‘쓱보러와요’가 알린다. 그룹전은 2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는 △조영아(6월 28일~ 7월 11일) △이지민(8월 2일~15일) △강현정(8월 2일~15일) △핑크붓다(단체, 9월 1일~14일) △용인대 불교회화연구소(단체, 9월 17일 ~27일) △이상의(10월 4~17일) △윤지웅(10월 19일~11월 1일) △한국전통문화대학 교수 그룹전(단체, 11월 7일~ 20일) △권금영(11월 22일 ~12월 4일) △정은지(12월 6일 ~19일) △전통회화 그룹전(단체 12월 6일~19일) 등의 일정으로 전시가 이뤄진다.

이번 공모전에 대해 선정 작가들은 고마움과 함께 불교미술가에 대한 불교계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핑크붓다 조수연 대표는 “일반 갤러리에서는 불교미술 작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일미술관이 신진작가에게 전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간 대여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대 비용은 작가의 몫이다.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면서 “불교계 종단과 사찰에서 불교미술작가를 현실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은 “올해 처음 신진작가 공모전을 개최했다. 작가 발굴을 통해 일반미술은 물론 불교미술의 젊은 작가들을 위한 창작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신진작가 공모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 또한 지원금 등 작가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법민스님의 산사음악회 CD 발매



산사음악회 CD 목차
① 목탁새
② 계명암 오솔길
③ 백일기도
④ 소원
⑤ 업보
⑥ 상념
⑦ 사랑은 주는거야
⑧ 님이 오는 소리
⑨ 목탁새(slow)
⑩ 목탁새 경음악

법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켄벤션 센타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 · 업보 · 님이오는 소리 · 상념 등이 있다.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 문의 다 산 불 원
051-231-6455 / 010-9049-0016
• 후원계좌 : 국민은행 106937-04-001891 다산불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6.1~2015.6.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3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4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5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6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7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정원규	불광출판사
8	한암	남지심	민족사
9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조계종출판사
10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미산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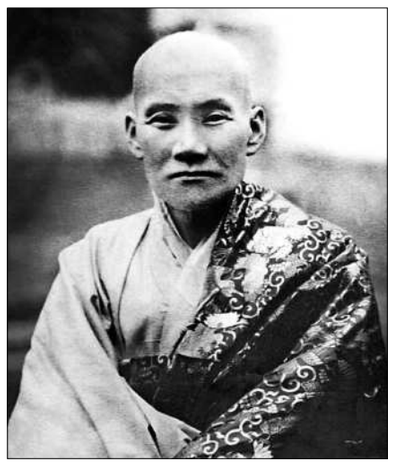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한국불교 수행 전통 되살린 한암 스님 입체 묘사

한암

남지심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5천원





근현대 한국 불교사의 진정한 사표(師表)
암울한 시대 한국 불교 등불 된 한암 스님
남지심 작가, 일대기 장편소설로 재구성

한암 선사(漢岩, 1876~1951 · 사진)는 강원도 화천서 태어나 1897년 금강산 장안사서 행름 화상을 은사로 출가 득도한 후 한국 불교를 중흥한 선지식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내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입적할 때까지 그곳서 정진하며 후학들을 지도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이자 역사상 유례없이 네 차례나 종정에 오른 한암 스님은 한국불교의 정신적 기둥이자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올해는 한암 선사가 '좌탈입망(앉아서 참선한 채로 열반)' 하신 지 65주기가 되는 해이다. 이에 지난 3월에는 한암 대종사의 가르침과 수행정신을 기리는 65주기 추모다례재가 월정사에서 봉행됐다. 또한 한국불교학회는 서울 봉은사 보우당서 '한국불교 전통의 계승과 한암 선문'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했다. 이렇게 한암 선사의 사상과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정신적 근간으로 면면이 계승된다.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한암 대종사께서는 일제강점기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치열한 수행을 통해 선과 교를 겸비하며 한국 불교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라고 평했다.

큰 업적을 지닌 한암 선사의 일대기를 재구성한 평전소설 〈한암〉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저자는 스테디셀러 소설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씨 이다.

소설 〈한암〉은 한암 선사가 50세 되던 해에 봉은사 조실 자리를 내놓고 서울을 떠나 오대산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부터 시작한다. 당시 조선불교는 숭유억불 정책을 펼친 조선왕조 5백년을 거치고 일제 식민 지배를 받는 현실 속에서 피폐해져 있었다. 이런 조선불교를 어떻게 다시 중흥할 수 있을까? 조선불교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수행자로서의 덕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소설 〈한암〉은 이 시기 한암 선사를 사로잡은 문제의식을 따라간다. 한암 스님은 책 속에서 "부처를 향한 길과 조선불교를 지키기 위한 길", 다시 말해 "오고감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유의 길"과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하는 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고민했다. 한암 선사는 수행자의 길과, 조선불교를 지키는 길 어느 하나도 포기하거나 외면치 않았다. 산중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등지지 않고 살아간 한암 스님. 선사에게는 산문 밖의 삶과 산문 안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었다. 선사라고 하면 흔히 세상과 담을 쌓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스님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한암 스님은 이런 선사의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수행과 실천이 둘이 아닌 삶을 살아가셨다. 소설의 첫 장면은 이런 한암 선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남작가는 설명한다.

한암 선사가 오대산서 산중 스님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승가오칙(僧伽五則)이었다. 승려라면 반드시 참선과 경전 공부를 해야 하고, 염불과 의식 집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스님답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세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승려 스스로를 존엄하게 지키는 길이며, 일본인들로부터 조선불교를 지키고 살려내는 길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한암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일제시대, 한국에 불교의 수행 전통이 되살아나고 한국 불교가 중흥할 수 있었다고 남 작가는 책을 통해 소개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근현대 불교사의 대표적 사표(師表)로 추앙받는 한암 선사의 가장 큰 업적인 것이다.

소설 속에는 한암 스님의 수제자 탄허 스님이 출가 전 한암 스님과 서로 주고받은 서간 등 스님과 관련된 중요 자료들도 실려 있다. 이를 통해 한암 스님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가령 이렇다. "그대의 재주와 덕행은 비록 옛 성현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찬미해 마지않을 것이네. 더욱 더 있어도 없는 듯하고 차 있어도 비어 있는 듯이 노력하니, 어느 누가 그 고풍(高風)을 경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평소에 음영(吟詠, 詩作)은 즐겨하지 않네. 그러나 이미 마음달이 서로 비추어서, 묵묵히 있을 수 없기에 간단하게 문장을 엮어 보내니 받아 보고 한 번 웃으시게."

위의 인용문은 한암 스님이 탄허 스님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다. 남지심 작가는 이 부분에서 "마음달이 서로 비추었다는 대목에서는 아마도 목이 잠겨 한암 스님이 계시는 오대산을 향해 조용히 허리를 굽히고 절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썼다. 행간을 읽어내는 남지심 작가의 서정적인 문체를 따라가면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훗날 오대산의 거목이 된 두 사람이 나눈 우정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남지심 작가는 한암 스님 주변인들의 눈을 통해 한암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소마 쇼에이라는 일본 스님이 상원사 선원에 머무르면서 쓴 글을 통해 일본인에게도 경계를 두지 않던 스님의 모습을, 지위 높은 일본인들이 상원사를 방문한 날의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권력자에게도 호락호락하지 않던 한암 스님의 당찬 모습을 보여준다. 스님은 불의 앞에선 누구보다 용감하고, 수행자로서의 덕목을 지킬 때에는 누구보다 엄격했지만 평상시엔 신도들과 제자들에게 한없이 다정했다. 또한 남 작가는 대혜성 보살이란 법명을 가진 궁녀 김씨의 목소리를 통해 나라를 잃은 조선 왕실의 비극적 현실도 드러낸다. 대혜성 보살은 순종황제 부인인 윤비를 모시던 궁녀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오대산으로 피신해 온 동네 소녀의 이야기는 보는 이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학도병으로 끌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형제의 사연은 나라 잃은 민중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진다. 이렇게 제각기 사연을 가진 등장인물들은 이 책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다. 남 작가는 "한국불교의 큰 사표이신 한암 스님의 생애를 조명하도록 기회를 주신 퇴우 정념 스님과 오대산 문중 스님들께 감사의 합장을 올린다"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때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한국 불교를 지켜 내신 스님의 행장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마음동화책

마음을 담는 그릇

정찬주 글 | 정윤경 그림 | 작가정신 펴냄 | 1만 1천원



요즈음 어디에서건 너나 할 것 없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내 몫을 챙기지 못해 바쁘고 분주하다. 학교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오가며 치열하기 그지없는 일상을 보내며 지친 우리에게는 잠깐 숨을 돌릴 틈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다. 불교적 사유와 의식의 세계에 깊이 천착해 온 작가 정찬주가 일러스트레이터인 딸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특별한 그림책을 출간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으며 맑은 마음결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마음동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 책에서는 고즈넉한 산사, 자연과 어우러진 삶 속에서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들며 묵묵히 구도의 길을 가는 노승과 때 묻지 않은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펼쳐진다. 서정적인 이야기에 더해진 섬세하고 세련된 그림을 눈으로 좇다 보면 평안함과 안정감, 차분히 한 박자 쉬어 가는 여유와 위안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준다. 그런가 하면 피상적인 것에만 관심 갖는 물질주의 사회에 물든 나 자신을 반성하게도 된다. 그렇다면 〈마음을 담는 그릇〉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스님과 아이가 건네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자.

낡은 절 풍경사에는 조약돌처럼 머리가 동글동글한 아이와 가지 굽은 소나무를 닮아 허리가 휜 스님 단둘이 산다. 풍경을 울리며 지나가는 바람과 한낮 구름 한 점, 돌담 구멍을 들락거리는 다람쥐도 식구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이가 종일 산사 주위를 노니는 동안, 소나무 스님은 향나무로 나무 그릇을 깎는다. 끌질 열 번, 절 한 번, 또 다시 끌질 열 번, 절 한 번……. 나무 그릇 하나 완성하기 위해 소나무 스님은 수천 번 절을 한다. 티 없이 맑은 아이는 우직하게 나무 그릇을 깎는 소나무 스님이 마냥 좋기만 하다. 그래도 스님이 만들어 준 나무 그릇은 못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쁘게 둥글지 않고 모과처럼 삐뚤빼뚤 못나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풍경사는 사람들의 발길로 시끌벅적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소나무 스님이 만든 나무 그릇을 남보다 빨리, 많이 구하려고 몰려들어 스님을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소나무 스님은 늘 한결같다. 정성 어린 손길로 크기도 모양도 똑같이, 주문한 순서대로 수천 번씩 절하며 온 마음을 다해 나무 그릇을 만들어 간다. 소나무 스님이 이렇게 나무 그릇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소나무 스님이 정성껏 깎아 온 나무 그릇은 절에서 쓰는 공양 그릇인 '발우'이다. '바리때'라고 부르기도 한다. 삼국 시대에 전래된 불교는 우리에게 종교로서만이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사랑한 문화이자 역사의 일부로 오늘날까지 함께 하고 있다.

작가 정찬주는 한글 창제 숨은 주역이던 신미대사에 대해 조명한 장편소설 〈천강에 비친 달〉, 무소유의 삶을 가르친 법정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무소유〉 외에도 부탄, 네팔, 남인도, 스리랑카, 중국 오대산까지 불국을 다녀온 경험과 기록을 담은 에세이 〈불국기행〉, 어른을 위한 동화 〈돌부처〉 등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작품에 불교적 사유를 담아내고 있다. 남도의 화순에서 끊임없이 창작에 매진하는 정 작가는 이번 작품서 어른과 아이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자 특별한 그림책을 구상했다. 〈마음을 담는 그릇〉은 전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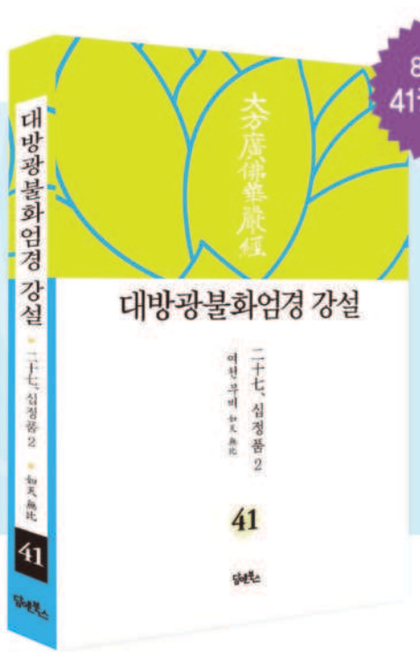
나무 그릇에 별 담은 스님과 아이 이야기
산사의 맑은 목소리가 전하는 위로와 격려
고즈넉한 산사풍경 독창적 일러스트로 표현

과 사유와 의식을 같이해 우리 산사의 풍경에 우리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 현재에도 생생히 살아 숨 쉬는 우리의 불교문화에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한다. 영국 킹스턴대서 일러스트를 공부한 일러스트레이터 정윤경의 첫 그림책이기도 한 이번 작품은 소나무 스님의 순수한 품성과 동자승의 티 없는 마음 그리고 고즈넉한 산사 풍경을 여느 그림책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깊은 끈기와 세심함으로 완성된 그림은 그릇에 마음을 담아내고자 한 소나무 스님의 마음가짐과도 닮아 책장 너머까지 그 정성이 느껴진다.

이 책은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올곧은 성장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 고즈넉한 산사, 그곳서 소나무 스님이 그토록 힘겹게 나무 그릇을 만든 데에는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글자를 모르는 소나무 스님에게는 참선도 염불도 어렵기만 하다. 대신 자신이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며 마음을 다듬어 가기로 한 것이다. 마음을 다해 나무 그릇 깎는 일을 멈추지 않던 소나무 스님의 모습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화엄경 강설, 드디어 절반의 고지를 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80권본 화엄경 강설
무비 스님의 원력으로 드디어 41권 출간!

최초 최고 최대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화엄경
우리 시대 대강백 무비 스님의
현실적인 비유와 친절한 강설로 만나 보십시오.

1 ~20권 각권 12,000원 / 21~41권 각권 13,000원





무비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11~20권 세트

실차난타 한역, 무비 스님 한글 번역
11-20권 세트 100,000원

『대방광불화엄경』 강설과 사경 대작불사로 최상의 공덕을 쌓으세요. 담앤북스 02)765-1251

민요서 라다크 역사·문화를 찾다

문화 보존가 모룹 남걀 6년 간 취재… 다큐로 제작

코토 감독, '노래 수집가' 영화 제작
외부 문명 노출돼 훼손 위기 놓인 라다크 문화 보존 이야기 담아내
단편 영화서 시작돼 54분 장편으로



미국 시애틀 출신의 영화감독 에릭 코토(사진 오른쪽)는 인도 라다크 불교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룹 남걀(왼쪽)을 6년 간 밀착 취재, 다큐멘터리 영화 '노래 수집가(The Song Collector)'를 제작했다. 사진출처=시애틀글로벌리스트닷컴

급속한 세계화와 문명화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인도 라다크의 불교문화를 지키려는 한 남성이 있다. 그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돼 화제다.

미국 시애틀 출신 영화감독 에릭 코토는 인도 라다크 불교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라다크 인 모룹 남걀을 6년 동안 밀착 취재, 다큐멘터리 영화 '노래 수집가(The Song Collector)'를 제작했다.

모룹 남걀은 1960년대부터 불교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라다크에 학교를 설립하고, 문화 보존 활동을 시작해왔다. 이에 대해 에릭 코토는 "남걀의 활동은 내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를 비롯한 라다크 인들은 삶의 터전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라다크는 인도 잠무카슈미르주에 속하는 카슈미르 동부지역에 있다. 험한 산악과 깊은 골짜기, 높은 고원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수세기 동안 독자적인 불교 왕국으로 군림해 왔다. 하지만 1960년 중반 인도 정부가 중국과 파키스탄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선으로 라다크 왕국에 도로를 놓으며 외부 문명이 유입됐다. 이 때가 바로 모룹 남걀의 '라다크 지키기'가 시작된 계기다.

모룹 남걀은 라다크 지역의 구술적 문헌들을 되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이 결과 그는 1,300여 곡의 라다크 민속음악과 노래를 수집했다. 이 노래들은 라다크 지역의 문화와 언어들로 고스란히 표현돼 과거의 결혼 및 농경생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특히 16세기의 '레 왕궁(Leh Palace)'이란 노래는 당시 레 왕궁을 지을 때 라마승이 축복을 내렸다는 가사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라다크 왕국의 궁전을 엿볼 수 있다.

코토는 "노래와 구전설화들은 라다크처럼 문화의 세대 전승이 힘든 민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 유산"이라며 "남걀의 가족들이 대표적인 예다. 남걀의 손자는 할아버지의 고향과 문화를 노래가사와 언어를 통해 배웠다"고 말했다. 남걀의 손자 보티는 현재 할아버지가 세운 학교서 민요를 통해 역사와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에는 현재 2000여명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매년 100여 명이 졸업하고 있다.

코토는 2009년 라다크 학교와 관련한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방문한 당시 모룹 남걀을 처음 만났다. 당시 남걀은 인도 전역에 걸쳐 국가적 영웅으로 알려져 있었다.

코토는 "남걀은 매우 흡입력있는 성격의 소유자다. 덕분에 영화에서 그의 성격이 잘 표현될 수 있었다"며 "원래 단편 영화로 제작하려 마음먹었지만 54분짜리 장편 영화로 제작, '노스웨스트 영화 포럼(Northwest Film Forum)에 출품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코토는 영화제작을 위해 보낸 6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라다크 민속음악에 대한 다큐를 만든 것은 매우 귀중한 경험"이라며 "이 영화를 통해 매력적인 라다크 문화를 체험하고, 라다크의 영웅 남걀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세계 최대 불교학원 '오명불학원' 축소되나

중국 정부, 5천명 선으로 학생 인원 감축

지난해 1천명 승려 돌려보내
철거 거부시 강제 집행 예고

세계 최대 불교학원 도시인 중국 오명불학원(五明佛學院)이 학생 인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6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티베트 불교를 수학할 수 있는 오명불학원에서 수행하는 스님의 숫자를 오는 9월 30일까지 5,000명 선으로 감축한다. 이미 중국 당국이 작년 1,000여 명의 수행승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며, 올해에도 1,000여 명의 비구와 비구니 승려들을 귀향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발 3,000m 이상의 쓰촨(四川)성 써다(色達)현에 자리잡은 오명불학원은 1980년 닝마파의 고승인 릭메 푼촉(晋美彭措)이 세운 작은 사찰에서 시작됐다. 릭메 푼촉의 명망을 듣고 주위의 티베트인들뿐만 아니라 한족 수행자들도 대거 몰려들었고, 1990년대에는 상주인구가 최대 3만 명 이상의 학원도시로 변화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기둥인 불교를 집단적으로 수학하는 모습을 중국 정부는 좋게 볼 리가 없었다. 중국 정부는 릭메 푼촉에게 정식 지위를 주고 오명불학원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릭메 푼촉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2001년에 중국 정부는 무장경찰을 동원해 사원과 도시를 파괴하고 학인 스님들을 쫓아냈다.

하지만 학인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나날이 발전해 최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수업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수행 코스까지 만들어졌다.

중국 정부의 오명불학원 감축 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축 방침은 써다현이 아닌 상부가 결정했고, 시진핑 주석도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실제 중국 당국은 소방차량의 통과와 도로 건설을 위해 철거 대상 쪽방들을 표시했으며, 수행승들이 철거를 거부하면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쓰촨성 오명불학원 전경 모습. 최대 3만 7000명까지 수학했던 곳이지만, 중국 정부가 사원 축소 정책을 추진해 5000명 선으로 감축될 위기에 놓였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편, 써다현은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거하는 티베트인의 시위와 분신이 자주 발생해 중국 당국이 주목하는 곳으로, 티베트 불교 사원은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극우불교단체 高敎 설립 '숨은 뜻' 있나

미얀마 소수민족 이슬람교도 탄압 등 극단 정서 교육 '우려'



'Mahaw Thadar'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는 민족과 종교를 수호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는 선언문을 합창하고 있다. 〈사진출처=mizzima〉

미얀마의 극우주의 불교단체 '마바타(Ma Ba Tha; 민족종교 보호를 위한 애국연합)' 승려들이 양곤 교외 지역에 사립고등학교를 건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마바타가 이슬람에 대한 탄압 등 극단 정서와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수도 있단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6월 4일(현지시각) 미얀마 언론 'mizzima' 보도에 따르면 마바타 스님들은 양곤 레구 타운쉽(Hlegu Township)에 'Mahaw Thadar' 사립고등학교를 건립하고 학생들에게 '민족과 종교를 수호하라'는 민족주의 정서를 가르치는 한편, 무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곤 외곽에 사립고등학교 세워
민족·종교 수호정신 교육 목적
학생 정서에 영향 미칠까 '논란'
설립자 "타종교 언급 안할 것"

마바타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이 학교를 건립한 아신 판냐 바라(Ashin Panya Vara)는 "학생들이 이 나라의 수준 높은 시민으로서 우리 민족과 종교를 수호하리라 기대한다"며 "교육은 평균 고등학교 과정을 따르겠지만, 청소년들의 도덕관념과 불교에 대한 헌신성을 기르기 위해 스님들이 직접 종교 및 문학 프로그램을 가르칠 것"이라 설명했다.

1일(현지시각) 열린 개교기념식서 판냐 바라 스님은 '도덕과 시민으로서 행동강령'에 대해 1시간 동안 연설했다. 또한 학생들은 "나는 민족과 종교를 수호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는 선언문을 합창했다.

이와 관련해 마바타의 극우성향이 분열을 조장, 학생들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구의 85%가 불자인 미얀마서 최대 불교 근본주의 단체인 마바타는 그간 '무슬림 상점 보이콧' 등 반무슬림 활동을 주도해 왔다. 최근엔 이슬람교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해 '로힝야'란 명칭 대신 '벵갈리(불법 이민자)'라 불러야 한다며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미얀마 내 이슬람교도들의 존재가 불교에 커다란 위협이라 주장하며 탄압을 일삼았다. 특히 2013년엔 정부를 압박해 '산아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불교도 여성과 무슬림 남성의 결혼을 막고, 출산한 여성이 다음 출산을 위해선 3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마바타는 이슬람교도의 출생부터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에 나선 이들의 행보에 '숨은 뜻'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판냐 바라 스님은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우리 종교(불교)에 관한 사상과 지식만 가르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라툰(Hla Tun) 교장은 "마바타의 가르침이 분열을 조장, 학생들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나는 정치나 민족주의적 사상을 고무시키는 일 보단 아이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라툰 교장은 "비록 마바타 스님들이 학교를 세웠을지라도, 우리는 교육과 관리를 모두 책임진다. 학교는 오직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학교는 약 2만㎡(6,100평) 부지에 최신식 5층 건물 1채, 기숙사 2채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 이름인 'Mahaw Thadar'는 '어린 미래불'이란 뜻이다. 입학비는 모두 무료이며, 우수한 학생들에겐 고등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9학년 과정에 약 150명 학생이 등록돼 있으며, 2017년도에는 10학년 및 11학년 과정 학생들도 모집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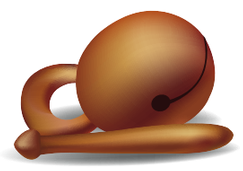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것은 덧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얼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 수강후 자격증 수여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강의)
010-4014-8822

비구,비구니스님, 불자님께

소승은 20여년간 부항, 사혈, 지압으로 신경통, 위장병, 대장염, 혈액순환장애, 초기중풍, 뇌졸증, 고혈압, 관절염, 당뇨등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 완치한 경험이 많습니다. 인연되는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경북 김천시 지례면 거물길 379-9
선향선원 신흥사 선 문 합장
054)434-2452. 010-3550-0132
e-mail : chadhyun@naver.com

계룡산 삼봉불기도 (매주)

입시 : 부적방생 1인 5만원
결혼풀이(산재) 1인 10만원
기도 후 스님 맞선 해드림.
2016년 6월 25일 7시 조계사 앞
온양경유 10시 계룡산 12시 도착
010-3410-0004
다르마 스님 합장

초상화 주문 받습니다

낡고 변형된 사진을 최고급 인물화로 제작, 흑백 증명사진을 컬러로 예쁘게 만들어 드림. 청하스님 최고 氣달마, 재물과 복을 주는 놋쇠로 만든 삼조고, 업두꺼비와 복돼지 특별주문
010-8561-8253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행자승

(불교에 입문하실)
을 구합니다
010-2078-95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동구 불로동)
010-2515-0664

지극정성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경남 거제)
010-7169-98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이상)
010-3524-89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3156-427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53-654-0408
010-3422-3232

신통력을 손에 잡을 수 있는 방법과 특수한 기도비술을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비구 기도스님 모십니다

(염불 기본)
010-6216-4133

천안 아산 사시불공만 보는 사찰을 찾고있습니다

(비구 입니다)
010-2168-2800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 /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법당용 책 사찰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5228-787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찾는 스님 : 무명 스님 (윤미옥)
대원정사(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계시던 무명스님을 찾습니다.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받으신 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매개시 및 가압류, 압류, 개인근저당권 등을 해결하기 않으시고 사라지셨습니다.
급합니다. 아시는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경미 010-5445-3792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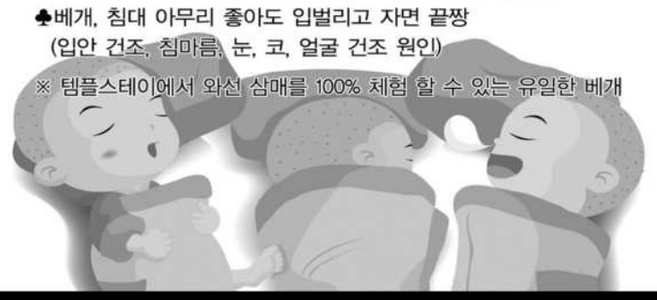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휴~힐링베개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정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밧줄은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더한 그물은
없고 헛된 집착보다 더한 강물은 없다.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 위 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 일부 주거지
- 건 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 전망
- 양도가 : 6억 8천

연산공인중개사 051-863-6622
제 26320-2015-00027호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암자 급 안내 (www.이박사.com)

- 제천시 도심사찰 시세이하 양도함
- 토지 250㎡, 법당 48㎡, 요사채 59㎡
- 중심지역사찰, 융자가능함, 주변유동인구 많음
- 시세이하 1억 3천만원 (구입 1억 6천만원) 융자 5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부지 : 60평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외 ◎ 요사 : 60평
◎ 양도 : 10억8천 ◎ 양도 : 8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김해시 상동면 산속의 사찰
- 총부지 : 3,795평
- 주차장 : 70대 이상 주차가능, 대형버스 진입
- 건물:법당,요사채,삼성각,용왕각,종각
- 요양원도 할 수 있는 사찰
- 가액 : 11억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예천(급)사찰

- 양도 1억 3천만원
- 토지 440㎡
- 법당, 요사채 94㎡
- 마을에 위치한 좋은 사찰
- 주차장공간 있으며 아담하고 조용함
- 접근성 좋으며 깨끗함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과 화성시 경계 명상원 2층
- 포교원, 다실, 갤러리 적합
- 실평수 40평
- 엘리베이터, 주차 10대 가능
- 가액 : 2천만원, 월 90만원

010-5237-59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종점 100m 거리
- 상가 3층, 포교원 총 83평
- 주불(석가모니불), (지장), (관세음), (소불 170)
- 법당 약30평이상,방3,공양실1
- 가액 : 3천5백만원, 월70만원 양도도 가능

010-9376-5633

별장식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 별장식 임법당으로 2층
- 조경은 무릉도원
- 대지 132평, 텃밭과 각종 약초
- 과일나무, 꽃도량
- 전 대지 총 530평, 주차장 300평
- 총합 830평 정도
- 가액 : 2억 3천

010-7138-1141

사 찰 임 대

- 위치 : 김해시 대동면
- 면적 : 45,800㎡, 포장도로, 주차장 넓음
- 법당, 요사채2동(방12), 공양간
- 심야전기,지하수,산수도
- 화명대교,대동IC 10분거리 고시원 운영도 가능한 곳 임대 가능함(회비)
- 가액 : 7억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이찬수)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010-5346-4138.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5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대로변 법당. 아차산역 5분거리
- 인체리어 잘되어 있음. 건강상 급안내
- 약50평(2층, 법당, 방3개, 거실, 주방, 베란다, 화장실2개
- 삼존불(아미타, 관세음, 약사) 동불임
- 탱화는 후불탱화, 지장, 신중,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법당만도 가능. 상담 후 결정
- 불교행사 편하게 할수 있는 절
- 가액 : 2,500만원, 월 160만원

010-2333-3005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 + 전 1,300평
- 법당 15평, 요사체 25평
- 산속 조용히 기도수행하기 아주 좋은곳
- 가액 : 1억4천

010-3305-4559
010-9004-7212

멋진2층 전원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3억

010-9228-67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전원주택지 명당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 대지 : 255평, 황토방과 가건물
- 특징: 호수와 계곡이 인접한 정남향 명당, 토굴과 공방 전원주택 최적지
- 애착을 가진 땅이나 이사관계로 긴급 처분
- 가액 : 1억4천(상담후 조절 가능)

연락처 010-5598-2732
010-9943-222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미아역 5분거리 약 30평
- 가액: 2,000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2번, 3번 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사 찰 임 대

-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주시 유곡죽전길 9-5번지 연화빌리지 4층 사찰을 임대합니다
- 4층 건물 전체 100정도 됩니다.
- 전세금은 1억이고 스님만 오시면 됩니다.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습니다.

010-9892-343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 법당, 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방문 후 결정)

010-2282-88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400만원

010-3723-07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면적 : 1000평
- 법당 : 30평,산신각5평
- 요사 : 60평
- 대형차량진입
- 산속, 남향, 계곡
- 가액 : 6억8천

010-4586-4525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3길 124-5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3천만원

010-4564-8108
010-7161-2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 법당 1, 요사채 1
- 대지 341㎡, 건물 72㎡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050-263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거실주방,방2개,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욕실
- 삼존불,탱화,인등,영가단,법륜대,집기 일절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3억 8천(융자 1억 3천만원)
- 급 양도, 방문요, 즉시법회 가능

010-3186-0361

포교의 미래는 개척 불교의 희망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 교통요충지 3층 30평 옥상이용
- 법당 주방 집기일체 갖추어져 있음
- 약초재배연구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 부득이 양도코져함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가액조정가) 시설비 2,700만원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 법회 가능

010-3813-6174

사 찰 안 내

- 영월 근교 영월에서 25분거리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 동강 앞
- 대지 270평, 법당 17평(목족신축) 요사채 약 40평, 군부지 약 400평 사용함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인직접 011-792-89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시장부근)
- 2층 건물 2층(약 40평) 옥상사용가능
- 삼존불 신중(음향시설완비)
- 주방 거실,각방,에어컨시설
- 가액 :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200만원
- 스님건강상 급 양도함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2729-5122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관음전,종각
- 요사채,공양간 외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7천 (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 평수 : 130평(공유지 포함20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 후원9평, 몸만오시면 됨
- 수행도량
- 가액 : 1 억 6천만원

010-3895-2258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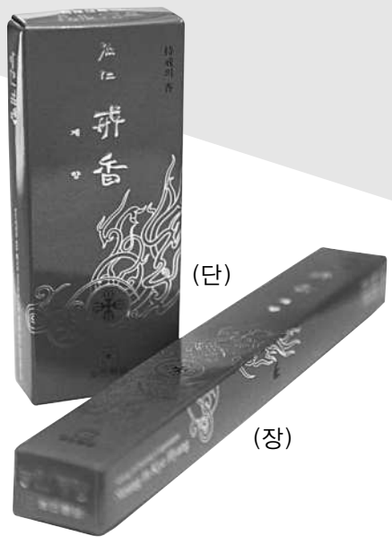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 C트룽파 린포체

〈2〉 두려움을 넘어서 가다

의심, 지혜 가로막는 '구름' 같아라



반드시 의심을 극복해야

동서양의 고대부터 내려온 영적 전통을 모아보면, 전사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사라는 용어는 인간 존재의 기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사정신이란 기본적인 생명감과 참본성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없는 참본성은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고 실재에 대한 왜곡된 태도가 극복된 것입니다.

의심은 두려움 없는 길에 있는 첫 번째 장애물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을 억누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의심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살 무렵부터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 "안 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안 돼'라는 말을 들으면 그에 따라 착하게 행동했거나 아니면 반항했을 수도 있지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안 된다는 말을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no라는 말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no라는 표현은 어떠한 것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 없다거나 의심이 없다는 표현을 보면 긍정적인 뜻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하지요. 여기에 근본적인 의심,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실제로 성취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권위와 훈육, 그리고 인생의 계획과 관련하여 의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저항과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저항감은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도전 거리를 만나면, 그것을 직면하기보다는 도망가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온갖 요구들을 피하기 위한 변명들이 올라옵니다.

반면에 근본적인 no는 삶 속에서 선입견 없이 받아들임을 훈육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정수인 반야심경(Heart Sutra)에는 초월하여 넘어간다는 뜻의 'Gone beyond'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가테(gate)라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no를 말합니다. 반야심경에서 설합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아가 없는 상태, 즉 무아(egolessness) 상태에 들면, 우리는 강한 자아가 가진 고집, 즉 아집/아상이 사라집니다. 불교에서 공(emptiness)을 말하는 수냐타(Shunyata)의 의미입니다.

전사의 전통에서 이러한 신성한 무아 상태의 세계관은 참본성을 기반으로 한 훌륭한 환경입니다. 무아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본적인 참본성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온갖 생각에 휩싸여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작은 세계를 넘어서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위대한 동쪽의 태양이 주는 지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집착 놓고… 기꺼이 '직면'

두려움이 없어지면 의심과 잘못된 믿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인 다정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의 슬픔과 만나 다정함이 물들면, 그때 우리는 실재와 접촉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이 접촉은 참되고 신선하며 날것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감수성이 전사의 기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열쇠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다정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되는 것이 위협적이고 다소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정한 마음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불편해 무감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에게 있어 두려움 없음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두려움 없음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때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며칠 동안 화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에 대한 처방은 '포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포기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윤회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고통과 부정(不淨)함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사에게 포기란 이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놓아버림, 탐닉하지 않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현상세계의 온갖 집착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포기란 세상의 공격적인 상황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세계를 공격해 방해한다면, 당신은 그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황을 덮으려 하기보다 기꺼이 직면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전사의 전통에서, 두려움 없음은 위대한 동쪽의 태양이라는 좀 더 큰 비전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더 크고 힘든 비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성품인 참본성과 진정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과 잘못된 믿음을 극복하는 것이 그 열쇠입니다. 의심은 꼭 작업해야 하는 당신 내면의 문제입니다.

실제 세상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사로서, 우리는 긴장하거나 말문을 닫아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동의할 때는 참본성을 표명하는 일이 쉽지만 날카롭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얼어붙어 방어적이되고, 공격을 되받아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적이라는 게 백 퍼센트 확실해져야만 적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사가 적을 죽여야 할 때는 매우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는 적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런 다음 다정한 마음으로 적을 두 동강 냅니다. 이 순간, 적에게 가차없는 마음은 적을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활한 전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교활한 전사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논리를 잘라버리는 속임수를 씁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함양하는 게 없습니다. 깨어난 사회가 될 긍정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라는 것도 없어져 몇 사람만이 모여 시간을 보내게 될 뿐입니다. 대신에 두려움 없는 샴발라 전사는 매우 평범합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진 전사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맹성을 기르는 중요한 출발입니다.

잘못된 믿음, 지혜 못 보게 해
'무아' 거부하면 참본성 저 멀리
'예의와 품위'로 두려움 극복해
내 안의 진정한 자아 찾아야

두려움이 없는 길을 가려면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겁을 먹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디딤돌 삼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용감함의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진짜 적'은 고집스런 자아

바로 당장 용감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서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다정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연약함에는 슬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로운 감정도 있습니다. 전사가 외롭고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절대 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이해하고 음미하는 예술가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강렬하고, 생생해집니다. 이렇게 감각이 깨어 있는 전사는 두려움 없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전사가 두려움 없는 길을 떠날 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켜야 할 의무인 '계'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쉴라(shila)이며, 쉴라는 태양에 비유됩니다. 태양이 대지를 비출 때, 어떤 곳도 놓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사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더라도, 전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생기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두려움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태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사의 길에서 두 번째 안내자는 메아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메아리는 알아차림 또는 삼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사마디(samadhi)라고 합니다. 이 메아리들은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으라고 환기시켜줍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져 알아차림의 메아리 따위는 잊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메아리조차 없는 세상은 완전히 죽은 세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전사의 세계로 돌아갈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사의 세 번째 무기는 실제로 무기입니다. 활과 화살에 비유되는 이 무기는 지혜(prajna)를 기르는 것과 연결됩니다. 지혜는 알아차림입니다. 경험하는 모든 것을 바로 이해하고 정확히 보는 지혜입니다. 마음속에서 무아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러한 종류의 예리함은 길러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꽉 찬 자아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인 참본성과 연결될 때 화살과 같은 예리함과 활을 다루는 능숙함을 가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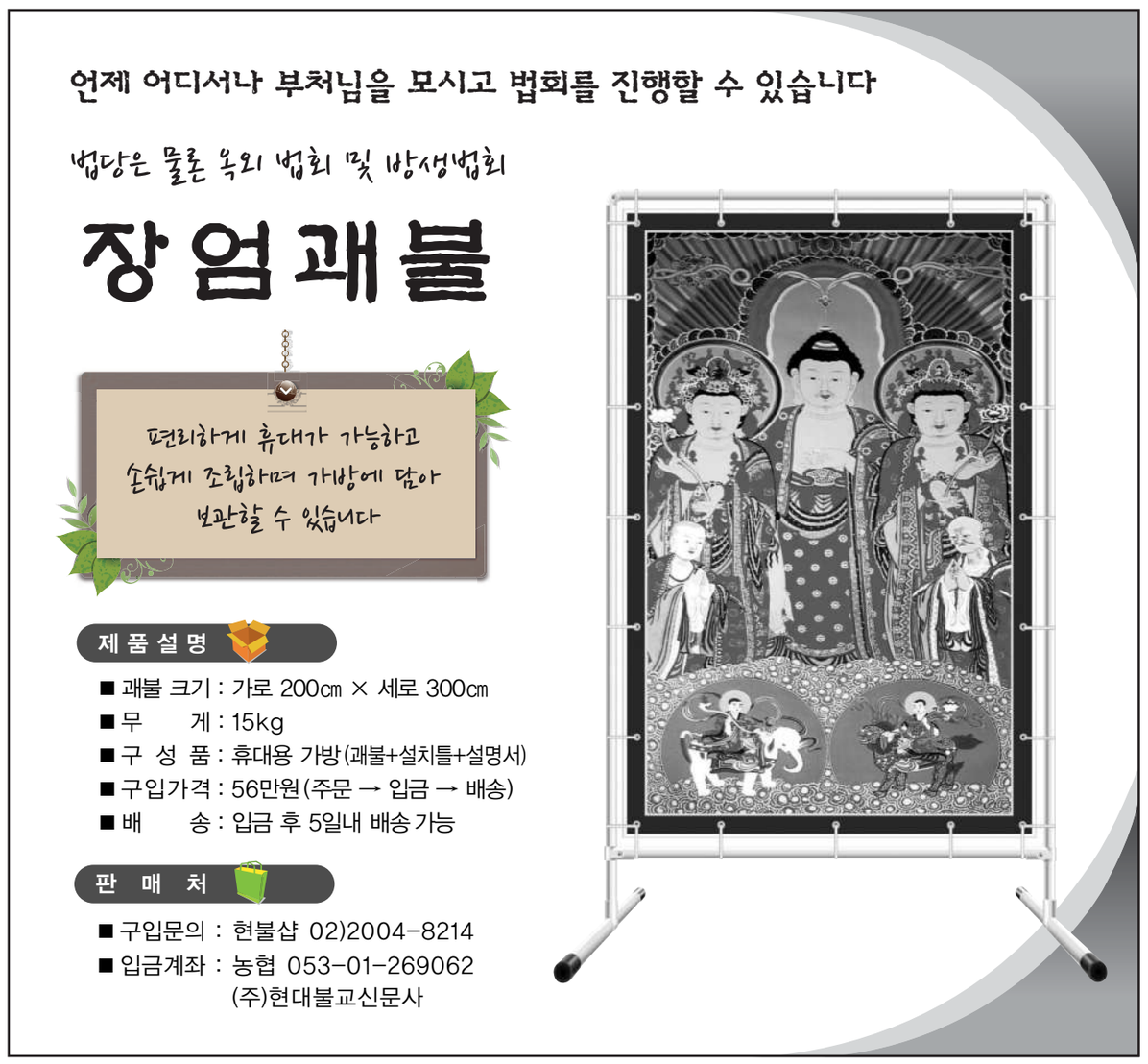
이렇게 알아차림을 구분해내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적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진짜 적은 자아 또는 이기심을 부추기는 이입니다. 이러한 적들은 타고난 내면의 참본성(goodness)보다 악한 마음(badness)를 부추깁니다. 이기적인 자아는 온갖 유혹으로 꾀어 자신들의 영역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샴발라 전사의 전통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적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고집스러운 자아를 의인화한 루드라(rudra principle-루드라는 인도의 폭풍의 신으로, 아집과 아상에 가득 차 고집스러운 자아를 뜻함-옮긴이)입니다. 당신은 적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샴발라 전통에 따르면, 1,000년에 한 번은 꼭 이 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적을 없앨 때는 복수나 앙갚음을 하려 분노에 차 공격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연민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사용하든 적을 제압해 고집스러운 자아를 완전히 터트려 없앱니다. 적을 터트려버리면, 적들은 자신 안에 있는 참본성에 연결되며, 커다란 실수를 범해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사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원리 - 태양, 메아리, 그리고 활과 화살 - 는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과정이며 근본적인 지혜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전사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예의바름과 품위로 나타납니다. 두려움 없음의 길은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연결됩니다. 전사의 마음의 기본적인 비전은 모든 사람 안에 참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좋은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의 길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배종훈의
명상카툰



건널 수 없어 애틋하여라

간월암을 찾은 것이 벌써 세 번째. 다른 여정 중에 잠시 들른 간월암은 언제나 섬이 되어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눈앞에 있으나 닿지 않는 그곳은 더 애틋하고 간절한 섬이 되어 나를 돌아서게 만들었다. 때론 바다를 향해 길게 늘어선 소나무에 기대서, 그믐밤 시동을 건 자동차 창문 너머로, 다시 보기 힘든 연인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듯 내 눈을 붙들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런 간월도, 간월암이 오늘은 길을 열고 육지가 되어 나를 바라본다. 오래 기다렸다고, 이제 만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듯 맑은 하늘 아래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마음의 물소리 ㊤

마지막 글자, 채우지 못하는 이유

"혹시 찬이 입에 맞지 않으신가요?"

은쟁반에 옥구슬을 굴린다면 이와 같은 소리가 아닐까. 석주는 옥구슬처럼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쌀알을 씹으며 생각했다. 해당화 보살님은 목소리가 예뻤다. 목소리만 예쁜 게 아니었다. 눈도 코도 입도 예뻤고,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 끝의 단정하게 깎은 손톱도 예뻤다.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었다. 마음씨도 곱고 예뻤다. 김치 하나를 썰어도 예쁘게 썰었고, 접시에 음식을 담을 때도 예쁘게 담았다. 상을 차려놓고 보면 색색의 음식들이 꽃으로 수를 놓은 듯이 아름다웠다. 단 하나, 예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음식의 맛이었다.

밥은 늘 되거나 질었고, 나물에서는 비린내가 났고, 조림은 시고, 국은 달았다. 맛이 없다기보다는 이상했다. 석주가 13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낯설고 해괴한 맛이었다. 해당화 보살님이 온 지 석 달이 훌쩍 지났는데도, 음식 맛은 좋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럴 리가 있나요. 정성으로 지으신 음식인데요."

밥을 고봉으로 먹던 진성 스님은 밥을 절반쯤 비운 후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가 해당화 보살님의 해맑은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을 보고는 냉큼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고시 공부를 하러 왔다가 공부를 하지도 머리를 깎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반승반속의 삶을 사는 양 처사님은 남은 밥에 물을 말아 훌훌 들이켰다.

밥그릇을 흔쾌하게 비우는 사람은 석명 스님뿐이었다. 모래로 밥을 지어도 맛나게 드실 분이라고 진성 스님이 말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 며칠 사이 석명 스님은 밥을 제대로 드시질 못했다. 수저를 들었는가 싶으면 먼 산을 바라보셨고, 국을 드시는가 싶으면 멍하니 국그릇 속을 들여다보고 계셨다.

"공주님께서는 요새 좀 어떠신지 궁금하구나. 아침 공양 마치거든 진성이가 전화 좀 넣어라."

석명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주님은 공양주 보살님이다. 공주는 보살님의 이름이다. 공주님처럼 귀한 대접 받으며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살님의 삶은 이름과는 거리가 멀었다. 열다섯에 시집가서 두 해만에 남편을 여의고, 가난한 살림에 이집 저집 식모를 살다가 스물에 이 절로 들어와 공양주 보살이 되었다고 한다. 석명 스님은 보살님의 이름 뒤에 '님' 자를 붙여 공주님이라고 불렀다. 동진 출가해서 외롭고 쓸쓸했던 석명 스님에게 공주님은 때론 누이였고, 때론 엄마였으며, 때론 도반이었다고 한다.

봄꽃이 모두 지고 산빛이 초록으로 짙어갈 무렵 공주님은 50년 만에 절을 떠났다. 속이 더부룩하다며 병원에 갔다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이다. 공주님은 병원 대신 요양원을 선택했다. 이 세상에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으니 조용히 남은 생을 보내다 떠나겠다고 했다.

관절염을 오래 앓아 뼈마디가 툭 불거진 공주님의 손은 마법의 손이었다. 그 손이 닿으면 어떤 음식이든 황홀할 정도로 맛이 있었다.

"공주님 음식 솜씨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나물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그림 · 강병호

막 무쳐낸 나물을 손가락으로 집어 먹으며 감탄을 하면 주름이 가득한 공주님의 얼굴에 웃음이 잔물결처럼 퍼졌다.

"솜씨랄 게 뭐 있누. 이 절 계곡의 물맛이 좋아서 그런 거란다."

똑같은 쌀에 똑같은 재료, 똑같은 물로 밥을 지었지만, 해당화 보살님의 음식은 정말이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맛이었다. 거구의 진성 스님은 해당화 보살님의 음식을 일컬어 저절로 살이 빠지게 도와주는 천연 다이어트식이라고 말하며 슬프게 웃었다. 우리는 항상 밝고 예쁜 해당화 보살님을 좋아했지만, 공주님이 그리웠다. 공주님의 밥상이 진심으로 그리웠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석명 스님께서는 108배를 마치고 좌선에 드셨다. 들숨은 고요한데 날숨이 훅, 하고 거친 소리를 냈다.

"스님, 먹을 갈까요?"

탁자 위에 화선지를 깔고, 연적에 물을 받아와도 스님께서는 깊은숨만 쉴 뿐 말이 없었다.

"스님, 어디 불편하세요?"

"으응? 아니다. 먹을 갈거라. 문을 좀 열어다오. 답답하구나."

스님은 문밖에 시선을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먹을 다 갈았는데도 붓을 들지 않았다. 벼루에 물을 더하고 먹을 다시 갈았다. 이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가득한 묵향만이 방안의 정적을 고요하게 흔들었다.

석명 스님이 글씨를 쓰실 때면 공주님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방 한 귀퉁이에 앉아 스님이 쓴 글씨를 홀린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글씨가 이렇게 깨끗하고 맑을까요. 스님 쓰신 글씨에선 물소리가 납니다."

걸림도 없고 욕심도 없었던 공주님에게는 딱 하나 바라는 것이 있었다. 평생을 사모했던 스님의 글씨로 금강경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그 글씨로 열두 폭 병풍을 만들어 둘러놓으면 세상 어떤 고통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공주님이 요양원으로 떠난 뒤, 석명 스님은 금강경 사경을 시작했다. 108배를 올리고 좌선에 들어 몸과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세필로 한 자 한 자 사경을 했다. 한 여름 무더위에도 이마에 흐르는 땀을 장삼 자락으로 닦아내며 단 하루도 쉼 없이 해오던 사경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5,173자를 사경하고, 이제 마지막 한 글자만 남았는데, 어쩐 일인지 스님께서는 며칠 째 붓을 들지 않았다.

한 칸 남은 화선지의 여백을 응시하다가 먼 하늘을 바라보고, 후, 하고 깊은숨을 쉬었다가 종이를 다시 말아놓았다.

아침에 스님께서 공주님께 전화를 넣어보라고 하셨지만, 사실 일부러 전화할 필요가 없었다. 금강경 사경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주님은 매일 전화를 걸었다. 어디까지 썼는지, 물 흐르는 듯한 필체는 변함이 없는지, 매일 올리는 108배에 무릎 관절이 상하지는 않을지 묻는 공주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염려와 기대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어째서 스님은 마지막 한 글자를 쓰지 못하는 걸까. 석주는 스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려 애썼지만, 그 마음 한 가닥도 잡히지 않았다. 마지막 한 글자를 쓰고 나면, 꿈에도 그리던 병풍을 두르고, 공주님이 이 세상을 훨훨 떠나갈까 두려운 것일까.

"종이를 거두어라. 이만 접자꾸나."

마지막 한 글자는 오늘도 채워지지 않았다.

석주는 열두 번째 화선지를 조심조심 말다가 문득 멈췄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 신수봉행(信受奉行). 비어있는 행(行) 칸의 앞에 쓴 글씨는 봉(奉)자가 아니었다. 손수 변이 있는 봉(捧)자였다. 백일에 걸쳐 사경을 하면서 단 한 글자도 잘못 쓴 글자가 없었는데, 하필 마지막 한 글자를 남겨놓고 오자(誤字)를 낸 것이다. <계속>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이름을 불교라고 해 놓은 것이지 그건 진리인 것입니다

L.A. 사는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 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여러분의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서로 같이 하시니 참 기쁩니다. 진리가 하나이지 둘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인 까닭에 불(佛)은 일체 만물의 생명이 불이요 교(敎)는 우리가, 일체 만물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느끼고 알고 배우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대로, 그대로 교예요. 영원한 자기의 각자 불성 역시 생명의 근원, 불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불교 안에서 여러분이 다 살지 불교를 떠나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말입니다. 이름을 불교라고 해 놓은 것이지 그건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지구를 집을 삼아서 사는 생명들입니다. 그것도 인간뿐만 아니라 사생의 모든 종류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생의 모든 종류들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 불교라는 단어가 바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불교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이건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를 집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공기주머니 안에서 산다고 해 보십시오. 사실이 그렇죠. 이 공기주머니가 버스라면 우리는 한 버스 안에 타 가지고 어디로 그것이 돌아가는지 모르고, 초월해서 어디로 도는지도 모르면서 걸상 하나 가지고 내 거니 네 거니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고등 동물로서 태어났으면 그런 인식과 더불어 전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쯤은 좀 알아야 하겠기에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너부터 알라." 하셨습니다. "모두 각자 너한테 주처가 먼저 있다, 못났든 잘났든. 네가 없고는 상대가 없느니라. 그래서 자신을 믿지 않고 타인과 이름과 형상을 믿는다면 그건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했어요.

우리가 법당을 해 놓고 교회 강당을 해 놓고 이렇게 하지마는 '자기부터 알아야 하느니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그대로 맞다는 얘기죠. 없는 말씀 하신 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런고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도 인간 각자 근본에 집결돼 있습니다. 일체의 만물, 즉 말하자면 사생의 종류가 다 우리들의 근본과 더불어 가설이 돼 있는 거와 같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꽃나무도 서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하고 율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배나무는 배나무대로 같이 사랑을 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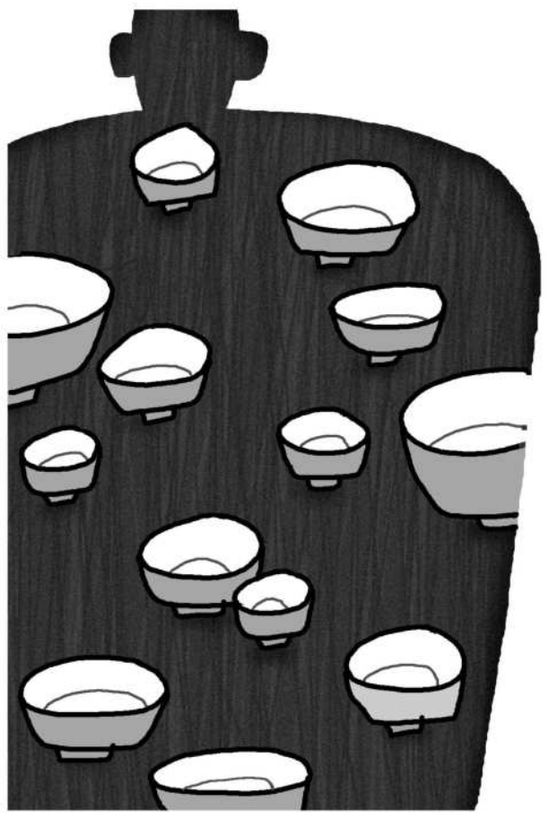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열반하시기까지를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이름해서. 부처님을 왜 '사생자부(四生慈父)'라고 하는가. 모두 사생자부라고 하셨죠? 왜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부처님께서는 그 과정을 찰나 전으로 생각하고 찰나 후로 생각하고 현재에도 공해서 그냥 내가 한 일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까닭인가?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되고 형성돼서 인간까지 형성이 돼서 왔다면 말입니다, 그 사생의 종류와 다 둘 아니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지으셨다고 해야죠, 흡수해서. 그런고로 부처님께서는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가설이 되고 그렇게 근본끼리 근본끼리 연결이 돼서 집결이 돼 있고 그러니 일체제불의 마음은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찰나찰나 들고 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한 생각이 여러분을 구덩이에서 꺼낼 수도 있고 구덩이로 틀어박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하고 절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자기는 빼놓고 '부처님, 날 좀 살려 주십시오. 날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날 좀 깨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래 보세요, 그게 공덕이 될 수가 있는가.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생명을 받드는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죠. 변소에 가도 본인이 갔기 때문에 부처는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부처는 거기 있고 누워서 본인이 자기 때문에 거기 있고, 앉았기 때문에 거기 있고 법당에 갔기 때문에 거기 있고…. 그래서 자삼보(自三寶)에 귀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하기 이를 데 없는, 말로는 다 못하리만큼 정말 무변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몸, 모습 하나를 가지고도 그냥 공생 · 공심 · 공체 · 공용 · 공식화 하고 돌아가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물 한 컵을 먹어도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겠지요, 더불어 같이 먹었으니까. 일을 해도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죠, 더불어 같이 했으니까. 여러분 오장 육부 안에, 세포에 갖은 각색의 소임자가 있고 대뇌에 또 통신처가 있고 또는 정수에, 지금 현실의 용어로다 말을 하려면 입력되는 컴퓨터가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스님들의 모습은 고깃덩어리와 같은 겁니다.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따르라 이랬습니다. 따르라! 여러분한테 관하라고 하는 이치는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믿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믿어서, 자기 육신이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를 이끌어 가는 운전수가 참나이니 자동차는 바로 운전수를 믿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비유하자면.

그리고 찰나찰나 우리가 어떤 걸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리만큼 고정됨이 없이 돌아갑니다. 발자국 떼는 거를 여기 들어오시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집니다. 바람처럼 말입니다. 한 발은 떼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 초 전 일 초 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삼천 년 전이라도 없는 것입니다. 초월해서 그대로, 그대로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돌아가는데 어디 거기에 먼지 앉을 자리가 있고 번뇌가 붙을 자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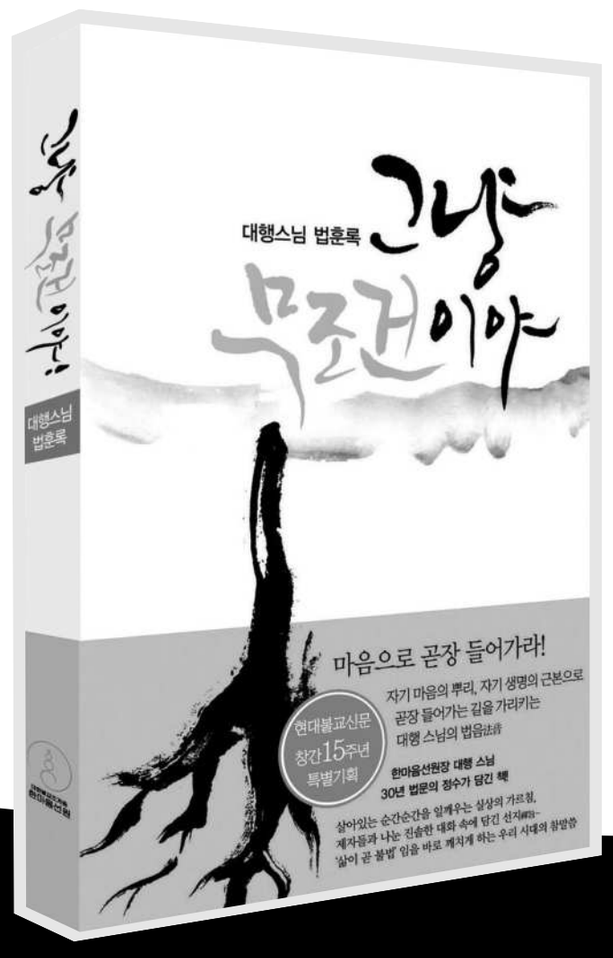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말입니다, 보는 게 고정된 게 있습니까, 듣는 게 고정된 게 있습니까? 말하는 게 고정된 게 있습니까, 만나는 게 고정됨이 있습니까? 움죽거리고 사는 게 하나도, 일거수일투족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라 했습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갖추어 가지고 있고 그대로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는 겁니다.

왜 아까 머리에, 정수에 컴퓨터가 있다고 그랬느냐 하면 이 불가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는 거 타심통, 또 천이통, 듣는 거 말입니다. 천안통, 보는 거 말입니다. 숙명통, 내가 어디서 온 줄 아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이름해서 우리가 오신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 오신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오신통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 안에 들어서 그 통을 굴릴 수 있을까요? 내 이 육신통 속에서 내 이 통을, 이 육신을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굴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통에서 나와야, 육신통에서 벗어나야 이 지구 대기권의 공기주머니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체의 육신이 이렇게 움죽거리고 모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름해서 자기의 오신통이라고 하는데 누진까지,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마음따라 찰나찰나 들고 나신다!

☞ 25면에서 계속

즉 말하자면 육신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가 어딨으며 진리가 어딨으며 세상이 어딨으며 상대가 어딨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부터, 스님네들을 따르되 믿는 것은 너를 먼저 믿고 발견을 해야 하느니라.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건데 그걸 발견해서 너를 알라. 너를 알게 되면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모두가 둘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말입니다. 나도 전에 가톨릭교에 다녀 봤죠.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 하라고 그러면 가서 하되, 나는 어느 땐가 나올 때 눈물을 흘리고 나왔어요. 왜? 이 어리석은 게 이렇게 못났던가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죄는 지어 놓고 신부님한테 다 떠다 안기고 그러고선 뭘 잘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건 절대입니다. 자기가 한 건 자기가 꼭, 악이든 선이든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관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에 싹이 있으면 그 싹의, 자기의 뿌리 없는 거 못 봤죠. 자기 뿌리만이 자기 싹을 푸르게 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자부처라고도, 뿌리라고도,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지, 불성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 싹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여하간에 자기 뿌리를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의지하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는 것이지 '이끌어 주시오.'가 아닙니다. '이끌어 갈 수 있어.' 왜? 자기가 형성시킨 거니까. 자기를 자기가 형성시키기 위해서 정자 난자를 빌려서 삼합이 합쳐서 이게 잉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형성을 시켜서 자기가 지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차 주인이 차 빼서 끌고 다니듯이. 뿌리가 싹을 살리듯이 말입니다. 진짜로 관하면 우리가 무의 세계로 가는 길과 유의 세계, 즉 말하자면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양면이 있는데 양면의 구멍은 한 구멍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자리, 깊숙한 마음자리 말입니다. 거기가 교차로거든요, 이승 저승 교차로.

그래서 거기를 진짜로 믿고 의지하면서 '너만이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어. 너만이 해결사가 돼 줄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너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어. 너만이….' 뭐든지 너만이야, 너! 위로 보지도 말고 내려 보지도 말고 말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대뇌로 통신이 됩니다. 찰나죠. 통신이 되면 바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대뇌에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사대로 통신이 된 즉시 다 종합해서 대뇌로 다시 올라가서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한 것 다 아시죠? 내일 뭐를 해야겠다 하는 것도 생각하시게 되고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차원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심성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심성천체물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심성의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진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하면 관하는 대로 그렇게 입력이 됨으로써 입력되면 현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관하라, 관하라 하는 겁니다. 전자에 입력이 됐던 구정물은 새 물로다가 관하면 그냥 새 물로다 들어가지 구정물은 그냥 금방 없어지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러니저러니 종교 이름을 붙여서 여기 이렇게 그냥 아주 펼쳐서 해 놨기 때문에 아마 더 공부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죠. 우리는 공부라기보다도 자기로부터, 한 가정에서 보세요. 왜 보살들이 응신으로 화해서 그렇게 많은 용도에 따라서 따로따로 이름이 있는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가 몇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면 아버지 행이 나오고 "여보!" 하면 남편의 행이 나옵니다. "얘, 아무개야!" 하면 아들 행이 나오고 그러니 어떤 행을 했을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대로 여여하게 해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그렇게 모두 착에 얽매이고 욕심에 얽매이고 집착에 얽매이고 이론에 얽매이고, 이거는 그르다 이거는 옳다에 얽매이고 그러니까 한 찰나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철 이렇게 살다가 이 모습으로는 다시 못 옵니다. 이 한 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주어졌고 현실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건 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니까, 모습도 차원에 따라서 나올 것이고 삶도 차원에 따라서 나올 것이고 모두가, 생사에 관한 건도 차원에 따라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알고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죽는다. 죽는 고장이 어딘가? 사는 고장이 어딘가?' 이 중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수억겁을 통해서 하세계로부터 이렇게 진화되고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그것도 생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살아나가시는 데서도 내가 한 대로 꼭 이루어지고 내가 한 대로, 크면 큰 대로 받고 작으면 작은 대로 받죠? 그리고 자손들이 말을 안 듣고 제 나름대로 뛰고…. 요새 그 무슨 병이라나? 자폐증이라나 뭐, 이런 병들이 젊은 애들에게 무지하게 생겨요. 여기는 어떤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게 왜냐? 이 마음에서 고장난 걸 마음으로 고쳐야 할 텐데 항상 거죽으로 말로 욕하고 때리고…. 입히는 거 잘 입히고 먹이는 거 잘 먹인다고 해서 교육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마음은 자식이라는 마음, 부모라는 마음, 식구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 식구라는 마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설이 된 겁니다, 벌써. 부모라는 것도 가설이 돼 있고, 자식 부모 이렇게 가설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구를 여러 개 켜도 한 스위치만 누르면 전구에 불이 다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너부터 알라. 자성을 발견하라. 법당에 들어오면 모든 거를 따거 물을 필요도 없죠. 이 자리에서 와서 이 자리로 가니까요. 아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에누리가 있겠습니까? 신부님한테 고한다고,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해결 못한다면 그게 없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귀신과 같으니라. 타인을 믿지 말라." 이랬는데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예수님만 믿으란 걸로 알았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늦게 나오셨든 일찍 나오셨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지극하게 자기 삶을 다 버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그렇게 들을 줄 알고 했겠죠. 그런데 각자! '각자'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정신계의 50%를 잊어버린 셈이죠. 정신계의 50%를 잊고 물질계의 50%만 가지고 하니까 자꾸 막히죠.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이렇게 콤비가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콤비가 돼서 돌아가지 않으니까 걸릴 수밖에. 이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면 장난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르되 믿는 거는 너를 믿어라. 너를 찾게 하기 위해서 이건 방편으로 모두 해 놨느니라." 이랬으니 방편으로 법당에 들어오거나 강당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죠. 그 도리를 알라 이 소리죠.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그 과정을 수억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생의 종류에 다 인연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생자부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길을 걷다가, 아주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뼈 한 무더기를 발견했어요. 지나가다 봤어요. 근데 거기다가 절을 하시거든요.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찌 뼈 무더기에다 절을 하십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얘야, 내 할머니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의 뼈일 수도 있고, 형제간의 뼈일 수도 있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하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말입니다,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즉 말하자면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억겁 광년이지만 그 수효도 없는 겁니다. 찰나기 때문이지요.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가 되면서 미생물이나 벌레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겠습니까? 다 아시죠? 형제들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진화되고 형성돼서 이렇게 사는 일등 동물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뼈 한 무더기로 그 과정을 다 일러 주신 거예요. '너희가 넓게 본다면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느니라. 좁게 본다면, 한 가정으로 본다면 지금 육의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 모두, 어떠한 종류에 관한 건도 전부 내가 전자에 차원이 낮고 그랬을 때의 모습과 같으니라. 그러니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모두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며 공용이며 바로 공식화하고 돌아가느니라.' 했단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몸뚱이 속에도 천차만별의 모습들을 해 가지고 의식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왜 그것을 또 조복이라고 했는가. 나의 자부처는 부처로 생각하고 이 육신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은 중생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마음이 선도자가 돼서 딱 나가면 거기에 이 의식들이 다 따라 주게 돼 있어요. 이 말 한마디를 마저 해 드려야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소 떼가 가는데 말입니다, 소 떼가 물을 건너가야 할 텐데 악어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소 떼 왕초가 들어서지 않으면 전체 하나도 들어서지 않습니다. 왕초가 하나 탁 들어서니까 그냥 그 소 떼 무리들이 전부 같이 들어선 거예요. 오히려 악어들 잔등이나 머리나 막 밟고 그냥 넘어선 거죠. 그래서 소 떼 왕초는 그 소 떼를 한 놈도 악어한테 잡히게 하지 않고 건넜다는 얘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관할 때 모두 비켜 놓고 나만을 또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공생이라고 그랬죠? 그 한마음 가운데 깊은 속에, 내게 만약에 어떠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마음이 말입니다, 육체가 뛰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딱 정립이 됐을 때는 이 속의 생명들의 의식들이 다 따라 줘요. 왜 따라 주느냐.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치라 의식들도 전부 화해서 보살로 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돼서 밀고 넘어서는 이런, 즉 말하자면 용무로서 공용으로서…. 그거를 평등공법이라고도 하죠. 하여튼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 전자의 모자라는 마음을 지워 버리고 지금 이익 한 마음을 내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게 하나? 지금 여러분은 이게 제일 시급할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또 질문한다고 그러니 말을 줄일까요, 좀?

자손들이나 어떠한 분들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지극하게 관해서, 몸뚱이를 끌고 오기보다는 마음을 끌고 오면 더 몸뚱이가 집으로 들어오기가 쉽죠. 우리가 발전을 하면 좀 살기가 쉽다고 하죠. 발전을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마음의 발전이라는 것은 물리가 터져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고 이러는 까닭에 지금 현실에 우리 모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들의 차원이 높아야 이 허공에너지도 꺼내 쓸 수 있고 마음 차원이 높아야 일체제불의 마음하고도 통하고 우주의 모든 생명들하고도, 생명들이라 하면 별성이라든가 뭐 모든 게, 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생명이 있지 없는 건 없으니까요. 우리가 높아져야 높은 데 있는 걸 꺼내 쓰듯이, 우리가 연관이 되고 통하고 이렇게 하면 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이룩하고 연구를 하고….

하여튼 여러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이 외려 지루하고 들은 게 다 날아가 버리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7년 6월 13일 L.A.지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주어졌고
현실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집니다.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힘드세요? 뇌를 쉬어보세요



선업 스님
서울통담아카데미아 원장

최근 '지친 뇌'로 인한 다양한 병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두통, 기억력 장애 등의 신체적 문제부터 소진(번-아웃) 증후군 등의 심리적 문제 까지 점점 그 연관 증상이 늘고 있다.

마침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지친 뇌'의 회복에 효과적인 휴식 방법으로 멍 때리기 방법을 권하면서 '멍 때리기'가 '대회'로 열리게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이 대회는 놀랍게도 중국에까지 진출해 2014년 11월 중국 청두(成都)시에서 중국 최초의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의 '멍 때리기 대회(Space out Contest)'를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 전체 인구 중 80% 이상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이중 15%가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회의 취지를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정보 과잉에 시달리는 뇌를 쉬게 하자"는데 있다고 전했다.

〈멍 때려라〉의 저자인 신동원 교수는 "뇌는 휴식을 통해 정보와 경험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하게 삭제하여 새로운 생각을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데, 현대인의 머리는 휴식할 시간이 없다"고 진단한다. 이어서 정보부재에 대한 "신경증적인 불안감이 24시간 SNS에 접속하게 하는 등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만들고 있지만" 정작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비의 시간은 미확보된 현실에서 '효율적인 뇌의 재정비 수단'으로 '멍 때리기'를 권하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을 타보면 탑승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심지어는 목욕탕에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휴식시간에 뇌가 제대로 못 쉬면 피곤이 가중되고 일의 능률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 결과 이미 지쳐버린 뇌는 점점 무기력해 진다.

이렇게 무기력해진 뇌로 인해 생긴 기억력이나 창의력 등 뇌의 감소된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40대 5 멍 때리기'도 그 한 방법이다. 디지털 기기를 쉼 없이 사용하다 지친 뇌는 기기와의 접촉 없이 멍하니 있을 때 기억을 저장하는 곳과 창의력 부분이 활발해지는데 뇌 안의 쓸데없는 정보들을 정리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들로 채우려면 40분 집중한 뒤 5분 정도 멍하니 있으면 된다.

'멍때리기' 효능 드러나
세계 각국 대회 열기도
뇌 휴식이 집중력 높인다

다음은 걷기명상이다. 휴대폰 등 기기에서 벗어나 오직 이곳에서 '해야 한다'와 '하면 안 된다'의 고리를 벗어 두고 그저 호흡에 집중하고 걸음을 옮겨본다. 해야 할 '뭔가'로 마음을 묶거나 '고민'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소비하지 않고 걷다보면 호흡과 발걸음은 조화를 이루고 뇌는 새로운 에너지를 채운다. 이런 움직임을 통한 뇌 휴식은 마음을 청소할 에너지가 된다.

전통적 방법인 마음 휴식형 '방하착'도 좋다. '선 정리 후 정돈'이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방하착' 즉 '그냥 놓으면' 생각들은 그들이 있어야 될 곳에 그대로 정돈되어 사라진다. 이런 마음 현상을 활용한 뇌 휴식은 밖으로 치달아 과소비 한 에너지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

여기에 보태어 생활 속 미니멀리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기', '당분간 디지털 관련 도구 구매하지 않기' 등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행하다 보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현재 지친 뇌 덕분에 '쉼'은 정신적 비타민으로 도드라지고 있다. 그리고 '멍 때리기'를 포함한 다양한 뇌 피로 회복 방법의 등장은 힐링 분야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세상은 많은 정보로 넘쳐나고 우리는 이로 고통받는다. 이때야말로 고통의 극복 기제이자 행복의 활성제인 붓다의 명상법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대중 속에서 꽃 필 순간이다.

기자 칼럼

불교행사와 사진 촬영 에티켓



노덕현
취재부 기자

신록이 무르익고 꽃이 활짝 피는 6월은 바야흐로 출사의 계절이다. 6월은 사진을 찍는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계절로 공원이나 행사장 마다 사진기를 들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로 넘쳐난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신촌 봉원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가 진행되던 와중 한쪽에서 난데없는 욕설이 섞인 고성이 들려왔다. 취재를 하던 와중 고개를 돌려 보니 사진을 찍는 어르신들이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다.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앞에서 가린다며 한 어르신이 늦게 온 어르신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이날 봉원사에는 많은 사진사들이 몰렸다. 봉원사 주지 스님이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창작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인지 인연이 닿는 이들이 많이 온 듯 하였다. 하지만 협회와 별개로 찾은 이들도 많았다. 최근 늘고 있는 사진공모전에 불교행사 사진이 소위 '잘 통한다'는 말이 돌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단순히 사진만 찍지 않았다. 영산재에서 축문을 외우는 스님들 사이에서 캠코더를 들이대는가 하면 사진을 찍는데 거슬리는지 스님들이 집전하는 곳에서 목탁과 요령을 치우는 만행을 벌이기도 했다. 한 어르신은 영산재 중간에 영단 앞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기도 했다.

보다 못한 영산재 보존회 스님들이 통제에 나섰지만 잠시 뿐이었다. 스님들이 행사를 하려 자리를 비우거나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마치 터진 둑에 물이 들어오듯 이들은 우르르 몰려와 행사진행을 어지럽혔다. 스님들도 통제가 되지 않자 이들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특정 연령을 지적하기엔 무엇하지만, 대부분이 연령대가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다. 나이가 있다보니 경우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불교계 한 방송사 기자는 이날 한 어르신에게 문제 지적 후 맞기까지 했다. 태고종 종보 관계자는 자료 취합을 위해 다니다가 이들에게 오히려 꾸지람을 들었다.

영산재는 단순한 불교행사가 아닌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수많은 외국인들이 관람하는 한국의 문화유산이다. 많은 대중이 지켜보는 행사 중간에 벌어진 일에 당시 불자의 한명으로써 낯이 뜨거울 뿐이었다.

이런 상황이 비단 6일 영산재때의 일만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린 봉축 연등회나 법요식 당시에도 일어났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진촬영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그날 행사의 키포인트가 되는 장면을 담는 시간과 촬영 위치가 한정돼 있는 반면 이를 찍고자 하는 이들은 항상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동업자라는 공감대가 있으며, 행사 자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의식은 있다.

최근에는 DSLR와 미러리스 카메라의 보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촬영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는 사진동호회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공모전도 많이 열린다. 취미생활과 함께 공모전 입상 등의 성과는 인생의 큰 낙이다. 문제는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수만큼 매너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날 지켜본 사진촬영가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진 것 처럼 보였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바람은 사진기를 든 이라면 모두가 갖는 마음이다. 스스로 자신의 그런 마음이 행사 진행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불교계 만이라도 사진촬영 에티켓 교육과 포토라인 통제 등 행사 진행절차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社說

독립운동 증언에도 정부 귀 기울여야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을 후원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최근 하안거 입재법회에서 만해 스님의 시자 춘성 스님과 은사이자 만공 스님의 시자 원담 스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대중에 전했다고 한다. 설정 스님의 말에 따르면 이 두 분은 평소에도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에게 독립자금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도 만해 스님 따님 회고록에서 만공 스님이 간월암 천일기도마다 만해 스님을 만났다고 전한다고 소개했다.

만공 스님을 시봉한 수연 스님도 선학원 고승대회 참석 당시 삼청공원에서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에게 독립자금을 건네는 것을 목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증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당국이 귀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만공 스님 서훈에 대해 정부는 투옥 등 자료 미비를 근거로 막고 있다.

여기에 조선총독에게 한국불교계에 간섭하지 말라며 일갈한 만공 스님이 당시 일제 영향을 받은 조계종 소속 스님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도 들고 있다.

만공 스님은 의친왕, 김좌진 장군 등 항일인사와 깊은 교류를 했으며 이는 수덕사의 의친왕 거문고 등 유물로도 남아 있다. 이 같은 답변은 변명아닌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정부는 그 업적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복역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독립운동가 인정을 거부해왔다. 이로 인해 일제 치하에서 자금 후원 등을 해온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증언에 귀 기울이고, 이를 자료화 하는 작업에도 나서야 한다.

아울러 불교계 내에서도 재조명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부처님 가피' 세계에 전하는 구호사업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재)아름다운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부처님 자비를 전하고자 2년 째 추진해 온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난 5월 말을 기점으로 교실 6개 및 기숙사 2동(남 · 녀 각 1동씩) 등 총 4만평 부지 학교를 완공, 학교 조경 공사와 기자재 확보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드웨어 격인 시설물 건축은 마무리된 셈이다.

의미있는 기부도 이뤄졌다. 광제사 경원 스님은 보리가람 학교에 모실 부처님 진신사리 3과(골사리 1과 · 육사리 1과 · 발사리 1과) 및 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불, 200여 점의 복장물을 기증했다. 경원 스님의 기증품은 6월 14일 봉행된 부처님 점안식 이후 아프리카로 전해졌다.

아직 과제도 남았다. 책걸상 · 컴퓨터 등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부터 학교 조경 비용, 트랙터 및 기숙사 내부 시설물 구비까지 5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아름다운동행은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국 대형사찰에 모금함을 설치, 불자들에게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후원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 4월 지진피해를 입은 네팔 어난따링 게솔 지역에도 기술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불교는 5~6년 전부터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 손길을 세계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많은 불교계 구호단체들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불자들의 관심과 단체의 투명한 운영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고통받는 이에게 전하는 자비 정신은 불교의 중요한 실천행이다. 많은 불자들이 세계를 위한 자비행에 동참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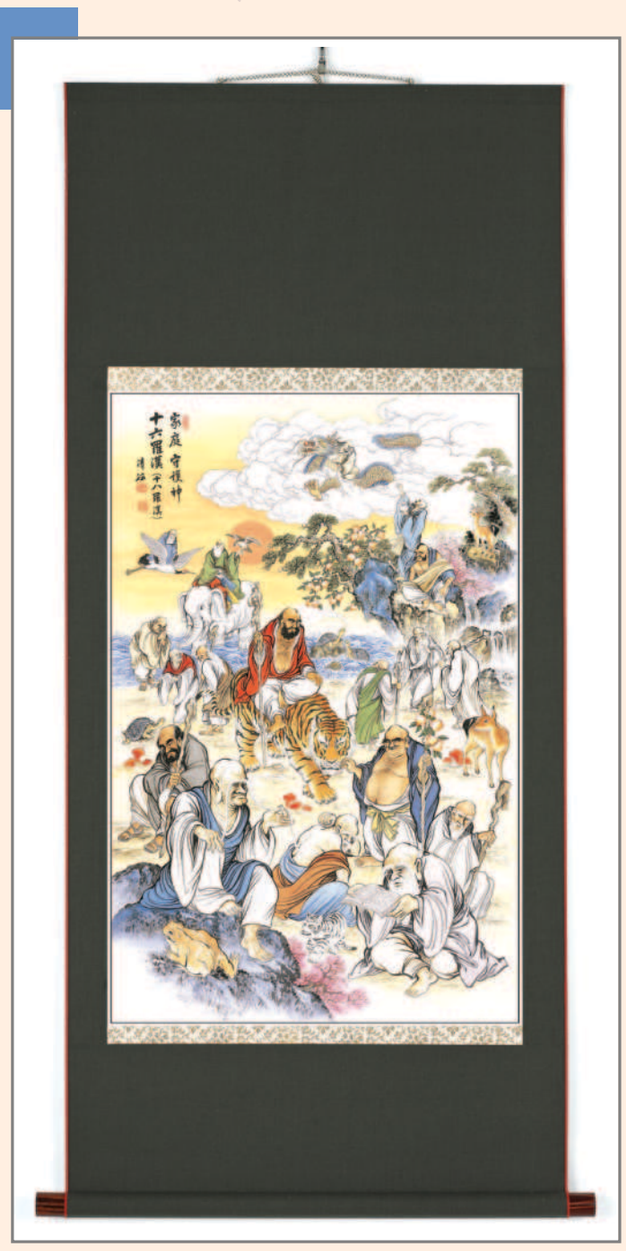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16나한도(18나한), 포대화상도, 달마도

이상 작품들은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교카렌다를 통해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직접 세가지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한도(18나한)



나한(아라한의 준말)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이들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현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 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한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 길이 120㎝ × 폭 54㎝ • 가격 :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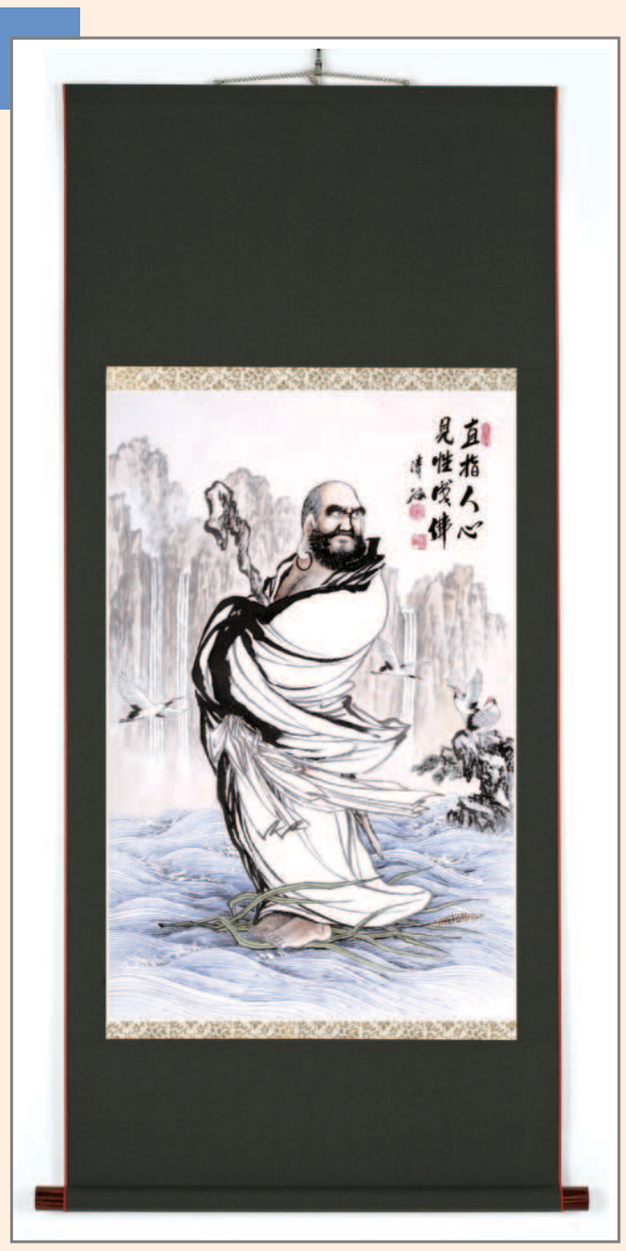
포대화상



커다란 포대자루을 메고 다닌다고 하여 포대화상이라고 하며 포대자루 속에는 모든게 다 들어있어서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꺼내어 준다고 합니다. 천하을 다 포용할 수 있을것 같은 커다란 배와 언제나 활짝웃는 모습의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생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고 하여 복달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복을 상징하는 대표되는 모습입니다.

16나한도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보내 드립니다.

달마도



달마대사 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유명한 소림사의 9년동안의 면벽 참선은 달마대사께서 부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감히 법접을 할수 없을것 같은 강직한 모습의 달마대사의 모습은 발산하는 강력한 기로 인해 잡귀가 물러나고 삼재가 소멸되어 가정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